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48009-200000373001

철학박사 학위논문

영화 치유와 원효의 화쟁철학

-영화 <돌아온다>를 중심으로-

Cinema Therapy with
Wonhyo's Philosophy of 'Hwajaeng'

울산대학교 대학원
철 학 과
신 창 옥

영화 치유와 원효의 화쟁철학

-영화 <돌아온다>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박 태 원

이 논문을 철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2월

울산대학교 대학원
철 학 과
신 창 옥

신창옥의 철학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손 영 식 인
심사위원 조 수 동 인
심사위원 석 길 암 인
심사위원 박 재 현 인
심사위원 박 태 원 인

울 산 대 학 교 대 학 원
2 0 2 1 년 2 월

국문요약

현재 한국 사회는 사회적 갈등과 대립 및 새로운 질병 등으로 몸과 마음이 심하게 아픈 상태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사람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혐오와 차별, 슬픔과 분노 등은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된다. 이를 효과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 불교의 '화쟁(和諍)철학'과 예술치료의 하나인 영화치료를 결합하여 새로운 '영화 치유'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예술사진(Fine Art Photography)전공 출신의 영상학전공 교수로서 본 연구자의 주 전공인 영상을 통하여 기존 텍스트 또는 신비주의에 가려져 있던 원효의 가르침을 시각언어에 적용시켜 하나의 새로운 사례 내지는 현대적 설화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원효의 화쟁철학을 통한 통섭(通攝)사상이 주는 치유의 효과를 현실 문제에 도입하여 화쟁이 가져오는 언어치유의 효과를 불교 내부만이 아니라 사회전반의 분야로 확장시켜 '치유학'으로의 가능성에 다가서도록 해 본다.

이를 위하여 먼저 힐링 영화로 평가받은 제41회 몬트리올국제영화제 금상 수상작인 영화 <돌아온다>의 에피소드들을 각각 분석하여 그 갈등과 고통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고 그 해결 과정을 살펴보았다. 영화는 많은 생략이 있기에 정확하게 어떤 과정과 어떤 계기로 치유가 되었는지 보여주지 않는다. 그렇지만 화쟁의 눈으로 그것을 가늠하고 결과를 대입시켜 과정을 재현하여 보았다. 그리고 화쟁이 단순한 문제 해결만이 아닌 치유과정에서 오는 깨달음과 그것을 넘어서는 통섭의 장까지 영화의 엔딩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화 대본과 콘티북 등을 추가하여 감상에서 눈과 귀로 보고 듣는 정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고, 부족한 부분은 감독과의 인터뷰 및 원작과의 비교 등을 더하여 보완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치유철학으로서 화쟁철학을 도입하였다. 화쟁은 불교의 쟁론 갈등의 해결책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불교의 종교적 색채를 배제하고 오늘날 현실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화쟁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한 방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본 연구자가 주목한 것은 화쟁을 '언어 다툼의 치유'라고 해석한 박태원의 연구이다. 이에 본 연구는 쟁론의 상황에서 소통을 하지 않고 상대를 밀어내거나 정복해버리는 불통의 상황을 '차이가 존중되며 상호작용하는 소통의 방식으로 바꾸어 주는' 화쟁으로 인하여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보았다. 그리고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어느 한쪽만의 치유가 아니라 양쪽이 모두 치유를 하게 되고 나아가 그들이 속한 사회도 치유의 효과를 얻게 되는 화쟁의 바른 적용에 집중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치유효과는 조건인과에 의한 것으로, ‘문(門) 구분을 통한 화쟁’이 이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화쟁에 있어서 ‘문(門) 구분 사유방식’이란 조건인과를 밝혀내는 연기적 사유방식을 뜻하며, 이는 쟁론의 상황에서 ‘상이한 견해와 이론들의 배타적 충돌을 해소’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대립과 갈등을 원천적으로 치유한다는 것이다. 불통의 쟁론을 소통의 화쟁으로 바꾸는 원효의 ‘문(門) 구분’이란 붓다의 연기 통찰을 계승하여 대립된 견해의 차이와 변화를 조건인과로 살펴보는 것으로 쟁론의 치유와 소통에 적용하는 것이다. 조건인과의 문 구분과 부분적 타당성의 변별과 수용에 대한 근거로 『금강삼매경론』과 『대승기신론 소·별기』를 중심으로 접근하여 확인하였다.

정리하자면, 화쟁에 있어서 ‘문 구분 사유방식’이란 조건인과를 밝혀내는 연기적 사유방식을 뜻하며, 이는 쟁론의 상황에서 ‘상이한 견해와 이론들의 배타적 충돌을 해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언어로 인하여 발생하는 ‘견해의 배타적 다툼에 대한 치유’로서의 화쟁은 결국 ‘쟁론 치유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영화치료와 치유에 관한 개념과 전망에 관한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영화 치유는 아직 그 체계가 없으나 영화치료는 관련 학회를 중심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으로 보인다. 하지만 영화치료는 심리치료의 보조기재로 주로 활용되며 독자적인 영역으로의 영화치료법은 확립되었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영화 치유에 있어 철학적 접근을 하는 이유는 치유의 효과를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치유 방법을 알아보고자 함이다. 그래서 본 연구의 목적인 영화 치유는 스스로 치유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더불어 치료학회에도 보다 체계적인 접근법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치유는 치료와 달리 의사나 의료전문가의 처방이나 시술 없이 본인 스스로 병 증세를 나아지게 다스리는 방법이다. 그러나 병이 심한 경우 치료가 우선되어야 치유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 치료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치유는 더 강화시켜야 한다. 특히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면 치료 이전에 스스로 치유에 나서보는 것은 ‘치료의지의 확보’라는 점에서 더욱 권하고 싶다.

영화는 언어를 바탕으로 삼은 표현매체로 같은 언어를 사용할 때 그 전달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한국 영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뻗어나가는 이 시기는 좋은 치유 콘텐츠의 양적 확보라는 측면에서 영화 치유가 안정적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영화 치유에서 관객들은 영화를 감상하면서 각자가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을 살펴보는 계기를 만나며, 영화를 보면서 간접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렇게 갈등과 문제의 해결 과정을 본

다는 것은 곧 조건인과의 문제 해결 과정을 본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관객에게 작용/부작용의 간접 경험을 제공하여 화쟁의 성찰 경험을 늘려주는 효과를 가져 온다.

여기서 본 연구자는 효율적인 치유 방법으로 원효의 철학적 사유를 치유 철학으로 정립해 보고자 원효의 화쟁을 고찰하여 '영화 치유학'으로의 가능성에 접근해 보았다. 원효의 화쟁은 언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툼의 치유에 적합한 철학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가 치유의 방법으로 불교의 화쟁철학과 예술치료의 하나인 영화치료를 결합하여 새로운 영화 치유 방법으로 영화 치유학의 밑그림이 되기를 희망한다.

이상과 같이 원효의 화쟁철학은 현대사회의 대립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물론 거기에는 현실 보완적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상호 차이의 이해와 깨달음은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함과 더불어 새로운 공존의 지평을 열게 할 것이다. 화쟁은 당면한 문제의 갈등과 대립에 대한 해소와 치유는 물론이고,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확인하고 발전'시킨다는 것으로도 오늘날 현재 여기에 꼭 필요한 사상이다. 원효의 철학이 종교를 떠나 보편 철학으로서 세상사 모든 일에 적용시킬 수 있는 차원으로의 확산을 기대해 본다.

본 연구의 예상되는 결과로는 우선 치유학으로서 치유철학의 정립을 기대한다. 영화치료의 구조적 문제점 및 한계를 넘어서는 본인 자각을 일깨워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계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치유철학으로 분석한 결과물로는 영화 <돌아온다>에 내재되어 있던 치유 능력을 깨어나도록 하며, 영화적으로는 내재되어 있던 불교의 종교적 특징들을 드러나게 하여 후속작이나 프롤로그에 대한 여지를 제공할 수 있을까 생각한다.

주요어 : 원효(元曉), 통섭(通攝), 화쟁(和諍), 치유, 언어 치유, 쟁론 치유, 영화 치유, 영화 치유학, 영화 <돌아온다>, 문 구분 사유방식, 조건인과, 연기(緣起)

차 례

Ⅰ. 서 론 ····· 1

1. 연구배경 및 목적 ····· 1
1-1. 영화의 치유적 활용에 대한 관심 증대 ····· 4
1-2. 영화는 사람 사는 이야기 ····· 6
1-3. 원효의 화쟁과 치유철학 ····· 8
2. 연구내용 ····· 10
2-1. 영화 <돌아온다>와 영화 치유 ····· 10
2-2. 영화 치유와 원효 치유철학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 12

Ⅱ. 영화 <돌아온다>의 의미와 가치 ····· 13

1. 한국영화의 세계적 도약 ····· 13
2. GV, 새로운 영화 접근법 ····· 15
3. 몬트리올국제영화제에서 수상원인 분석 ····· 18

Ⅲ. 영화 치유의 개념과 방법 ····· 23

1. 영화 치유의 개념 ····· 24
2. 영화 치료·치유의 현황 ····· 28
3. 영화 치유로서의 가치 ····· 31

Ⅳ. 영화 <돌아온다>에 나타난 불교의 치유양상 ····· 37

1. 영화에서 나타난 갈등과 원인 사례 분석 ····· 39
1-1. '진철'이 기다리는 사람과 상처 ····· 39
1-2. '유미'의 죄책감과 상실 ····· 43
1-3. 스님의 과거 방황과 출가 ····· 46
1-4. 변사장의 좌절과 가족의 해체 그리고 아들의 죽음 ····· 48
2. 영화에서 표현된 불교적 치유양상 ····· 53

Ⅴ. 원효의 치유철학 ·····61

1. 원효의 화쟁이란? ·····63
1-1. 화쟁의 개념과 통섭 ·····63
1-2. 문(門) 구분을 통한 화쟁 ·····68
2. 갈등해결 방법으로의 화쟁 ·····75
3. 화쟁과 치유 ·····85

Ⅵ. 영화 <돌아온다>에서 만나는 원효의 치유철학 ·····96

1. 영화에서 갈등 해소 사례 분석 ·····96
1-1. '진철'의 깨달음과 새로운 인연 ·····96
1-2. '유미'의 동일성 환각과 깨우침 ·····99
1-3. 스님의 보살행 ·····101
1-4. '주영'의 오해와 반성 ·····103
1-5. 변사장의 화해와 참회 ·····104
2. 영화 <돌아온다>를 통해 본 영화 치유의 전망 ·····111
3. 원효의 치유철학으로 본 영화 치유학의 구성 조건과 전망 ·····117

Ⅶ. 결론 ·····123

참고문헌 ·····128

ABSTRACT ·····131

표 목 차

[표 1] 한국 영화배우 할리우드 영화 진출현황 ·····14
[표 2] 몬트리올국제영화제 한국영화 참가 및 수상내역표 ·····19
[표 3] 예술치료의 종류 ·····27
[표 4] 한국영상영화치료학회 학회등록 연수기관 ·····29
[표 5] 스터드번트의 영화요소별 반응지능 ·····32
[표 6] 영화치료에서 의식적 자각 하에 영화감상의 장점 ·····33
[표 7] 불교와 영화치료의 유사성과 차이 ·····34
[표 8] 박태원의 화쟁연구사 비교 분석 ·····65
[표 9] 보편적 화쟁을 위한 원칙 ·····68
[표 10] 연기법과 화쟁의 연관성 ·····69
[표 11] 화쟁의 의미 ·····69
[표 12] 쟁론 발생의 예 ·····71
[표 13] 쟁론의 양상 ·····71
[표 14] 견해의 두 가지 힘 ·····76
[표 15] 승리의 힘에 나타나는 사고방식의 유형 ·····77
[표 16] 쟁론과 화쟁 관계도 ·····79
[표 17] 연기와 문의 개념 ·····79
[표 18] 박태원의 신김치에 대한 견해다툼 사례 분석 ·····80
[표 19] 신김치 맛에 대한 견해 다툼을 화쟁으로 소통하는 과정 ·····80
[표 20] 견해 다툼의 해소 과정에서의 깨달음 사례 ·····81
[표 21] 본각과 시각의 관계 ·····87
[표 22] 대승기신론의 이문(二門)에 대한 원효의 해석 ·····92
[표 23] 이문으로 인간이 겪는 마음의 병 치유 과정 ·····93
[표 24] 문 구별의 사유방식의 3단계 발전 ·····93
[표 25] 등장인물과 기다림의 대상 문제 ·····108
[표 26] 변사장 화쟁 대상 ·····109
[표 27] 변사장의 치유 과정 ·····109
[표 28] 변사장의 마음의 병에 대한 화쟁 ·····110
[표 29] 치료와 치유의 비교 ·····112
[표 30] 치유 방법에서 영화 감상의 장점 ·····113
[표 31] 영화 치유학의 대상 ·····118

그 림 목 차

<그림 1> 월별 극장 관객수 ····· 2
<그림 2> 국내 OTT시장 규모 추이 ····· 3
<그림 3> 영화<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 GV장면 ····· 16
<그림 4> 국제영화제작자연맹 공인 경쟁부문 국제영화제 ····· 18
<그림 5> 'E-motion Picture Magic' 용어 개념도 ····· 25
<그림 6> 영화와 정신분석의 학문상 유사점 ····· 26
<그림 7> 영화 치유 개념도 ····· 35
<그림 8> 영화 <돌아온다> 변사장역의 배우 김유석 ····· 38
<그림 9> 영화 <돌아온다> 콘티북 #53 ····· 46
<그림 10> 영화 <돌아온다> 콘티북 #47 ····· 51
<그림 11> 영화 <돌아온다> 속 스님 예불 장면 ····· 53
<그림 12> 영화 <돌아온다> 속 사찰 장면 ····· 55
<그림 13> 영화 <돌아온다> 콘티북 #47 ····· 56
<그림 14> 영화 <돌아온다> 속 변사장이 돌탑 쌓는 장면 ····· 57
<그림 15> 영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에서 반야심경 새기는 장면 ····· 60
<그림 16> 화쟁 좌담회 안내문 ····· 64
<그림 17> 올바른 '화쟁사상의 원천'에 대한 비유 ····· 67
<그림 18> 붓다의 연기적 사고방식 ····· 78
<그림 19> 쟁론에서 다른 견해를 대하는 태도 ····· 78
<그림 20> 현실 화쟁의 성공조건 ····· 82
<그림 21>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요구되는 규칙 ····· 84
<그림 22> 쟁론의 속성 ····· 85
<그림 23> '화쟁과 치유 그리고 통섭'의 관계도 ····· 86
<그림 24> 본각의 불가사의한 훈습의 개념 ····· 90
<그림 25> 화쟁 치유 개념도 ····· 91
<그림 26> 일심(一心) 여정 ····· 95
<그림 27> 영화 <돌아온다> 콘티북 #51 ····· 96
<그림 28> 영화 <돌아온다> 콘티북 #25 ····· 97
<그림 29> 영화 <돌아온다> 콘티북 #66 ····· 98
<그림 30> 영화 <돌아온다> 콘티북 #88 ····· 99
<그림 31> 영화 <돌아온다> 콘티북 #100 ····· 100
<그림 32> 영화 <돌아온다> 속 스님이 할매를 어머니로 모시는 장면 ····· 101
<그림 33> 영화 <돌아온다> 속 스님이 러시아 민속가요를 노래하는 장면 ····· 102

<그림 34> 영화 <돌아온다> 콘티북 #78 ·····103
<그림 35> 2018년 연극 돌아온다 출연진 ·····114
<그림 36> 할리우드 3막 구조 ·····115
<그림 37> 캐릭터 능력치 설정의 예 ·····116
<그림 38> 영화 치유학의 원리 ·····119
<그림 39> 조건인과의 이해 ·····119
<그림 40> 배타적 쟁의 특성 ·····120
<그림 41> 화쟁 논법의 보편 원리 ·····120
<그림 42> 화쟁과 무주 그리고 치유의 개념도 ·····121
<그림 43> 치유와 화쟁의 연결 그리고 무주 ·····121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현재 한국 사회는 사회적 갈등과 대립 및 새로운 질병 등으로 몸과 마음이 심하게 아픈 상태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사람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혐오와 차별, 슬픔과 분노 등은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된다. 이를 효과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 기존의 의학적 치료와 더불어 종교 치유과 예술치료 등 다양한 대체 치료요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치유의 방법으로 불교의 화쟁(和諍)철학[1]과 예술치료의 하나인 영화치료를 결합하여 새로운 영화 치유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예술사진(Fine Art Photography)전공 출신의 영상학전공 교수[2]로서 본 연구자의 주 전공인 영상을 통하여 기존 텍스트 또는 신비주의에 가려져 있던 원효의 가르침을 시각언어에 적용시켜 하나의 새로운 사례 내지는 현대적 설화로 표현하고자 함이며, 원효의 통섭(通攝)사상이 주는 치유의 효과를 현실로 가지고 오고자 한다. 그리고 원효의 화쟁이 가져오는 언어치유의 효과를 불교 내부만이 아니라 사회전반의 분야로 확장시켜 '치유학'으로의 가능성에 다가서도록 해 본다.

먼저 우리 사회에 나타난 대립과 갈등의 양상에 대한 원인에 대하여 알아보고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지난 몇 년간 한국사회는 큰 변화와 충격을 겪으면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심화되었다. '세월호 참사'[3]로 인하여 국민들은 집단적 슬픔에 빠졌으며, 정권에 대한 분노는 '촛불혁명'[4]으로 이어져 결국 정권교체를 만들어냈다. 이 과정에서 사회는

---

1) 불교의 대표적 갈등 해결 방법인 원효의 화쟁을 박태원은 '견해의 배타적 다툼에 대한 치유'로 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화쟁을 치유철학으로서 도입하고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갈등 해결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가를 알아보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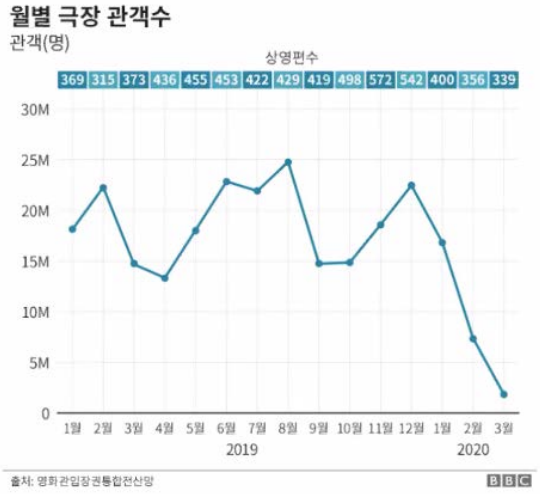
2) 본 연구자는 중앙대학교 사진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AAU에서 사진전공으로 MFA학위를 취득, 1997년부터 경성대 사진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2004년 디지털콘텐츠학부를 신설하여 현재 영상애니메이션학부 영상학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3) 비록 시의성이 강하기는 하나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 양상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원인 중 하나로 제기한다. 2014년 4월 16일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탄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의 어린 학생들과 승객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한국 사회는 유가족과 학부모들에게는 크나 큰 상실감과 무력감을 남기고 말았다.

4) 그리고 박근혜 정권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가리고 은폐함에 분노한 촛불시위는 결국 2017년 3월 10일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박근혜대통령 파면과 정권교체를 가져왔고, 그들을 지지했던 자들에게 '박정희 신화'를 이은 그의 딸 '박근혜'라는 우상의 몰락과 또 다른 상실감을 남겨 2020년 현재까지도 사회적 갈등과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기득권으로 인한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심화되었고, 정치 이념으로 인한 좌파와 우파의 대립, 경제난으로 인한 빈부 갈등 등 충돌과 갈등을 빚으며 적폐청산과 기득권 개혁으로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혐오와 차별을 무기로 한 이러한 전쟁에서는 승자건 패자건 간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된다. 영화 <돌아온다>는 이런 사회 문화적 현상을 배경으로 만들어져[5] 현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할 이유와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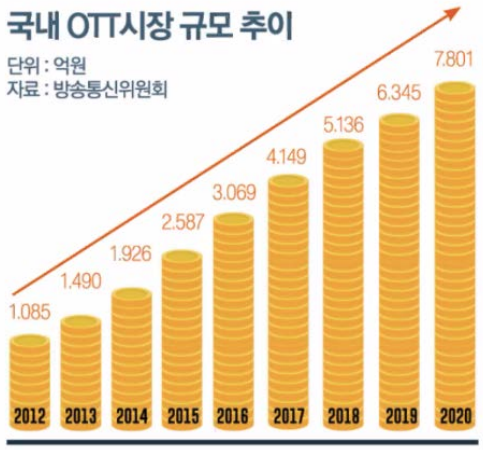
또한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생활환경의 변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낯선 생활방식을 강요받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물리적으로 멀어지고 '언택트', '온택트'라는 신조어마저 등장하는 상황이 되었다. 기존의 대면 관계적 활동은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일정 인원 수 이상의 단체 활동도 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혼자 할 수 있는 활동에 익숙해져가고 있다. 그동안 익숙했던 생활습관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새로운 기준에 따라 생활양식마저 바뀌어야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은 사회적 고립감이 증대돼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으로 이어지는 '코로나 블루'(corona blue)라는 또 다른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국가나 사회는 코로나 감염자의 치료만이 아니라 그로인해 어쩔 수 없이 고립된 상태를 지속하고 감내해야만 하는 구성원들의 정신적인 아픔을 치유하는 방법을 찾아야만 하는 것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상담치료와 예술 공연 등의 치유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런 활동조차도 비대면 방법이 우선시 되고 있다.



<그림 1> 월별 극장 관객수

5) 허철 감독은 해군기지 건설 문제로 갈등을 겪던 제주도 강정마을을 배경으로 한 영화 <미라클 여행기>(2015)를 제작하였는데, 이때 영화에 등장한 배가 '세월호'였다. 세월호 참사 이후 허철 감독이 느꼈던 감정과 고통은 영화 <돌아온다>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다른 사람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어려워진 이 시기에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온택트 활동은 상대적으로 더욱 증가 추세에 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COVID-19로 인하여 극장을 찾아가서 보는 관객의 수는 <그림 1>의 그래프처럼 현격히 줄어들었다. 이는 곧 영화 콘텐츠 소비형태에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 중에서도 넷플릭스(netflix)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OTT시장이 보다 빨리 자리를 잡아 그 시장이 커지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그림 2>



<그림 2> 국내 OTT시장 규모 추이

이는 역사적으로 비디오 기기 등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영화 치료가 본격화된 것[6]을 돌아보게 한다. 즉 영화 콘텐츠 소비가 환경적으로 더 개인적이고 편리하게 바뀌면서 영화 치료의 길이 확대되고 그 활용과 방법에 다시 한 번 도약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영화라는 매체의 특징을 잘 살린다면 '예술치유'[7]의 효과로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영화는 현실세계를 반영하며 언제나 사람 사는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다. 가끔 로봇이나 동물이 주인공이 되어 이야기를 끌고 나가지만 그 행동과 사고, 표현을 보면 이는 곧 그것이 의인화된 표현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영화는 관객에게 몰입감과 동일화 등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며 감상 후 감정적 카타르시스를 불러일으키기 쉬운 예술 표현이라 할 수 있겠다.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는 관객과 영화는 동시대, 비슷한 문화, 공통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한국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우리가 영화를 통해 치유 효과를 얻는 것에는 분명 긍정적 현상이라 할 수 있겠다.

---

6) 심영섭, 『영화치료의 이론과 실제』, p.20, 학지사, 2019.
심영섭에 의하면 영화 치료는 1990년대에 들어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비디오 기기 등의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면서부터라고 한다.

7) '예술치료'는 의사나 전문치료사에 의해 진료와 처방이 내려져 심리치료의 일환으로 행하는 의료행위를 뜻하고, '예술치유'는 본인 스스로 예술 감상이나 체험 등을 통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몸과 마음을 호전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치유의 방법에 대한 접근을 할 것이다.

1-1. 영화의 치유적 활용에 대한 관심 증대

영화는 예술치료의 일환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자가치유'의 방법으로 영화감상을 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치료와 치유의 개념을 정리하고자 한다.

> "치료는 치유를 목적으로 신체에 행해지는 침해 행위를 의미한다. 이에 비교해 치유는 치료를 거쳐 '회복' 혹은 '원상복구'된 상태를 뜻한다. 치유는 치료가 완료되어 회복된 상태를 뜻하는 말이지 치료행위나 과정을 지칭하는 말은 아니다. 의료법과 관련된 법령상의 용어에서도 치료라는 개념만 나온다. (…) 명상이나 마음치료는 법리상 치료 행위가 아니고 치료라는 용어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8]

위 내용을 따르면 '치료'는 의료행위로서 의료기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치료라는 용어는 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예술치료'나 '마음치료' 등의 내용을 언급할 때에만 사용하고, '치유'[9]는 의료인의 도움이나 처치가 없이 스스로를 더 나아지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겠다.

최근 출판된 다수의 영화치유 관련 서적들은 대부분 치유의 방법이나 감상 포인트를 알려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보다 직접적인 치유적 활용은 새로운 트렌드가 된 GV의 활용이다.

영화 <돌아온다>[10]는 2017년 전국의 개봉 극장에서 감독 및 주연배우의 GV가 있었고 관객들은 허철 감독과 주연 김유석 배우를 극장에서 직접 만나 대화의 장을 가졌다. 비록 몬트리올국제영화제에서 금상을 수상한 영화이기는 하나 블록버스터급의 이슈나 슈퍼스타 급의 배우가 출연하지 않는 저예산 영화였기에 관계자나 지인이 관객의 주를 이루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GV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현장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질문자로 나선 관객이 전문가나 마니아가 아니었으며, 그 관객의 연령대도 젊지 않은 부모세대였고 더 관심을 끈 것은 그의 발언이었다.

> "눈물이 나왔다. 영화에서 표현된 가족 간의 갈등과 대립이 남의 일 같지 않았다."

---

8) 박재현, 「불교철학의 관점에서 본 명상과 마음치료」, p.104, 『동양철학』 제49집, 한국동양철학회, 2018.

9) 박재현에 의하면 법령상 '치유'라는 용어는 행정규칙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기준」과 「치유의 숲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등 2가지 사례 밖에 없다고 한다.

10) 허철 감독의 영화 <돌아온다>는 2017년 제41회 몬트리올국제영화제(Montreal World Film Festival)에서 한국영화 처음으로 '첫 영화 경쟁'부문(1st Film Competition)에서 금상(Golden Zenith)을 수상하였다.

보통 GV에서는 감독이나 배우가 무대로 올라 영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관객과의 토론과 감상을 나누고 있다. 그러나 GV가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한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경우 별 질문 없이 사회자의 멘트로 채워지기도 하는 이런 GV현장에서 느닷없이 일반인 관객의 개인적인 감상으로 분위기가 숙연해지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마치 우리가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그룹 심리치료의 한 장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시네마테라피(cinematherapy)[11] 형태의 GV는 앞선 2015년 영화 <웰컴, 삼바> 개봉 시 CGV 아트하우스 압구정에서 심리 상담가 김동철 원장과 함께 하는 시네마톡의 형태로 이루어진 바 있고 KU시네마테크에서 애니메이션 <추억의 마니>를 본 후 건국대학교병원 정신과 하지현 교수와 정신분석학적 접근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치유하는 행사 성격의 GV 등이 있었다.

영화 <돌아온다>의 치유에 대한 언급은 『공연과 리뷰』(2017.겨울) 잡지의 「영화 논단」에서 다시 볼 수 있는데, 영화비평가 김시무는 이 글에서 영화 <돌아온다>를 "화해와 치유의 영화"라고 말하고 있다.[12] 영화 <돌아온다>에서 이야기하는 각 출연자들의 에피소드와 그 에피소드 속 갈등과 반목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화해와 치유를 김시무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이 영화는 외관상 평온해 보이는 숲속 휴양처 주점을 무대로 하고 있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사연은 하나같이 슬프고도 심지어 절망적이기까지 하다. 그런 텅 빈 주점에 주영이 천사처럼 나타나서 아예 주점 자체를 화해와 치유로 가득 찬 장소로 만들어나간다. 그리하여 이 영화는 잔잔한 감동과 깊은 여운을 남긴다. <돌아온다>는 실로 오랜만에 맛보는 휴식 같은 영화다."[13]

예술이 치료의 역할을 한지는 이미 여러 해이지만 그건 전통적인 음악, 미술 같은 분야에서 치료의 한 분야를 맡아오고 있었다. 그러나 종합예술인 영화는 이미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알게 모르게 치료의 역할을 맡아오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그 스토리에 감정이입이 되어 어떨 때는 가슴이 후련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눈물을 펑펑 쏟기도 하는 그런 경험이 다 있을 것이다. 이런 감정의 해소, 일상에서의 잠시 망각 등이 그 동안 알게 모르게 관객들에게 심리치료의 역할을 하였다고 본다.

---

11) 시네마테라피는 국내에서 영화치료의 뜻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나 여기에서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행한 행사이기 때문에 치료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시네마테라피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
12) 김시무, 『공연과 리뷰』 99, p.19, 현대미학사, 2017.
13) 위의 책, p.21.

영화가 관객에게 주는 감정의 카타르시스(catharsis)는 곧 관객의 막혀있던 현실에서의 갈등과 대립 등의 문제를 대신 해소해 주는 결과를 만들며, 이는 갈등의 해소를 통한 치유의 기능도 함이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영화는 사람 사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동물이 주인공이거나 만화 캐릭터가 주인공인 영화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 의인화된 캐릭터로 하여금 우리 사람 사는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영화의 치유적인 역할과 그 효과 등에 대한 궁금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1-2. 영화는 사람 사는 이야기

영화는 언어를 바탕으로 하는 스토리텔링과 움직이는 사진인 영상을 바탕으로 사람 사는 이야기를 재현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스토리텔링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자 경험을 공유하며 해석하고, 삶의 지혜를 배우고 지식을 교환하는 수단이었다. 그 옛날 할머니에게 듣던 구전동화가 그랬듯이 스토리텔링은 상대방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을 재미있고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런 재미와 흥미로운 비유 등을 통하여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스토리텔링인 설화는 알게 모르게 사람들에게 치유의 작용을 하고 있었다.

> "30대 초반의 자동차 세일즈맨이 무턱대고 학교 선배를 찾아가서 할당된 자동차를 팔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린다. 학교 선배는 사실 자동차를 살 만큼 넉넉한 형편은 아니다. 안된다고 말하겠다는 굳은 결심도 후배의 애처로운 눈동자 앞에 무용지물이다. 계약서를 쓰면서도 아내의 화난 얼굴이 아른거린다. 집으로 돌아간 그는 아내를 위해 자동차를 샀다고 둘러댄다. 아내는 꼭 일주일 만에 자동차 사고로 싸늘한 시신이 되어 그에게 돌아오고, 후배는 죄책감에 시달린다. 후배는 형수의 장례식에 참석할 면목이 없어서 병원 근처만 맴돌다 화장터로 향한다. 그리고 한 줌의 재가 된 형수를 들고는 어디론가 사라진다. 얼마 후, 후배는 핸들 하나를 들고 선배 앞에 나타난다. 형수의 뼛가루를 넣어 특수 제작한 우드 핸들이다. 형수를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차를 운전하라는 후배의 배려였다. 두 사람은 그 핸들을 붙잡고 눈물을 흘린다."[14]

위 이야기는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의 에피소드가 아닌 100% 실화라고 한다. 짧게 묘사된 이 이야기에는 사람이 견디기 힘든 불행과 반전 그리고 인간애가 모두 녹아있다. 이 이야기를 취재한 만화가 박인권은 이야기의 당사자인 세일즈맨으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으며 자책감으로 엉엉 우는 그 모습에 마음이 뭉클해졌다고 한다. 장상용의 저서 『전방위 문회기획자를 위한 스토리텔링 쓰기』에서 밝힌 위 이야기는 결국 박인권의 만화 에피소드로 발전하게 된다. 이렇듯 인간의 감정을 나타내

14) 장상용, 『전방위 문화기획자를 위한 스토리텔링 쓰기』, p.5, 해냄, 2013.

는 스토리텔링은 어떤 논리적인 설득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강력하여 소설이나 만화뿐만 아니라 영화, 드라마, 공연 등 여러 가지 매체로 확대, 재생산된다.

> "영화는 엄밀히 말해서 문자에서 영상이라는 재현 방식이 바뀌었을 뿐 스토리텔링을 본질로 한다는 점에서 볼 때 문학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체로 시간과 공간에서 자유롭고 또한 문자가 주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문학이 상상력의 범위와 폭에 있어서 더욱 크지만, 영화는 문학, 음악, 미술, 연극, 뮤지컬, 발레와 춤 등 여러 예술 장르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 예술이며 종합예술이다. 영상기술에 의지해서 생산되는 영화의 특수효과들 혹은 CGI(Computer-Generated Imagery)는 스토리텔링의 풍부함을 높이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스토리이다."[15]

이와 같이 영화는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시청각적으로 표현하는 종합예술로써, 카메라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이미지를 이어 붙여 움직이는 동영상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소리와 화면효과 등을 삽입하여 영화의 화면을 구성하게 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실을 매개로 촬영해내는 것으로 물리적 실재사물을 촬영한다는 것뿐 아니라 그 촬영의 대상이 가지는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의 감정을 건드리는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한 영화는 보는 관객의 공감대를 어떻게 끌어내는가가 중요하며, 그 공감대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감독과 관객이 시공간적, 문화적 유대감을 가지고 상호 교감이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다.

> "영화의 의미를 묻는 작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점은 영화의 세계가 곧 인간의 세계라는 사실이다. 영화는 인간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비록 신화나 애니메이션이라 하더라도 영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인간이 있다. 이런 점에서 영화는 모두 영상적 인간학이다. 장르의 차이와 주제의 차이 그리고 스토리의 차이를 통해서 영화는 인간이 처한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문제들을 제시하고 또 해결을 시도한다."[16]

영화에서 다루는 모든 이야기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배우는 연기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인간 캐릭터를 보여주고 카메라와 특수효과 등의 영상미학을 통해서는 인간이 느끼는 감각의 극대화와 실감 정도를 높이며 사운드와 뮤직을 통해서는 인간의 감정선을 건드린다. 영화의 감독이 관객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비단 스토리를 통한 감독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감정의 공유와 영화에서 보여주는 사건에 대한 문제의식에 대한 공감마저도 요구되는 것이다.

---

15) 최성수, 『영화를 통한 성찰과 인식 그리고 + α 』, p.17, 이담북스, 2011.
16) 위의 책, p.20.

"소설 읽기와 영화 보기 역시 제게는 텍스트만 바뀌었을 뿐 하나의 텍스트 속에서 의미 찾기의 작업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경전을 앞에 놓고 하는 철학하기와 동일한 성격을 갖는 것입니다. (…) 불교나 인도철학에서 하는 이야기 자체가 소설과 영화가 말하는 세계, 즉 "인간이란 무엇이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 상황으로부터 나온 이야기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소설이나 영화가 재구성한 바로 그 인간 삶의 현실을 고뇌하면서 나름의 해답을 제시한 것이 곧 불교이며 [인도] 철학입니다."[17]

이렇듯 영화를 본다는 것은 인간사 현실세계의 반영이며 누군가의 철학을 알 수 있으며 그로인한 지혜와 희로애락의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된다. 본 연구는 영화 보기를 통한 치유의 방법을 찾아나가는 길이며 그 방법으로는 화쟁철학을 접목시키고자 한다.

1-3. 원효의 화쟁과 치유철학

불교에서 치유의 방법으로는 전통적으로는 불교설화가 있고 최근에는 '명상'과 '마음치료'를 떠올린다. 그리고 원효의 화쟁은 대체로 갈등 해결 방법으로의 기능을 생각하기 쉽다.

"설화가 단순한 하나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경시되고 있는 윤리도덕과 메마른 정서에 윤활유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치유의 요소로 적용할 수 있다. 불교설화는 민중교화의 방편만이 아니라 삶의 시련을 극복하고 희망과 용기를 주는 내용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하여 재미있고 유익하게 만든 이야기다."[18]

하지만 불교설화는 종교적 색채가 너무 강하여 신비주의에 치우치기 쉽고, 명상이나 마음치료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에 대한 개념 정리가 불분명하여 과연 불교의 수행방법이나 가르침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다. 박재현에 의하면 "명상과 불교가 만나는 접점에는 힐링(healing)이 있다"고 한다.[19]

"명상이나 마음치료와 관련된 학계의 연구와 논의가 2000년 이후로 급속한 성장세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학술적 혹은 과학적 성격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종교와 심리상담 관련 학술분야에서 이미 폭넓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실업이나 대형사건 사고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심리치료와 의학적 분야에서 대안적 치료방법으로 명상이나 마음치료가 주목을 받는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20]

---

17) 김호성, 『불교, 소설과 영화를 말하다-꿈과 현실의 문턱』, p.8, 정우서적, 2012.
18) 백원기, 『불교설화와 마음치유』, p.5, 도서출판 동인, 2017.
19) 박재현, 앞의 논문, p.98.

불교가 직접적으로 치료는 할 수 없으며 치유의 방법으로 마음치료나 명상으로 치유의 기능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진정한 불교적 치유인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비과학적이고 논리적이지 못한 치유를 불교에서 풀어낸 사례가 있다. 바로 원효의 화쟁논법을 쟁론의 치유 방법으로 해석한 박태원이다.[21] 박태원은 인간은 언어로 인하여 갈등과 다툼이 생기며 이것을 치유하는 길은 언어의 치유법인 원효의 화쟁이 적합하다는 주장을 편다.

> "인간은 다툰다. 그 다툼은 '언어적'이다. '인간의 다툼은 언어적'이라는 말은 다투는 수단이 언어에 국한된다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곧 인간 존재라고 할 정도로 언어와 인간 존재의 모든 면모가 마치 한 몸처럼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어와 인간 사유의 선후 발생관계가 어떤 것이었던 간에, 현실의 인간은 언어 없는 순수 사유가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언어적 존재'가 되었다. 자신과 타인, 세계에 대한 인식과 경험, 그리고 관계 맺기는 깊숙한 수준에서부터 이미 언어 의존적이다. 그런 점에서 인간의 모든 다툼의 행위는 언어적이다. 인간의 다툼은, 언어에 의존하여 형성/유지/발전하는 관점과 신념, 기호와 욕구들의 충돌이기 때문이다."[22]

박태원은 언어로 다투는 것을 쟁론(諍論)으로 보고 거기서 드러나는 '다툼을 해소 또는 화해시키려는 의지와 실천을 담은 말이 화쟁(和諍)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화쟁은 원효 사상의 개성이며 중심축이라 할 수 있다. 화쟁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을 살펴보면 신라시대의 불교적 혼란과 잦은 전쟁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불안 등을 떠올릴 수 있다. 위대한 선구자인 붓다의 가르침을 두고 대승불교와 소승불교는 서로 다른 교학과 설법을 펼치며 배타적 충돌을 하고 있던 시대적 혼란에서 원효는 오직 한 가지 붓다의 가르침만을 위하여 각기 다른 저들의 언어를 분석하여 그들의 말이 서로 다르지 않으며 결국은 하나의 가르침을 다르게 말하고 있다고 풀어내는 화쟁으로 견해의 대립을 해소하며 올바른 가르침으로 인하여 한걸음 더 나아가는 통섭의 경지까지 보여주었다.

원효의 화쟁은 분명 불교의 경전적 차이에서 오는 혼란과 교학적 분열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종교를 떠나 '인간사 모든 쟁론의 보편적 구조와 그 해법'에 대한 통찰까지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에서 '치유로서 원효 철학'을 논하는 것은 불교의 종교적 교리나 처방이 아니라 붓다의 가르침을 계승한 원효의 철학적 해석을 치유학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

20) 박재현, 앞의 논문, p.103.
21) 박태원, 「원효의 화쟁 논법과 쟁론 치유」, 『불교학연구』 Vol.35 No., 불교학연구회, 2013.
22) 박태원, 『원효, 하나로 만나는 길을 열다』, p.171, 한길사, 2012.

본 연구자는 인간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대립과 충돌, 갈등을 언어로 인한 것이라는 박태원의 해석에 주목하며 그가 화쟁을 언어적 대립, 견해의 충돌 상황을 해소, 화해시키는 치유의 과정이라 표현한 것을 영화 치료에 도입해 치료에서 더 나아간 치유의 가능성을 고찰해 보고자한다.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영화 치유에 있어서 원효의 화쟁철학을 도입하는 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 오는지 알아보고, 영화감상에 있어서 화쟁을 도입하여 치유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에 대하여 영화 <돌아온다>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기존의 예술치료의 일환이었던 영화치료를 치유의 단계로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안을 하는 것이다.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화 <돌아온다>의 의미와 가치에 대하여 알아본다.
둘째, 영화 치유의 개념과 방법을 알아본다.
셋째, 영화 <돌아온다>에 나타난 불교의 치유 양상을 살펴보고
넷째, 치유철학으로서의 화쟁에 대하여 알아본다.
끝으로, 영화 <돌아온다>에서 만나는 원효의 치유철학을 분석하여 본다.

2-1. 영화 <돌아온다>와 영화 치유

영화 <돌아온다>는 몬트리올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영화 최초로 경쟁부문 금상을 수상하면서 알려진 영화라 할 수 있다. 이 영화는 흥행에서는 언급할 수 없는 정도의 미미한 결과를 내었지만 한국 영화에서 '힐링 영화'로서는 꽤 의미 있는 족적을 남겼다. 화려한 출연진도 없으며 저예산 영화로 만들어진 영화로 국제영화제에서 금상을 수상하였다. 영화는 매체 특성상 언어적 공감대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데, 낯선 언어적 환경임에도 캐나다의 몬트리올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한 것이다. 영화 <돌아온다>의 감독 허철은 이 영화에서 지난 몇 년간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던 상실감과 세대 간 대립, 소통이 되지 않았던 어두운 시대에 대한 모든 감정[23]을 영화에 녹여 내었다.

23) 앞의 각주 4)에 밝혔듯이 허철 감독은 이 시대 갈등과 대립의 현장을 직접 겪었으며 광화문에서 촛불시위에도 앞장서 참여하였다. 지난 정권 영화인 블랙리스트에 올라 영화제작에 있어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받았던 그가 소통의 중요성과 누군가를 잃는 슬픔에 대하여 표현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허철 감독은 자신의 영화 <돌아온다>를 통해 관객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속마음을 억누르기보다는 솔직하게 소통하게 되었으면”이라는 치유의 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솔직하게 소통’은 불교에서의 ‘드러내기’를 말하는 것으로 영화를 본 관객들의 치유적 효과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출발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드러내기는 화쟁의 선결조건으로서 은폐되거나 억압된 생각이나 감정을 용기 있게 드러내는데서 부터 ‘차이를 발생시킨 조건들을 성찰하는 화쟁의 소통’이 시작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영화가 국제무대에서 가지는 가치와 위상에 대하여 살펴보고 국제영화제에서의 수상원인을 분석하여 영화 <돌아온다>의 의미와 가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영화 <돌아온다>의 분석을 위하여 일반적인 영화감상 분석만이 아니라 보다 객관적이고 세밀한 접근을 위하여 시나리오 및 콘티의 분석을 더한다. 거기에 미흡하거나 의문이 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에게 직접 인터뷰를 요청하여 그 답을 참조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하는 영화 치유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기존 예술치료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영화 치료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앞서 이야기했듯이 치료와 치유의 차이를 분명히 하고, 영화 치료의 개념과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영화 치유의 방법으로는 원효의 치유철학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원효 치유철학의 개념 및 방법을 고찰한다.

영화 <돌아온다>는 종교적 색채를 거의 드러내지 않는다. 그저 있다면 승복을 입은 술 마시고 노래하는 땡추가 등장할 뿐이고 사건의 전개나 해결에는 별다른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 본 연구자는 바로 그 점에서 허철 감독의 문제 해결 능력을 보았고, 영화의 배경이 된 울주군 일대에서 강한 불교적 흔적이 눈에 보였다. 커다란 사건이나 특별한 계기로 인한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며, 종교적 지도자나 저명한 누군가의 도움이 없는 문제 해결을 보며 화쟁을 떠올리는 것은 아마도 자연스러운 해석일 것이다.

특히 한국의 불교, 그것도 유명하거나 존경스러운 고승을 등장시키는 것이 아닌 술 마시며 기타 치는 땡추를 등장시켜 어쩌면 승려 본인의 고통과 갈등이 더 크면서도 타인의 갈등 해소에 도움을 주는 모습은 소성거사를 자처하며 무애행을 펼친 원효의 모습을 그리게 하고, 비록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갈등을 극복하고 슬픔을 치유하는 불교적 문제해결 방식이 이 영화를 보는 이에게 치유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과연 불교는 어떻게 갈등을 해소하고 그 아픔을 치유하는가? 사람 사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를 통해 불교의 대표적인 갈등 해소 방법인 화쟁에 대해 알

아보고 원효의 화쟁이 오늘날 사람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치유적 기능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2-2. 영화 치유와 원효 치유철학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영화는 내용과 관람자의 거리가 확보된다는 점에서 '붙들지 않고 보기' '간히지 않고 관계 맺기'의 능력을 일깨워 간수해 가는 방법인 '차이들을 움켜쥐지 않고 알아차리기'(六根守護의 正知)와 상통하는 구조를 지닌다. 이 구조적 유사성을 활용하면 영화는 '차이들을 발생시킨 조건들에 관한 성찰과 이해'를 일깨우고 향상시키는 화쟁적 성찰능력의 효과적인 매개가 될 수 있다. 기존의 영화치료가 '억압된 정서의 노출이나 공감으로 인한 치료 효과'를 추구하면서 개인의 정서적 치료에 집중하는데 비해, 영화 치유는 개인치유와 차이들의 관계소통을 포괄할 수 있는 '화쟁적 성찰능력'을 영화를 통해 일깨우고 공감하여 내면화시키는 것이다. 개인 실존과 사회관계 모두에 유효한 '화쟁적 성찰의 개안과 성숙'을 영화와 결합시키는 것이 영화치유의 목표이고, 이런 목표를 성취하는 방법과 이론의 학적(學的)체계가 '영화 치유학'이다.

영화를 통한 정서적 치료효과는 주로 노출과 공감을 통해 억압된 정서의 무게를 줄이는 '정서적 완화효과'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정서를 비롯하여 견해나 신념, 기억. 행동으로 인한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는 더욱 근본적인 힘은 '상처와 고통의 내부 및 외부 원인들'을 '붙들지 않고 이해하기' '간히지 않고 이해하기' '매이지 않고 만나기'에서 생긴다. 이런 유형의 힘이라야 개인과 사회의 보편적 치유력이 될 수 있다. 이 근원적 힘을 계발하고 실천하는 것이 흔히 '마음챙김'이라 번역하는 육근수호의 정지이고, 이 힘을 '차이현상에 대한 조건인과 계열의 구분'을 통해 생겨나게 하려는 것이 원효의 화쟁철학이다. 영화 치유는 이러한 '붙들지 않고 만나는 힘' '간히지 않고 성찰하는 힘' '매이지 않고 보는 힘'을 영화 보기를 통해 일깨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런 점에서 영화 치유가 확보하려는 것은 정서적 치료효과를 넘어서는 성찰적・인지적 치유력의 계발효과이다. 원효의 화쟁철학과 영화치유의 접속지대도 여기에 있다.

Ⅱ. 영화 <돌아온다>의 의미와 가치

1. 한국영화의 세계적 도약

2017년 캐나다 퀘벡주의 몬트리올시에서 열린 제41회 몬트리올국제영화제(Montreal World Film Festival)에서 허철 감독의 영화 <돌아온다>가 한국영화 처음으로 경쟁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2019년 영화 <기생충>이 프랑스 칸 영화제(Cannes Film Festival)에서 공식 경쟁부문 초청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였고 2020년 제92회 아카데미상에서 4관왕을 차지하는 등 한국영화는 세계를 놀라게 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그리고 지난 3월 1일 폐막한 제70회 베를린국제영화제(Berlin International Film Festival)에서 홍상수 감독의 <도망친 여자>가 감독상을 수상했다.

이렇듯 최근의 수상소식만 보더라도 한국영화 감독의 작품성은 이미 여러 국제영화제에서 인정받고 있다. 그리고 한국영화 배우 역시 강수연 배우가 1987년 제44회 베니스국제영화제(Venice International Film Festival)에서 임권택 감독의 영화 <씨받이>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였고, 모스크바국제영화제(Moscow International Film Festival)에서는 1985년 최은희 배우가 신상옥 감독의 영화 <소금>으로, 1989년 강수연 배우가 임권택 감독의 영화 <아제아제 바라아제>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였다. 이후로도 제12회 몬트리올국제영화제에서 신혜수 배우가 임권택 감독의 영화 <아다다>로 여우주연상, 문소리 배우가 제59회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이창동 감독의 영화 <오아시스>로 신인배우상을 수상하였고, 제60회 칸영화제에서 전도연 배우가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밀양>으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였으며 2017년 제67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는 김민희 배우가 홍상수 감독의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국제영화제에서 수상은 아니지만 한국 영화배우들은 박중훈를 필두로 하여 최근에는 배두나, 마동석에 이르기까지 다음의 [표 1] 한국 영화배우 할리우드 영화 진출현황과 같이 다양한 장르의 영화에서 주, 조연을 망라하여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켄 정(정강조), 산드라 오(오미주), 존 조(조요한), 대니얼 대 킴(김대현), 스티븐 연(연상엽) 등의 한국계 미국 배우들이 할리우드 메이저 영화에 출연하여 아시아 배우들 중 단연코 인기 있는 배우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적 OTT인 넷플릭스(Netflix)에서도 한국영화, 한국드라마는 인기 있는 콘텐츠인데 지난 9월11일 드디어 조일형 감독의 영화 <살아있다>가 넷플릭스 전 세계 영

24) 홍콩자본 영화로 '할리우드 제작 영화'냐 아니면 '할리우드 진출 영화'냐에 대한 논란 있었다.

배우	출연작	출연 / 배역	특징
박중훈	<아메리칸 드래곤>(1997)	마이클 빈과 공동 주연	할리우드 진출 한국 첫 영화배우
	<찰리의 진실>(2002)	조연 이일상 역	마크 월버그 주연 작
장동건	<워리어스 웨이>(2010)	주연	장동건 배우와 이승무 감독의 할리우드 동시 진출작
전지현	<블러드>(2009)[24]	주연	
비	<스피드 레이서>(2008)	조연 태조 토고칸 역	감독 워쇼스키 자매
	<닌자 어쌔신>(2009)	주연 라이조 역	
	<더 프린스>(2014)	조연 마크 역	브루스 윌리스 주연
이병헌	<지.아이.조1>(2009)	조연 스톰쉐도우 역	
	<지.아이.조2>(2013)	주연 스톰쉐도우 역	
	<레드: 더 레전드>(2013)	주연 한 역	
	<매그니피센트 7>(2016)	주연 빌리 락스 역	덴젤 워싱턴, 크리스 프랫, 에단 호크 등과 공동 주연
배두나	클라우드 아틀라스>(2012)	주연 틸다 역	감독 워쇼스키 자매
	<센스8 시즌1~3>(2015~2018)	선 역	기획 및 감독 워쇼스키 자매 넷플릭스 드라마
보아	<메이크 유어 무브>(2014)	주연 아야 역	보아의 영화배우 데뷔작
최민식	<루시>(2014)	주연 미스터 장 역	감독 뤽 베송
수현	<마르코 폴로 시즌 1,2>(2014~2016)	쿠툴룬 역	넷플릭스 드라마 미국명 Claudia Kim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2015)	닥터 헬렌 조 역	
	< 다크타워: 희망의 탑>(2017)	아라 역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왈드의 범죄>(2018)	내기니 역	
박시연	<제7기사단>(2015)	해나 역	안성기 배우 출연(어거스트 역)
마동석	<이터널스>(2020)	길가메시 역	

[표 1] 한국 영화배우 할리우드 영화 진출현황

화 순위 1위에 오르기도 했다.[25]

해외에서의 한국영화의 활약과 더불어 국내에서 영화문화 활동은 이미 한국을 넘어 국제적으로도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개최하는 국제영화제는 부산국제영화제 (P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Puchon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 전주국제영화제(Jeonju International

25) 강영운, 「넷플릭스 세계 영화순위, 한국 '#살아있다' 1위」, 매일경제, 2020.09.11.

Film Festival), 광주국제영화제(Gwang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제천국제음악영화제(Jecheon International Music & Film Festival),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CHUNGMUR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N SEOUL),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DMZ Korean International Documentary Festival) 등이 있으며 서울국제여성영화제 (International Women's Film Festival in Seoul) 등의 10여개 이상의 독립/단편 영화제가 전국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2. GV, 새로운 영화 접근법

COVID-19가 전 세계에 유행하여 지역적, 문화적 고립이 심각한 상황에도 2020년 10월 제25회 개최를 앞둔 부산국제영화제 및 전국의 여러 영화제가 다양한 형태로 전 세계의 영화 팬들을 만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 이제 한국영화는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는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한국에서의 영화라는 콘텐츠는 관객이 극장에서 영화를 감상하고 그에 대한 감독이나 주인공과의 직접적 만남인 무대 인사나 GV가 낯설지 않은 상황으로 관객과의 소통 또한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영화제 등에서 행사용 이벤트의 일환으로 팬들과 감독, 주연배우들과의 소통의 한 장이었던 GV는 이제 새로운 영화를 소개하고 홍보하는 차원으로까지 발전하여 이제 관객들은 곧잘 감독이나 주연배우들과의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지난 2월 시네마테크에선 지난해 나온 한국 영화 10편을 선정해 상영하는 자리가 있었다. 그중 한 편이 장률 감독의 <경주>였는데, 장률 감독과 정성일 평론가는 이날 영화 상영 이후 관객과의 대화를 150분이나 진행했다. 러닝타임 2시간 30분짜리 영화에 GV 역시 2시간 30분이나 이어진 셈이다. 정성일 평론가는 2010년 자신이 직접 연출한 영화 <카페 느와르> 개봉 당시 GV를 새벽까지 이어했던 적도 있다. 그만큼 영화에 대해 할 얘기는 많고, 지금까지 그 자리는 충분치 않았다는 거다. 지난 2월 대학로에서 <와일드>를 봤다. 셰릴 스트라이드의 삶을 그린 리즈 위더스푼 주연의 영화다. 이 영화는 큐레이팅 상영작이었는데,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 뒤 큐레이터가 나와 영화에 대한 주석을 달았다. 제작 뒷이야기부터 실존 인물, 그리고 배우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소 '뻘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몇몇 관객은 문을 나서기 전 큐레이터에게 따로 질문을 하기도 했다. 물론 볼멘소리도 많다. GV를 할 때 실제 호응이 좋은 건 이동진, 허지웅 등 인기 모더레이터, 또는 배우가 참석하는 자리뿐이며, 대부분의 경우 별 질문 없이 사회자의 멘트로 채워진다는 후기가 종종 올라온다. 영화에 대해 토론하고 감상을 나누는 자리라기보단 SNS을 통한 입소문 마케팅을 위한 수단이란 비판 역시 있다."[26)]

영화가 끝나면서 스크린의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 뒤 극장에서 벌어지는 대화의 장은 관객들이 영화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서로의 감상을 공유하는 등 다양한 내용으로 채워진다. 최근에는 러셀 크로우, 톰 크루즈 등 유명 할리우드 배우들도 한국의 극장에서 직접 만나며 대화를 하기도 하였다.

> "시리즈 사상 최강 라인업의 내한 이벤트를 예정하고 있는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 측은 레드카펫 이외에도 GV로 한국 관객들에게 특별한 팬서비스를 실천한다. 오는 17일 서울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개봉 전 시사회에 앞서 백은하 배우 연구소 소장과 배우들, 크리스토퍼 맥쿼리 감독의 직격 인터뷰 후 영화 상영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27]

<그림 3> 영화<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 GV장면

위 <그림 3>은 2015년 7월 31일 수퍼플렉스G관에서 열린 GV장면으로 영화 전문 월간지 맥스무비의 박혜은 편집장과 톰 크루즈, 크리스토퍼 맥쿼리 감독이 함께 해 제작자이자 주연 배우인 톰 크루즈가 말하는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면면부터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 만의 관람 포인트까지, 다채로운 이야기를 나누는 구성으로 이루어졌다.

GV는 제작자에게는 마케팅의 일환일수도 있지만 관객에게는 일방적 감상의 장을 넘어서는 감독, 주연배우들과의 소통의 장이자 보다 색다른 문화체험의 기회가 되는 등 여러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화를 보는 것 이상의 새로운 영화 체험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

26) 정재혁, 「대화를 위한 영화」, 『보그』, 2014.04.10.
27) 장진리, 「[공식입장] '미션 임파서블6' 톰 크루즈, GV로 韓 관객 만난다 '프로 내한러'」, OSEN, 2018.07.12.

"우선 영화 자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평론가 등이 상세한 해설을 곁들이는 GV가 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며 영화 팬들의 선호도도 높다. 다양성 영화 상영관 CGV아트하우스가 운영하는 '이동진의 라이브톡'이 대표적이다. (…) 미술 등 예술 분야를 다룬 영화도 다양한 GV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영화는 좋아하지만 그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관객들을 위한 배려인 셈이다. 19세기 영국 풍경화의 대가 윌리엄 터너의 마지막 25년을 조명한 영화 〈미스터 터너〉는 지난달 22일 개봉하며 영화 관람 전 터너의 그림에 대해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두 차례 운영했다. (…) 영화의 콘셉트에 맞춰 독특한 GV를 여는 경우도 최근 부쩍 많아졌다. '번 아웃 증후군'에 시달리는 여성과 세네갈 출신의 흑인 난민의 우정과 사랑을 그린 〈웰컴, 삼바〉는 개봉을 앞둔 10일 심리상담가 김동철 원장과 함께 '시네마테라피' GV를 연다."[28]

위와 같이 관객에게 낯선 팀 버튼 감독의 영화 <빅 아이즈>와 같은 예술분야 영화에 송한나 큐레이터의 시대적 미술사조와 뒷이야기를 들려주는 자리, 마이클 베이 감독의 타임슬립 영화 <백 투 더 비기닝>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한 물리학자와의 GV 시사회는 관객에게 이론적인 설명과 과학적 해석까지 해주었으며, 아직 질병으로 분류되지 않아 일반인들의 의료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번 아웃 증후군(Burn-out Syndrome)'을 다룬 영화 <웰컴, 삼바>에서 심리상담가를 내세운 '시네마테라피' 행사를 제공하는 등 GV는 실로 다양한 형태로 관객에게 다가가고 있다.

"영화에 대한 관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작하였던 GV는 이제 그 지평을 넓혀 분야를 넘나드는 새로운 통섭의 장으로 변화하고 있다."[29]

영화를 감상하는데 있어 영화 이후에 이루어지는 GV는 영화 감상의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서며 새로운 정보를 얻거나 영화에서 다루는 시대적 정신을 이해하며 미래의 가치관을 미리 엿보는 것 등의 공감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

28) 김경미, 「난해한 예술영화 이해가 필요해…극장가 GV 프로그램 인기」, 서울경제, 2015.02.10.
29) 유선희, 「지브이'의 변신은 무죄」, 한겨레, 2015.05.27.

3. 몬트리올국제영화제에서 수상원인 분석

몬트리올국제영화제는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에서 매년 8월 하순부터 9월 초까지 열리는 국제영화제작자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Film Producers Associations, FIAPF)[30] 공인 국제영화제이다. 2020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국제영화제작자연맹이 공인하는 경쟁부문 국제영화제는 칸, 베니스, 베를린, 몬트리올 등을 포함한 15개의 국제영화제 밖에 없다.

F I A P F
INTERNATIONAL FEDERATION OF FILM PRODUCERS ASSOCIATIONS

Competitive Feature Film Festivals

2020 CALENDAR OF FIAPF ACCREDITED* FESTIVALS

◇◆ Berlin	20 February	1 March
◇◆ Moscow	22 April	29 April
◇◆ Cannes	12 May	23 May
◇◆ Shanghai	13 June	22 June
◇◆ Karlovy Vary	3 July	11 July
◇◆ Locarno	5 August	15 August
◇◆ Montreal	**	
◇◆ Venice	2 September	12 September
San Sebastian	18 September	26 September
◇◆ Warsaw	9 October	18 October
Tokyo	31 October	9 November
◇◆ Tallinn	13 November	29 November
Cairo	19 November	28 November
India (Goa)	20 November	28 November
Mar Del Plata	21 November	29 November

◇◆ Competitive section for short films
◆◆ Non-competitive section for short films
** World Film Festival (Montreal) : 2020's edition adjourned

<그림 4> 국제영화제작자연맹 공인 경쟁부문 국제영화제

문화적 다양성과 국가 간 이해증진을 목표로 1977년 제1회 영화제 개최를 시작으로 하여 현재 4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몬트리올국제영화제는 비경쟁부문 영화제인 토론토국제영화제와 더불어 북미 최대 규모의 영화제이다.

30) <그림 2>의 표는 국제제작자연맹 홈페이지에서 국제제작자연맹이 공인한 국제영화제 내역을 캡처한 것이다. http://www.fiapf.org/intfilmfestivals_sites.asp

	영화제목	감독	수상 / 참가 내역	
1983	<불의 딸>	임권택	한국 영화 최초 참가	초청
1986	<뽕>	이두용		초청
1987	<안개기둥>	박철수		초청
1988	<업>	이두용		초청
	<아다다>	임권택	**여우주연상 - 신혜수**	초청
1990	<우묵배미의 사랑>	장선우		초청
	<수탉>	신승수		초청
1991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김유진		초청
	<그들도 우리처럼>	박광수		초청
	<은마는 오지 않는다>	장길수	**여우주연상 - 이혜숙** **각본상 - 장길수**	초청
			감독 김수용	심사위원
1992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박종원	**최우수제작자상 - 도동환**	초청
1995	<만무방>	엄종선		초청
1996	<학생부군신위>	박철수	**예술공헌상**	초청
			배우 윤정희	심사위원
1998	<아름다운 시절>	이광모	한국영화특별전(Special Focus on Korea) 9편 상영[31]	초청
	<강원도의 힘>	홍상수		
2001	<친구>	곽경택	경쟁부문	초청
	<비밀>	박기형	비경쟁부문	초청
	<스물넷>	임종재	New Trend 부문	
2003	<초승달과 밤배>	장길수	Competition of Continents 부문	초청
2007			배우 강수연	심사위원
	<여름이 가기 전에>	성지혜	1st Film Competition 부문	초청
	<포도나무를 베어라>	민병훈	Focus on World Cinema 부문	초청
2013	<지슬> 외	오멸 등	한국영화특별전(장편9편, 단편9편)	초청
2015	<돼지 같은 여자>	장문일	World Greats 부문 / 3번째 참가[32]	초청
	<섬, 사라진 사람들>	이지승	Focus on World Cinema 부문	초청
	<우리의 마지막 여름>	양찬석	Focus on World Cinema 부문	초청
2017	<야경>	오인천	Focus on World Cinema 부문	초청
	<돌아온다>	허철	**1st Film Competition 부문 금상[33]**	초청

[표 2] 몬트리올국제영화제 한국영화 참가 및 수상내역표

전 세계 모든 영화에 문호를 개방해 80여 개국에서 250여 편의 다양한 영화가 참여하고 있으며, 세계 영화 경쟁부문과 신인 감독들의 첫 번째 영화에 대한 경쟁부문, 비경쟁부문인 '오르 콩쿠르'(Hors Concours), 각 대륙별 주목할 만한 영화를 초정해서 상영하는 '포커스 온 월드 시네마'(Focus on World Cinema) 부문, 세계의 다큐멘터리 부문 등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 몬트리올 국제영화제의 주요 수상 부문으로는 그랑프리, 심사위원 특별 그랑프리, 최우수 감독상, 여우주연상, 남우주연상, 최우수 각본상, 최우수 예술공헌상, 혁신상 등이 있다. 영화제에 참가한 관객들의 투표를 통해 관객상인 '피플스 초이스 어워드'(People's Choice Award), 가장 인기 있는 캐나다 영화상, 다큐멘터리 영화상, 캐나다 단편영화상, 라틴아메리카 최고 영화상인 '글로베르 로샤'(Glauber Rocha) 등을 시상하고 있다.[34]

몬트리올국제영화제는 [표 2]와 같이 한국영화와는 많은 인연이 있었고 2017년에는 한국영화 최초로 경쟁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쾌거가 있었다.
또한 '한국영화특별전'을 통해 1998년에는 허진호 감독의 <8월의 크리스마스>, 임권택 감독의 <창>, 이정국 감독의 <편지>, 장윤현 감독의 <접속>, 전수일 감독의 <내 안에 부는 바람>, 장선우 감독의 <나쁜 영화> 등 극영화 8편과 종군위안부문제를 다룬 변영주 감독의 다큐멘터리 <낮은 목소리 2> 등 9편을 소개하였고, 2013년에는 유지태 감독의 <마이 라띠마>등 장편 8편, 이한욱 감독의 <숨바꼭질> 등 중편 1편, 김동호 감독의 <주리> 등 단편 7편을 소개하는 등 한국영화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이렇듯 그간의 몬트리올영화제에서 주목 받았거나 수상을 한 한국영화의 이유를 분석하여 보면 1988년 첫 번째 여우주연상 수상 영화인 <아다다>에서는 언어장애를 가진 한 여인의 운명과 사랑을 그린 영화로 가부장적 시대상황과 배금주의에 쓰러지는 한 많은 여자의 가련한 모습이 표현된 내용이다. 이강천 감독의 1956년 작 영화 <백치 아다다>를 리메이크한 이 영화는 전남 영광군 돌담마을인 효동마을에서 촬영하였다.

각본상과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영화 <은마는 오지 않는다>에서는 한국전쟁 당시 우방이었던 유엔군에게 성폭행 당하는 한 아이의 어머니와 그런 피해자를 외면하며 손가락질 하는 마을 사람들 그리고 결국 미군을 상대로 매춘에 나서게 되는 피해자의 아픈 한국의 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영화의 배경이었던 강원도 춘천 근처의 작은 마을 금산은 실제로 강원도 춘천시 의암호 일대에서 촬영하였다.

---

31) 박철수 감독의 영화 <성철>이 당초 본선 경쟁부문에 초청받았으나 불교계의 반발로 영화제작이 중단되는 바람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
32) 장문일 감독은 몬트리올국제영화제에 영화 <행복한 장의사>(2000), <바람 피기 좋은날>(2007) 에 이어 3번째 참가하였다.
33) 몬트리올국제영화제 경쟁부문 한국 영화 최초 금상(Golden Zenith)수상작이다.
34) 김광철 외, 『영화사전』, MEDIA2.0, 2004.

이문열의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원작으로 한 동명의 영화는 시골 초등학교를 배경으로 반에서 군림하는 '엄석대'라는 인물을 통해 권력의 속성과 무기력한 대중의 모습을 알레고리적 표현으로 보여준 내용으로, 영화의 시대 배경이었던 자유당 시절 부조리한 현실에 순응하는 소시민적 근성을 비판하며 영웅과 독재자의 차이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강원도 정선군 일대에서 촬영한 영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1992년 몬트리올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제작자상을 받았다.

1996년 예술공헌상을 받은 박철수 감독의 영화 <학생부군신위>는 한국의 전통 유교적 장례식을 소재로 형식적 장례 문화의 변질과 가족 간의 갈등과 화해를 토속적이고 해학적으로 표현한 영화다. 경남 합천군 가회면에서 촬영하였다.

이들 영화는 1988년에서 1996년의 한국사회는 독재사회에서 민주화로 나아가는 시기와 1997년의 국가부도 위기인 IMF사태까지 한국 전쟁 이후로 급변하는 시대를 배경으로 과거와 현재 모습을 반성하며 비판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몬트리올국제영화제는 바로 그 시대의 한국의 가장 특징적이며 보편적인 모습을 그려내는 내용에 관심을 두면서 가장 한국적인 풍경과 이미지를 보기를 원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 관점은 마침내 2017년 허철 감독에게 '첫 영화 경쟁'(1st Film Competition) 부문 금상을 안겨주게 되었다.

울산 울주군 일대 영남 알프스와 반구대 암각화 등을 영화의 배경으로 선택한 영화 <돌아온다>는 2015년 서울연극제에서 우수작품상과 연출상을 수상한 동명의 연극을 원작으로 허철 감독의 영화로 만들어졌다. 영화는 한적한 시골의 이름 없는 주막에서 매일 같이 같이하는 가족 같은 손님들과 그 캐릭터들의 가족 간 갈등과 화해를 담담하게 풀어낸다. 가슴 속에 각자의 결핍을 가지고 있으며 뱉어버린 말로 상대에게 치명적 상처를 안겨 그 고통을 주고받는 이 이야기는 그 해결의 실마리를 땡추 캐릭터를 통하여 풀어가고 있다. 할리우드(Hollywood) 영화의 대표적인 문제해결 방식인 히어로의 등장이나 천지개벽할 어떤 사건도 없이 그저 차분하게 갈등의 해소를 만들어 가는 이 영화의 스토리라인이 어쩌면 몬트리올국제영화제에서의 금상수상을 가능케 하였을지도 모르겠다. 2017년 몬트리올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장이었던 프랑스 여배우 페니 코텐콘(Fanny Conttencon)은 영화 <돌아온다>를 관람 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마치 빗물에 옷이 젖는지도 모르듯, 밀려오는 감동을 선사하는 작품"[35]

35) 김신성, 「영화 '돌아온다' 몬트리올국제영화제 금상 수상」, 세계일보, 2017.09.06.

영화 <돌아온다>에 대한 몬트리올국제영화제에서의 감상평은 대체로 서정적인 연출과 한국적인 영상미를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연극이 원작이었던 것이 독특한 표현으로 작용이라도 한 듯 영남 알프스 일대는 연극 무대처럼 느껴지고 잔잔하게 표현된 화면은 수채화와 같은 아름다움으로 호평했다고 한다. 허철 감독은 수상 소감을 말하는 자리에서 "영화 <돌아온다>는 한국적인 정서의 영화라 생각했고 연극 같은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영화보다 더 영화적인 아름다운 영화'라는 평가에 감동 받았다."라고 몬트리올국제영화제에서의 분위기를 전하였다.

전주국제영화제 김영진 프로그래머는 영화 <돌아온다>를 '어른들을 위한 동화'에 비유하며 다음과 같이 소감을 밝혔다.

> "허철의 세 번째 연출작이자 첫 번째 극영화 연출작인 <돌아온다>는 '착한 영화'이다"며 "어른들을 위한 동화처럼 생각될 정도다. 등장인물들은 저마다 선의를 품고 있고 그 선의를 온전히 꺼내 보여주진 않지만 서서히 그들 사이의 관계에 선의가 퍼져 나간다."[36]

관객에게 마음의 평온함과 갈등해소의 카타르시스를 차분하게 느끼게 하여 힐링의 효과를 주는 영화, 지난 몇 년간 커다란 상실감에 상처를 입고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부정한 기득권 세력에 저항하여 마침내는 정권교체를 이루어낸 한국에 필요한 영화적 치유에 대한 기대감이 몬트리올국제영화제의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36) 하성태, 「허철 감독 <돌아온다>, 몬트리올영화제 경쟁부문 초청」, 『하성태의 시네마틱』, 2017.08.06.

Ⅲ. 영화 치유의 개념과 방법

영화 치유를 말하기에 앞서 영화라는 매체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한다. 영화는 1894년 토마스 에디슨의 키네토스코프(kinetoscope)에서 시작하여 1895년 12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뤼미에르 형제가 시네마토그래프(cinematograph)를 공개한 것이 최초 영화로 알려진다. 이후로 필름의 발전과 광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컬러영화, 와이드스크린, 돌비 사운드 등 관련 매체들의 변화에 따라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영화는 디지털, HD(High Definition)영화라는 고화질 영상으로 기술적 한계를 넘어섰고, 3D영화의 등장으로 표현의 한계를 확장시키고 있다. 영화는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 실제 사람이 주인공이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일반적인 영화와 동물이나 사람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사람들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다. 또한 각종 드라마나 미스터리 등의 픽션이 아닌 실제 사물이나 대상을 있는 그대로 충실하게 기록하는 논픽션 기록영화가 있다.

매체의 특성상 영화는 기본적으로 사진, 소리, 미술, 문학, 연극 등 여러 예술분야들의 조합으로 완성되며 당 시대의 문제의식이나 공감대를 반영하는 등 대중의 관심사를 다루는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영화의 줄거리가 되는 스토리텔링은 누구나 겪을 수 있고 어디에서든 볼 수 있는 인간의 삶을 담고 있기에 관객에게 감정의 흔들림을 가져오는 강력한 도구라 할 수 있다.

> “영화를 보러 가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화면에 집중하게 되고 곧 이어 스크린 위에 펼쳐지는 가상 세계를 머릿속에 서서히 받아들이게 된다. 얼마 지나지 않아 관객들은 영화 속 주인공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고, 주인공의 삶에 동화되면서 주인공의 생각과 바람을 따라가게 된다. 과연 주인공은 사랑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끔직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영화 속 스토리가 만들어내는 콘텍스트를 통해 사람은 가상의 목표를 가지게 되고 그에 따라 영화 속 주인공과 함께 울고, 웃고 하는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37]

영화를 감상하면서 관객은 영화 속 사건, 혹은 인물이 처한 상황을 마치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감정이입의 과정을 겪는다. 영화는 전통적으로 100분 내외의 시간 동안 어두운 극장에서 실감나고 강력한 사운드와 대형스크린, 편안한 좌석 등을 통하여 관람하는데 그 보는 환경이 관객으로 하여금 현실을 잊고 영화의 내용에 쉽게 몰입하게 한다. 관객이 영화를 감상하는 행위는 시각, 청각의 감각을 동원하여 동시에 모든 정보를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으로 강한 기억을 남긴다. 이는 사진이나 미술, 영화 등 이미지를 이용한 표현을 볼 때 ‘푼크툼(punctum)’과 같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강렬한 기억이나 감정의 경험 등이 바로 그것이다.[38]

---

37) 황신웅, 『스토리텔링, 교육을 아우르다』, p.32,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6.
38) 김득환, 『롤랑 바르트의 밝은 방-사진과 시간의 현상학』, p.201, 한국학술정보(주), 2020.

"영화가 단지 줄거리를 통해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영화는 또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보고 음악과 다른 소리를 통해 듣는 것처럼, 우리의 감각을 자극해 정서를 이끌어냅니다. 감독은 관객의 정서를 특정방향으로 촉진해 그들의 인식을 확장하고자 시각적 효과, 공간적 관계, 타이밍, 음향 효과, 음악을 이용합니다."[39]

바로 이러한 점들로 인하여 영화는 관객에게 감정이입을 용이하게 도움을 주고 효과적으로 감성소통을 이끌어내게 한다. 이는 곧 관객의 카타르시스나 아픈 마음에 대한 치유의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게 한다.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나 대인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 등으로 인하여 영화를 감상하려고 들었다면, 어떤 영화를 봐야하나 하고 고민을 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이미 힐링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치유적 소통에 필요한 성찰에 눈뜨게 한다. 이것은 곧 치유와 치료의 차이를 가르는 분기점이라 할 수 있다.

1. 영화 치유의 개념

영화의 소비형태가 전통적인 극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해짐에 따라 영화감상의 기회가 많아졌다. 디지털의 장점으로 인하여 시대를 망라하는 보고 싶은 영화를 언제든지 다시보기를 하면서 이제 관람자는 감상을 넘어 비평의 단계까지 가기도 하고, 영화의 내용에 따라 스스로의 마음을 치유하는 '시네마테라피' 즉 '영화 치유'가 보편화 되고 있다.

"언젠가부터 '시네마테라피'라는 말이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영화치료' 혹은 '영화를 통한 힐링' 정도로 번역되는데, 영화를 통해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법이라 할 수 있다. 한 편의 영화가 전문상담사와의 대화보다 더 유익한 자기치유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40]

위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는 테라피(therapy)를 치료와 치유의 혼용 개념 정도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서 조수동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치료(therapy)는 의사의 치료 행위를 뜻하는 의술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약물이나 수술을 이용하지 않고 정신적, 신체적 질병을 치료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의미에서의 치료라는 개념은 음악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영상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이러한 의미를 통해서 보면 치료라는 개념은 의사가 행하는 의료행위 뿐만 아니라 임상치료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41]

---

39) 비르기트 볼츠, 심영섭 김준형 김은하 옮김, p.50, 『시네마테라피』, 을유문화사, 2010.
40) 주성철,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할 70가지』, p.25, 소울메이트, 2014.
41) 조수동, 「철학치료와 선」, p.259, 『동아시아불교문화』 제3집,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09.

시네마테라피에 관한 용어 해설 중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세계 최초이자 최대 영화치료 사이트인 www.cinematherapy.com을 운영하고 있는 비르기트 볼츠(Ph.D Birgit Wolz)의 저서 『E-motion Picture Magic: A Movie Lover's Guide to Healing and Transformation』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5> 'E-motion Picture Magic' 용어 개념도

'E-motion Picture Magic'이라는 제목에서 'E-motion'은 'emotion'(감정)과 'motion'(동작)을 합성하여 만든 중의적 표현이라 할 수 있는데, '감정이 움직이는' 그리고 'motion picture'(영화의 옛 표기: 활동사진)는 '영화'로 둘을 합치면 '감정이 움직이는 영화의 마법'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제에 있는 'Healing and Transformation'으로 감정이 움직여 치유작용(Healing)을 일으키고 그 다음으로는 변화(Transformation)해야 한다는 것이다. 치료를 하든지 아니면 치유를 하든지 그런 행위나 작용의 결과로는 반드시 그 전에 비해서 변화가 따라야 치료나 치유의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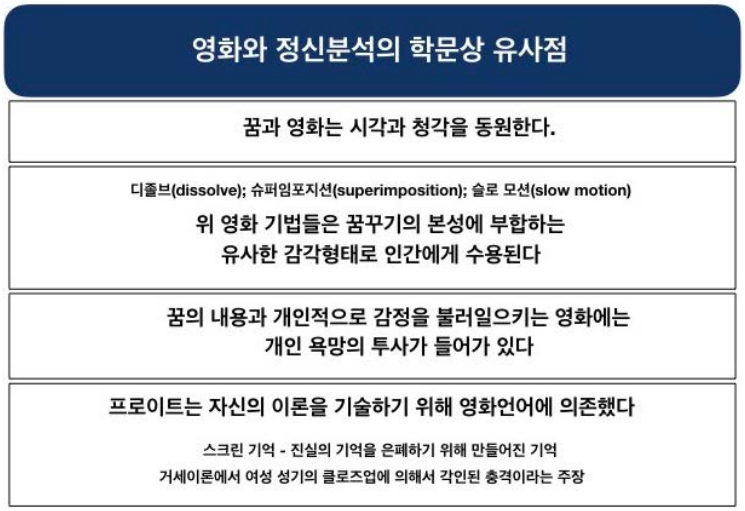
> "E-motion Picture Magic은 개인적 치유와 변화를 위해 영화를 의식적으로 관람하고, 치료적이거나 의식을 높이는 연습을 병행하는 것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42]

『E-motion Picture Magic: A Movie Lover's Guide to Healing and Transformation』는 한국에서 『시네마테라피』로 번역되어 나왔는데, 이 책은 '영화치료의 교과서' 정도의 전문서적이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영화를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자 하는 자가치유자(self-helper)들에게도 도움을 주기위한"[43] 책이기도 하다.

물론 모든 영화가 모든 관객에게 이런 치유의 효과를 준다고 볼 수 없다. 어떤 장르의 영화는 관객에게 내재되어 있던 트라우마를 더 촉발시킬 수도 있고, 관람하는 동안은 울고 웃으며 현실을 잊었다가 영화가 끝난 후 불이 켜진 극장에서 오히려 심한 우울감이 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영화치료에서는 치료용 영화

42) 비르기트 볼츠, 앞의 책, p.20.
43) 위의 책, p.7.

리스트와 감상 포인트 등 여러 장치를 마련하여 그 부작용을 줄여 나가는 방법을 쓰고 있다.



<그림 6> 영화와 정신분석의 학문상 유사점

영화평론가이자 심리치료학 교수인 심영섭은 영화와 정신분석학이 근대성(modernity)을 바탕으로 형성된 역사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며 두 학문의 유사성을 <그림 6>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학문의 유사성과 영화산업의 기술적 발전을 토대로 영화치료는 1990년대에 독서치료를 대치하거나 새로운 예술치료법의 하나로 등장한다.

> "무엇보다도 독서치료와 영화치료는 스토리, 플롯, 주제라는 공통 요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메타포를 사용하고, 적정한 심리적 거리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게 한다.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활용하는 것은 글이라는 서사매체를 사용할 때보다 몇 가지 장점이 있다. (…) 영화는 문자 해독력이 적거나 지능이 낮은 환자나 아동 청소년들에게도 적용하기 쉽다."[44]

예술치료(Art Therapy)는 1942년 에이디리언 힐(Adrian Hill)이 결핵환자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여 환자의 불안과 심리적 외상을 드러내는 도구로 활용한 것이 그 시초로 이후 음악, 미술, 무용, 연극, 영화, 독서 등 다양한 예술 분야를 활용하여 환자에게 예술적 표현을 하게 한다거나(표현예술치료) 또는 감상하게 한 후 심리, 상담치료에 도입, 활용하는 것을(감상예술치료) 말한다.

예술치료는 크게 표현 위주의 치료법과 감상 위주의 치료법으로 나누어지는데 다음

44) 김수지, 「자기조력적 영화치료와 상호작용적 영화치료의 효과 비교」, p.87, 『영화연구』55, 한국영화학회, 2013.

의 [표 3]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표현예술치료	감상예술치료
방법	음악, 미술, 무용 등을 직접 행함	주어진 예술매체를 관람 혹은 감상
특징	표현예술치료의 본질인 놀이와 상상은 일상적으로 억압되었던 심리적인 문제를 표출하고,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대안적인 문제해결 방식의 습득
	정서적 고통을 치유하며 일상을 넘어선 경험의 변용을 중요시한다	독서치료, 음악감상치료 등

[표 3] 예술치료의 종류

영화치료는 상담과 심리치료에 영화 및 영상 매체를 활용하는 모든 방법을 지칭하는 것으로, 영화를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표현과 감상의 방법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이 용어는 1990년에 버그-크로스(Berg-Cross) 등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이어 게리 솔로몬(Gary Solomon)은 영화치료를 '치유적 과정을 위해 내담자에게 영화를 처방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45] 영화나 사진 등 이미지를 이용한 치료는 비언어적 수단을 이용한 예술치료의 일환으로 기존의 언어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에게 활용하고 있다.

> "영화치료의 핵심 중 하나는 내담자를 위한 적절한 영화의 선택과 내담자의 삶과 영화를 연결시키는 여러 가지 기술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내담자-치료자 중심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일반 관객들도 암암리에 영화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심리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영화의 치유적 힘을 심리학과 접목하려는 시도 중 두드러지는 것 하나가 긍정 심리학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46]

위에서 말하는 일반 관객이 영화를 감상한 후 긍정적인 심리 영향을 받는 것을 영화 치유라고 할 수 있다. 영화를 보고난 후 관객의 감정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거나 왈칵 울음이 나온다던지 또는 가슴이 후련하여 웃는다던지 등의 감정적 해소 효과를 가질 수 있다면 이를 곧 그 영화로 인하여 관객이 치유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 "두 시간쯤 후에 기분 좋게 영화관을 나설 수 있다면 그건 분명 치유적인 영화지."[47]

---

45) 김수지, 앞의 논문, p.85.
46) 심영섭, 앞의 책, p.36.
47) 김서영, 『영화로 읽는 정신분석-김서영의 치유하는 영화읽기』, p.55, ㈜은행나무, 2018.

이렇듯 영화 치유는 영화를 감상한 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감정적 응어리나 정신적 트라우마 등 마음의 병이 해소되거나 나아지는 것을 말한다. 영화 치유는 치료와는 차이가 있다. 치유와 치료는 모두 병을 낫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차이는 병을 낫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 치료 행위는 자격을 갖춘 의사가 하는 병을 낫게 하는 의료행위를 말하며, 치유는 본인 스스로 병을 낫게 하는 모든 수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관객이 의사의 치료행위나 약의 도움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지로 영화를 본 후 자신의 마음의 병을 나아지게 했다는 것은 치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영화 치료 ·치유의 현황

현재 국내에서는 예술치료의 경우 치료와 치유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현행법상 치료는 의사가 의료기관에서 해야만 하기 때문에 각종 연구소에서 행하여지는 행위는 법상 치료가 아닌 것이다. 그렇지만 명칭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음은 확실하다. 이로 인해 치유에 대한 독자적인 연구나 활동은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이다.

영화치료는 1990년대 초 미국에서 사회복지, 간호, 임상심리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집단상담이나 부부상담 등 임상장면에 영화를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시작되었다.

> "대표적인 영화치료 주창자 중 한 명으로 꼽는 미국 노스리지 병원(Northridge Hospital)의 월터 제이콥슨(Walter E. Jacobson) 박사는 영화치료를 통해 환자들이 영화 속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비슷한 상황을 이해하고 극복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하였고, 이후 영화 속 주제를 하나의 메타포(metaphor)로 삼아 여러 심리치료적인 관점에서 상담에 응용하기 시작했다."[48]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한국영상영화치료학회>[49] 초대 회장 심영섭을 중심으로 영화치료에 관심이 있는 몇몇 사람들이 모인 소그룹 스터디 모임에서 영화치료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영화치료 워크숍을 시작하면서 영화치료가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2007년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 치료 서적 <시네마테라피>를 공동번역 출간하였고, 이후 영화치료는 다양한 영화치료 관련 기관과 단체를 통해 확산되었다. 2008년 <한국영상영화치료학회>를 설립하여 학술적 임상적 기반을 확고히 하고 영화치료 전문가 자격 검정과정을 운영하는 등 영화치료의 보급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2009년에는 힐링시네마 공모를 통해 축제를 개최하여 '힐링시네

48) 김은하 외 6명, 『영화치료의 기초: 이해와 활용』, p.5, 박영스토리, 2019.
49) <한국영상영화치료학회>는 2008년 5월31일 공식 발족, 학회장을 선출하였다.

	정보	비고	지역
김은지상담교육센터	대표 : 김은지 대구시 수성구 고산로 162 한일유앤아이APT상가 202호 http://www.kojc.kr	사진/영화치료연구소	대구
나우심리상담센터	대표 : 방미나 http://www.nowcoun.co.kr	나우영화치료연구소	대전
단비심리상담소	대표 : 이승수 https://blog.naver.com/iss3610		전북
담쟁이심리상담연구소	대표 : 조원국 https://cafe.naver.com/ivyhealing		강원
동래심리상담센터	대표 : 이혜경 주소 : 부산 동래구 동래로136번길 25 4층 https://cafe.naver.com/comhealing	영화・사진치료, 예술치료	부산
마음과 공간 예술심리연구소	대표 : 소희정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80-2번지 B01호 http://www.mindspace42.com/gnuboard4/		서울
마음놀이치유센터/예술심리교육연구소	대표: 강혜경 주소 : 불교 문화원 옆 울산 여성의 전화 교육장 3층 https://blog.naver.com/segerow2	매체(영화와 사진)을 활용한 심리치료	울산
몸마음힐링상담센터	대표 : 강경란 http://cafe.daum.net/mpcc1004	어미곰 사진영화치료 연구소	부산
심영섭 아트테라피	대표 : 심영섭 주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47 암사빌딩 2층 (암사1동 496-18) http://www.healingcinema.co.kr	영화치료, 사진치료,	서울
오메가영화치료연구소	대표 : 배정우 http://cafe.daum.net/octi3	한국학교상담연구소	부산

[표 4] 한국영상영화치료학회 학회등록 연수기관

마'의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영화치료가 국내에 보급된 지 10여년이 지나면서 이제 영화치료는 상담 및 심리치료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표 4]를 보면 한국영상영화치료학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학회등록 연수기관이 공식적으로 열 곳이 있으며 또한 각종 교육 및 연수기관의 교육을 통해 전문상담사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상당수 있으리라 추정된다. 그리고 자가 치유를 위한 책

부터 상담, 사례분석 등 영화 치유 관련 도서와 논문 등 종교분야와 연관한 것부터 심리분석 분야를 바탕으로 한 내용까지 다양한 간행물이 출판되고 있다.

본 연구자는 내담자가 되어 예술치료를 받아 본 경험이 있는데[50], 예술치료가 과연 효과적일까 하는 의문부터 상담자가 본인의 능력과 경험을 뛰어넘는 내담자를 만나는 경우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하는 등 치료방법에 대한 의문과 회의가 들어서 치료를 포기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이런 예술치료를 위해서는 상담자는 어떤 능력치를 갖추어야 하는 건가? 제도적인 상담자 자격이 인생의 경험치와 예술분야에서의 능력치를 보장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내담자와의 상담치료는 무의미해 질 수도 있다.

그리고 가끔 뉴스에서 보도되는 끔찍한 사건의 원인을 보면 영화에서 범죄 충동의 계기를 찾고, 범행수법을 모방[51]하기도 하는 등 영화는 감상자의 상태에 따라 그 결과가 언제나 긍정적 힐링의 효과를 가져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영화치료의 결핍, 부작용에 대하여 의문이 들며, 영화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 조언이나 상담을 전담하는 자 없이는 불가능한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심리학적 접근 베이스에서도 기계적이고 일률적 기교적 대처방법 및 분석으로 인한 상대적 부조화 문제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고 상담치료사의 경험 부족 또는 자질 부족에서 오는 결핍 또한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된다. 바로 이 근원적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철학적 성찰이 요구되며 바로 이때 치유철학이 필요하게 된다.

영화 치유의 경우 현재로서는 '자기조력적 영화치료'(self-help cinematherapy)가 치유의 의미에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한다.

> "자기조력적 영화치료는 이론적으로 영화 텍스트와 독자의 자발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치료가 일어나며, 상담자의 개입이 없이도 일상에도 많은 사람들은 영화를 보고 정서적 카타르시스를 경험한다고 가정한다. 1995년에 『영화 처방전(Motion Picture Prescription)』이란 책을 쓴 영화치료의 선구자 게리 솔로몬은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에서 영화를 스스로를 돕기 위해 활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50) 본 연구자는 2014년 교수협의회 문제로 학교에서 해직을 당해 소송을 통하여 복직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바로 이 예술치료를 경험한 적이 있다. 당시 정확한 병명은 화병이라고 진단을 받았으며 그 치료를 위해서 한방치료와 상담치료를 받았었다. 그때 상담치료에서 본 연구자에게 제시한 방법이 바로 사진촬영을 이용한 예술치료 방법이었다. 물론 그 상담치료사는 내담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사진전공을 한 교수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에 오히려 내담자인 본 연구자가 카메라를 이용한 치료방법은 효과가 없을 것이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음을 말해주었으나 상담자는 더 적극적으로 그 방법을 강요하는 일이 있었다.

51) 2017년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의 범인은 장남이었으며 그는 범죄영화를 보며 살인계획을 세워 영화에서 나오는 사건은폐 방법까지 모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영화치료는 이미 일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가 요법(self-therapy)이라고 갈파한 적이 있다."[52]

앞서 본 연구자는 예술치료의 경험을 통하여 상담자나 치료를 행하는 의료인의 능력 여하에 따라 치료의 효과나 결과가 변하게 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치료행위는 반드시 의료인이나 그에 합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행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붓다의 가르침인 '스스로 치유하라'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이다. 즉 어느 선지자나 유명한 선사, 선생 등 타인의 가르침으로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음이며 치료의 효과도 확신할 수 없음인 것이다.

이러한 고민 끝에 본 연구자는 예술상담치료의 한계와 문제점을 절감하면서 예술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효과적인 치유의 결과를 얻는 길을 모색하던 중 불교의 치유 철학과 예술 그 중에서도 영화를 결합하여 보다 효율적인 치유 효과를 얻어 보고자 한다.

3. 영화 치유로서의 가치

영화 치유는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영화치료라는 용어가 치유와 치료의 의미를 혼용하여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여기에서 기존의 영화치료에서 분별되는 영화 치유의 개념을 정리하고자 한다. 영화치료는 상담자가 내담자로 구성되어 영화를 매개로 하는 심리상담치료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영화 치유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영화를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자 하는 자가치유'라는 출발점에서 시작한다. 본 연구에서는 영화 치유를 방법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어느 경우에도 타당한 긍정의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보편적 개념으로 접근한다.

앞서 본 연구의 서론 중 1-2. <영화는 사람 사는 이야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화는 스토리나 이미지로만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종합예술이라는 명칭답게 인간의 시청각을 이용한 영화의 매체 특징은 영화를 감상하는데 감정을 증폭시키며 또 다른 상상의 여지마저도 무한히 제공한다. 다음의 영화 구성요소별 대응지능표[53]를 보면 영화를 감상할 때 관객은 다중적 즉시적으로 대응지능을 작동시켜 영화의 이해를 돕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화 사운드에서 음악은 감정의 증폭을 일으키지만 음향은 감각의 증폭을 가져온다. 이는 관객의 실재감을 높이는 동시에 빠른 감정이입을 돕는 역할도 한다. [표 5]에서 "마지막 세 가지 지능에는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캐릭터와의 동일시를 통해

52) 김수지, 앞의 논문, p.89.
53) 비르기트 볼츠, 앞의 책,. p.53.

영화 구성 요소	반응 지능
플롯	논리 지능 (logical intelligence)
각본	언어 지능 (linguistic intelligence)
화면의 영상, 색, 상징	시각적 공간 지능 (visual-spatial intelligence)
음향과 음악	음악 지능 (musical intelligence)
이야기 전개	대인관계 지능 (interpersonal intelligence)
움직임	운동감각 지능 (kinesthetic intelligence)
(영감적인 영화에서 나타나는) 자기반영이나 심리적 안내	심리적 내적 지능 (intrapsychic intelligence)

[표 5] 스터드번트의 영화요소별 반응지능

접근하게 된다"고 한다. 즉 영화의 등장인물간의 관계주고받기를 3자의 입장에서 관찰하면서 대인관계의 장/단점, 유/불리를 간접 체험할 수 있으며 주인공의 독백이나 자기갈등을 보면서 관객 스스로는 자신의 숨어있는 자아와의 대화도 가능하게 된다는 말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관객은 영화를 감상할 때 관객 스스로 치유와 변화를 위한 잠재력을 더 향상시키고 있다. 영화의 주인공이 시련을 맞이한 상태에서 발휘하는 힘, 용기, 긍정적인 태도 등은 관객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과의 비교를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의 선택을 하게하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앞서 본 연구에서 영화의 소재가 되는 사건이나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나 현실의 반영이 많다고 하였다. 『영화로 읽는 정신분석』의 저자 '김서영'의 경험기에서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이기 때문에 그 치유력은 더욱 크다고 하고 있다.

영화치료[54]는 불교의 '마음챙김'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심영섭은 영화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을 '의식적 자각'을 가지고 영화를 보는 것이라 한다.[55]

54) 여기에서 영화치료는 현재 학계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55) 심영섭은 의식적 자각이 자신의 의식세계, 자신의 신념체계들을 탐색해 나가면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그 모든 것과 합일되는 순수 의식적 자각상태를 경험하는 것이라 정의한다. 그러면서 불교의 무심(mindlessness)을 방심(정신이 멍한 상태), 우리의 자각이 혼탁해지는 것, 영적으로 잠이든 상태를 포괄한다고 잘못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여, 영화치료의 방법에서의 불교와의 유사성은 기존 영화치료에서 사용하는 단계와 단어들을 참조하여 본 연구자의 임의대로 재구성했음을 밝힌다.

이것은 관객이 영화를 보다가 감정이입에 몰두하여 영화 속 등장인물이 자신과 동일시되는 순간 치료의 효과는 고사하고 자칫 또 다른 중독이나 오염에 영향을 받게 되어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도 있기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수요인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즉 영화치료에 있어서 관객은 영화를 볼 때 '이것은 영화다'라고 알고 있음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의식적 자각 하에 영화감상의 장점	
마음을 일으키는 문제 인식	내담자는 영화를 보면서 심리적 문제점들과 지나치게 동일시하는 자신을 자각하면서 그것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부적절한 정서 인내하기	안전한 환경에서 부적절한 정서를 인내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고차원의 자아와 연결하기	일상에서 잊어버렸던 어떤 가치들, 미덕 또는 능력에 다시 다가갈 수 있게 도와준다(긍정적인 '아하' 경험)

[표 6] 영화치료에서 의식적 자각 하에 영화감상의 장점

심영섭은 '의식적 자각'하에 영화를 감상함으로써 얻는 장점에 대하여 [표 6]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56] 그런데 위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방법에는 반드시 상담치료사가 있어야 한다. '마음을 일으키는 문제 인식'단계에서 내담자 내지는 관객은 의식적 자각이 있다면 상담치료사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만약 내담자나 관객이 이미 치료를 필요로 할 정도의 상태라면 홀로 영화를 감상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다음 '부적절한 정서 인내하기'는 영화감상의 장점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로, 폭력적이거나 부당한 것들의 경험을 직접 겪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좋은 측면이 있다. 하지만 보는 동시에 그런 좋지 않은 경험이 관객에게 부작용 내지는 악화의 상태로 전이되는 것 역시 발생할 수 있다. 이유는 불완전한 전제나 조건에서의 인내하기는 자칫 내담자의 상태를 폭발시키거나 트라우마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상담치료사가 없이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음이다.

영화치료에서 '의식적 자각'과 더불어 중요한 요소는 '소격효과'(疏隔效果)[57]다. 연극이나 영화, 드라마나 문학 등 재현의 장르에서 의도적으로 관객(독자)과 작품 사이에 거리를 두어 관습적 지각방식을 변화시키는 기법을 말하는 것으로, '거리두기'(distancing effect, alienation effect) 또는 '낯설게 하기'(defamiliarization) 등의 표현이 이에 속한다. 연극 관람 중에 갑자기 배우가 관객석에 나타난다거나 무대 위의 배우가 객석의 관객에게 말을 거는 등 관객이 스토리에 몰입하여 동일시되는 환각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영화에서는 상황에 맞지 않는 음악을 사

56) 심영섭, 앞의 책, pp.247~249.
57) 국내의 영화치료 관련 서적에서 주로 '소격효과'라는 용어를 쓰는데 여기서 소격효과는 '거리두기'로 보인다.

용한다거나 화면에 나타나지 않는 내레이션의 사용, 영화 속 영화를 삽입하는 등 여러 가지 기법이 사용된다. 이런 방법은 관객이 감정이입 없이 영화를 바라보기를 유도하며, 관객에게 작품의 내용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비판적 태도를 가져와 감정이입의 부작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예술치료로서의 영화치료는 상담 심리치료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심리치료는 불교와의 공통점이 있다. 조수동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정신병리 현상의 치료는 환자 스스로 자신이 처한 문제에 직면하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변화 개선할 수 있다는 의식을 일깨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즉 의존적 치료가 아닌 자각적 치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자각하고 인격의 완성에 도달하는 것이 치료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은 불교가 지향하는 것과 일치된다고 할 수 있다."[58]

앞서 서론의 2-2. <영화 치유와 원효 치유철학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에서 영화를 감상함에 있어서 기존 영화치료 방법과 불교의 유사성과 차이 그리고 접점에 대하여 정리한 바 있다.

불교와 영화치료의 유사성과 차이	
마음챙김(mindfulness)	의식적 자각, 깨어있음
	명상보다 영화를 통해 의식적 자각을 하기가 더 쉽다
	영화를 보고 있다는 자각은 관찰에 대한 지평을 넓히고, 내면세계에 관심을 두는데 도움을 준다
위빠사나(Vipassana) (모든 것을 이해하고 꿰뚫어 본다)	영화 감상하는 순서에서의 호흡 자각하기, 신체의 점진적 이완[59]
육근수호의 정지(正知)	소격효과
화쟁적 성찰의 개안과 성숙(치유)	억압된 정서의 노출이나 공감으로 인한 치료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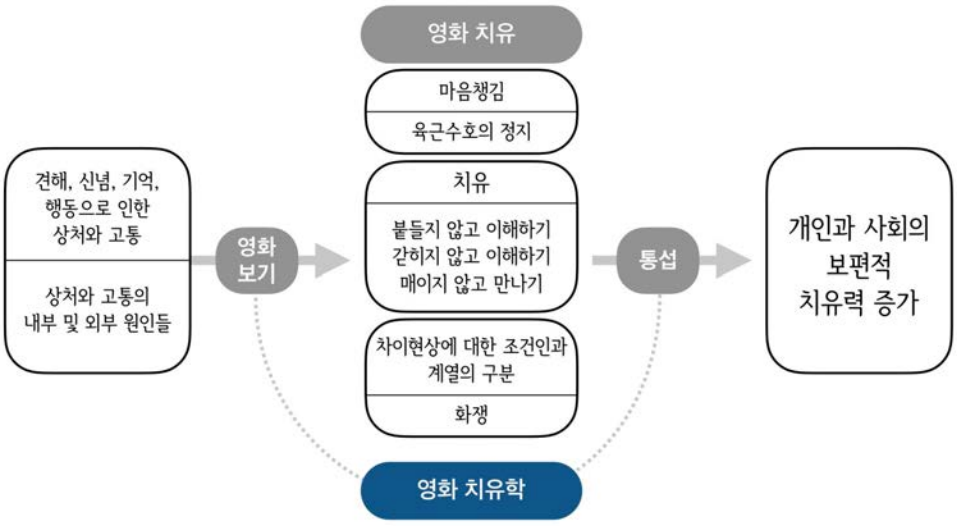
[표 7] 불교와 영화치료의 유사성과 차이

영화치료와 불교와의 유사성은 [표 7]처럼 정리할 수 있으나 박재현에 의하면 원래 불교는 치료의 수단은 될 수 없다고 한다.

58) 조수동, 앞의 논문, p.257.
59) 심영섭, 앞의 책, pp.249~251.

"불교의 수행은 본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행위는 아니다.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애초에 수행자로서 자격 미달이다. 수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종의 육체적 정신적 점검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것이 차법(遮法)이다. (…) 차법에 근거해 볼 때, 치료 대상자는 수행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불교철학의 관점에서 볼 때 수행은 치료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60]

조수동은 "불교의 수행이 일종의 치료약과 같다"[61]고 하고 있으며, 박재현은 불교의 수행이 치료 목적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그렇지만 두 학자 모두 붓다의 연기사상을 '마음치료'나 '선 수행'의 기본 철학으로 한다는 점에 본 연구자는 주목한다. 붓다의 연기사상은 원효의 화쟁으로 계승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7> 영화 치유 개념도

영화 치유에 있어서 영화보기는 '거리 두고 보기'가 필요하다. 이는 육근수호의 정지 즉 '차이들을 움켜쥐지 않고 알아차리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영화에 나타난 갈등상황에서 관람자는 '차이들을 발생시킨 조건들에 관한 성찰과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곧 화쟁의 발현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의 '화쟁적 성찰능력'은 개인치유와 차이들의 관계소통을 포괄하여 그 차이를 공감하며 내면화시키는 것이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차이들의 관계소통과 공감'은 개인 실존과 사회관계 모두에 유효하게 작용한다. 이것이 바로 영화 치유의 목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는 방법과 이론의 학적 체계를 '영화 치유학'이라 할 수 있다.<그림 7>

60) 박재현, 앞의 논문, p.107.
61) 조수동, 앞의 논문, p.270.

영화 치유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적용시키지 못 할 것이다. 치료는 반드시 의료체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견해나 신념, 기억. 행동으로 인한 상처와 고통을 극복하고자 치유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다 스스로 할 수 있다. 영화는 현실세계에서 직접 맞닥뜨리는 문제가 아닌 안전한 환영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영화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대립, 충돌의 문제는 '거리 두고 보기'를 통해 그 문제의 원인을 이성적으로 파악하고 '차이들의 쌍방화'를 자각하게 된다. 이것은 영화를 볼 때 '붙들지 않고 만나는 힘' '갇히지 않고 성찰하는 힘' '매이지 않고 보는 힘'으로 영화를 만나야 닿을 수 있는 경지이다. 그런 점에서 영화 치유가 확보하려는 것은 정서적 치료효과를 넘어서는 성찰적·인지적 치유력의 계발효과이다. 그렇게 파악한 쌍방화된 차이들은 이제 화해를 하면서 통섭의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이것은 불교의 교학적 상황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사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 철학이라 생각한다. 불교 철학이 적용된다고 하여 꼭 불자가 되거나 수행자의 길을 가야하는 것도 아니다. 붓다가 중생들을 고통으로부터 구제하려고 연기의 깨달음을 설파하였듯이 이제 치유가 필요한 사람에게 영화 치유를 함에 있어 원효의 화쟁철학을 도입하여 개인 및 그가 속한 사회 전체에게 그 치유력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다. 영화 치유와 원효의 화쟁철학의 접속이 여기서 이루어진다.

Ⅳ. 영화 <돌아온다>에 나타난 불교의 치유양상

영화 <돌아온다>는 2017년 9월 제41회 몬트리올국제영화제에서 경쟁부문에 초청되어 한국영화로서는 처음으로 해당 부문 금상을 수상하였다. 심사위원장인 프랑스 배우 패니 코텐콘(Fanny Conttencon)은 “마치 빗물에 옷이 젖는지도 모르듯, 밀려오는 감동을 선사하는 작품”이라고 감상평을 말하였고, 또 다른 심사평으로 “연극보다 더 연극 같은 동시에 영화보다 더 영화적인 아름다운 영화다.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캐릭터들의 등장이 나중에는 마치 퍼즐처럼 맞춰지는 스토리를 보여주는 새로운 영화”[62]라고 하는 등 많은 감동적인 찬사가 쏟아졌다.

실제로 이 영화는 2015년 제36회 서울연극제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선욱현 극작가의 동명 연극 <돌아온다>를 원작으로 하여 허철 감독이 각본, 연출을 한 영화이다. 영화의 구성을 보면 연극적 요소 역시 드러나고 있는데, 출연자가 많지 않다는 것과 이야기의 배경이 한정적이라는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이 영화는 울주군 지자체의 제작지원을 받아 원작과는 다른 울산 울주군이 배경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영남 알프스의 아름다운 풍경 역시 감성적 표현에 도움을 주고 있다.

영화는 울주군 상북면에 있는 한 막걸리 집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식당 처마 밑에 걸려있는 액자에는 ‘여기서 막걸리를 마시면 그리운 사람이 돌아옵니다’라는 글이 적혀 있으며, 등장인물들은 여기서 막걸리를 마시며 각자의 사연으로 그들의 그리운 사람에 기다림을 이야기하고 있다. 주인공 변사장과 등장하는 인물들은 제각기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다. 어머니를 찾는 스님과 아들을 찾는 노모, 집 떠난 부인을 기다리는 남자, 군대 간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 등 모두가 하나같이 막걸리를 들이키는 이유가 있다. 묵묵히 단골손님들을 받아주는 사연 많은 중년남자이자 여기 막걸리 집을 운영하는 ‘변사장’과 매일 이곳

62)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영화 <돌아온다>를 소개하는 글에 위와 같은 심사평과 감상평 등이 소개되어 있다. 몬트리올 현지의 평가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여기의 글을 인용한다. “몬트리올국제영화제 상영 후, 심사위원장을 맡은 프랑스 대표 여배우 페니 코텐콘(Fanny Conttencon)은 영화 관람 후 “마치 빗물에 옷이 젖는지도 모르듯, 밀려오는 감동을 선사하는 작품”이라며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또 다른 심사평으로는 “연극보다 더 연극 같은 동시에 영화보다 더 영화적인 아름다운 영화이다.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캐릭터들의 등장이 나중에는 마치 퍼즐처럼 맞춰지는 스토리를 보여주는 새로운 영화”라는 평을 비롯 “거대한 연극무대 공간의 구석구석에서 튀어 나오는 캐릭터들의 생뚱맞음이 나중에 서로 교묘하게 연결되면서 감동을 주는 웅장한 연극을 본 느낌이다”라는 평을 남겼다. 또한 평소 특정 영화를 언급하는 경우가 드물기로 알려진 몬트리올영화제의 창립자이자 집행위원장인 세르주 로지크(Serge Losique) 역시 “매우 감동적인 영화”라며 짧지만 굵은 평을 남겨 신뢰도를 높인다. 몬트리올 콘코디아 대학 영화과 교수 피터 리스트(Peter Rist) 역시 “음악과 사운드 디자인이 훌륭한 시적인 영화”라는 평으로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영상미와 감미로운 사운드에 찬사를 아끼지 않아, 한국 영화의 위상과 품격을 모두 높인 작품임을 입증한 <돌아온다>는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https://movie.daum.net/moviedb/main?movieId=111264#none,

<그림 8> 영화 <돌아온다> 변사장역의 배우 김유석

에 모여 누군가가 돌아오기를 염원하며 한 잔, 두 잔 막걸리 잔을 채우던 이들 앞에 서울에서 온 상실의 아픔을 품은 '주영'이 나타나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영화 <돌아온다>는 그리움을 품은 이들의 사연을 통해 관계와 상실, 그리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휴먼 드라마 영화이다. 허철 감독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영화의 메시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

> "영화 <돌아온다>에서는 보편성이 가진 힘을 말하고 싶었다. 가족을, 또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의 근원은 그 사람에 대한 죄의식에서 비롯된다. 자식이 먼저 가면 부모는 내가 죽였다고 하는 것처럼. (…) 영화를 통해 가족에 대한 한 번 더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영화를 본 후 바빠서 연락 못하고 지냈던 부모님에게 전화 한 통 드리는 계기가 된다면 감독으로서도 매우 보람될 것 같다."[63]

그리고 앞으로도 영화를 본 후 희망이 샘솟는, 기분 좋은 '힐링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63) 이유진. 「[단독인터뷰]몬트리올영화제 금상 수상 '돌아온다' 허철 감독 "다양한 한국 영화 원하는 세계인의 시선 느꼈다"」, 스포츠칸 2017.09.08.

1. 영화에서 나타난 갈등과 원인 사례 분석

울주군 어딘가의 막걸리를 파는 식당에는 늘 모이는 동네 이웃들이 있다. 그들은 모두 마음 한 쪽에 돌아오지 않은 가족을 품고 서로를 위안하며 막걸리를 마신다. 언젠가 그들이 그리워하는 그 누군가가 돌아오기를 바라며 오늘도 모여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다. 영화 <돌아온다>는 이렇게 누군가를 잃은 상실감에 빠진 이들의 사연을 하나씩 보여주며 그 안에 있던 내재된 갈등과 문제해결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는 크게 4가지 에피소드를 갈등의 양상으로 들 수 있는데 각각의 영화 속 갈등 사례를 알아보고 그 원인을 분석해 보도록 한다.

1-1. '진철'이 기다리는 사람과 상처

'진철'은 늘 막걸리에 취해 있다. 8년 전 돈을 들고 도망간 외국인 아내 '제니'를 기다리는 어느 시골의 깨어진 다문화가정의 한 모습이다. 주변 모든 이들은 그 여자가 도망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말하지만 정작 진철은 막연하게 집 나간 아내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낸다. 지내온 시간이 8년이라 그런지 진철은 의욕이 없고 자신이 기다리던 제니가 돌아오는 것은 이미 희망이 보이지 않아 아침부터 술에 취해 또 하루를 보내는 일상이다. 그런 진철이 어느 날 티격태격하며 가까이 지내던 '연심'의 한마디에 폭발하고 만다.

> **43. EXT. 막걸리 집_마당. 정오[64]**
> 1) 평소보다 여전히 손님이 많아진 막걸리 집.
> 한 쪽에는 혼자녀가 혼자 술을 마시고 있다.
> 진철은 술을 마시며 혼자녀를 쳐다보고 있다.
> 그때, 계단을 오르는 복부인과 연심, 여비서.
> 황의, 진철, 할매, 유미 모두 그들에게 시선이 쏠린다.
> 2) 부엌 앞에서 컵을 닦다가 돌아보는 주영. 싱긋 웃으며 연심에게 눈인사한다.
> 3) 연심 역시 주영에게 싱긋 눈인사.
> 4) 여비서가 의자를 빼주면 어깨에 힘을 준 복부인이 자리에 앉는다.
> **여비서 : 앉으세요.**
> 가게를 둘러보는 복부인은 맘에 들지 않은 눈치다.
> **연심 : 이래뵈도 여기 전체 평수가 꽤 나와요.**
> 5) 연심 무리에게 막걸리 쟁반을 들고 다가오는 주영.

64) 영화의 내용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주관적인 감상평보다는 대본을 직접 인용하는 방법을 도입하였다. 감독의 대본을 인용하는 것은 각 대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장면의 묘사를 생략 없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비록 영화의 내용을 글로 적어 놓은 것이나 영화를 본 이후라면 오히려 그 이해도가 더 높아지는 효과도 있다. 본 연구에서 대본의 인용은 비록 길더라도 장면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감독이 정리, 분리한 씬(#scene)별로 인용하였다. 그리고 씬 별로 인용한 대본의 분량이 길어서 본 연구내용과의 분별성을 위해 인용박스 처리하였다.

연심 : 여기 다 허물고 새로 지으면 크죠.

복부인 앞에 막걸리 주전자와 잔을 내려 놓는 주영.

복부인 : 안 시켰는데.

주영 : 기본이에요.

6) 연심 : 우리 부동산에서 왔어요.

주영 : 아~

7) 연심 : 사장님, 가게 내 놓으셨죠?

주영 뭔가 알고 있는 듯 미소 지으며 쟁반을 들고 퇴장한다.

진철 : 에? 가게를? 누가?

손님에게 서빙 하던 변사장 멈칫하며 황당하다.

변사장 : 가게를.. 누가 내 놨다는 겁니까?

8) 연심 : 아드님이...

9) 황의 : 그거였구만... 그래서 왔어.

복부인 : 뭐야? 얘기 다 된 거 아니었어?

10) 연심 : (당황) 이 집이 요즘 인터넷에서 막 화제가 된 집이에요.

11) 복부인: 방송에 나왔어?

연심 : 방송 그건 돈만 주면 다 되는 거구요. SNS요. 요즘은 그게 더 끗발 있거든요.

12) 두 사람 대화를 주의 깊게 듣는 주영의 표정에 변화가 생긴다.

복부인 : 것도 다 알바야.. 영 모르네.

복부인 말에 신경 쓰이는 주영.

13) 연심 : 암튼 이거 최소 두 배는 올라요. 볼 것도 말 것도 없어요. 여사님.

복부인 : (미심쩍은) 그래도 영.

14) 어쩔 줄 몰라 하며 옆에 자리 잡고 앉는 연심.

연심 : 또 여기 막걸리가 얼마나 유명하다구요.

15)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 한 변사장.

16) 빈 막걸리 잔에 막걸리를 채워 넣는 연심.

연심 : 그리고 생수공장이랑 리조트랑 들어온다니까요. 이제 곧 학교도 들어와요.
여기 진짜 알짜배기에요. 여사님.

17) 진철 : 에이~ 안 들어 와요. 그거 안 들어 와~!

18) 연심 : (버럭) 어머, 진철씨!

유미 : (동시에) 진철씨!

19) 연심 : 아! 정말 왜 그래요! 아, 이상한 사람이야.. 정말..

20) 유미 : 학교는 돌아 와요. 아이들도 다시 돌아 올 거라고요.

21) 연심 : 그것 보세요. 여사님.

22) 여자 손님 : 여기 파전은요!

변사장 : 아, 아..예. 곧 나옵니다.

짜증 섞인 손님의 성화에 변사장 주방으로 다시 들어간다.

23) 연심 : (어쩔 줄 몰라 하며) 아후.. 목이 말라서..
(앞에 있는 잔을 단숨에 들이키는) 아우! 시원하다.

손수건으로 입을 닦아내며 위기를 모면하려는 연심.

연심의 미심쩍은 행동을 주시하는 복부인.

복부인의 부담스러운 시선을 회피하기 위해 액자를 바라보는 연심.

24) 연심 : (액자를 가리키며) 믿습니다!

복부인 연심이 가리키는 액자를 바라본다.

연심은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는지 경직된다.

복부인: 뭐야, 저게? 여기서 막걸리를 마시면 그리운 사람이

복부인: 돌아...(콧방귀)

25) 진철이 연심을 쳐다본다.

복부인 : 꼴깝!

26) 연심 진철에게서 눈을 떼지 못 하고 계속 마주한다.

복부인 : (비웃는) 아니 누구 기다려?

연심 : (깜짝) 예? (정신 차리며) 아니..예 뭐... 다들 기다리지 않나요? 누군가를? 드셔 보세요.

27) 복부인 : 싫어. 난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죽은 남편 살아 돌아올까 무섭다, 진짜.

28) 할매 : 죽은 남편 와서 니 좀 데꼬 가라 케라.

29) 복부인 : 할머니 지금 저한테 그러는 거에요?!

상황이 커질까 불안한 연심 복부인을 말린다.

30) 할매 : 하! 이 개종자야! 오데서 주디를 나불거리노! 이 개종자야!

31) 여비서가 복부인의 싸우는 소리에 복부인을 말리려 들어온다.

복부인 : 뭔 종자? 개종... (뒷목을 잡는) 아오..아오..

연심 : (짜증 섞인) 할머니.

32) 변사장 : 안팝니다.

33) 연심 : 네?

변사장 손님들에게 음식을 내려놓는다.

34) 변사장 : 가게... 안팝니다.

35) 변사장의 반응에 주영 뭔가 기분이 안 좋다.

연심을 바라보다 한숨을 쉰다.

36) 망연자실한 연심.

37) 연심을 노려보는 복부인.

복부인 : 일 이따구로 할 거야?

38)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복부인.

다급하게 일어나 복부인에게 사정하는 연심.

연심 : 여사님! 아..아니 저기요... 아니 이게 또 안 판다고 해야 대박 집 아니겠어요.

복부인 가려다 돌아보며 할매 일행들을 노려본다.

39) 일행들 복부인의 행동에 일제히 집중 된다.

40) 일행들에게 다가오는 복부인.

일행들을 보며 비웃는 듯 하더니 이내 할매를 노려본다.

복부인 : 니미 씨부럴!!!

41) 할매를 향해 욕을 하고는 빠르게 자리를 뜨는 복부인.

복부인 : 야! 계산해!

여비서에게 한 마디 남기고 먼저 계단을 내려가는 복부인.

그녀를 쫓아 급하게 퇴장하는 연심.

비서 다급하게 핸드백에서 만원 한 장 테이블에 내려놓고 뒤쫓는 여비서.

연심 : 아..저기 여사님, 여사님! 또 올게요. 여사님! 아우 정말... 기다려 보세요. 여사님!

42) 멀어지는 연심의 목소리. 할매 일행들 어이없다. 잠시 정적이 흐른다.

43) 맑은 하늘. 천천히 구름이 움직이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시간경과)

44) 피곤해진 듯 다시 들어서는 연심, 자리에 털썩 앉는다.

연심 : 여기 막걸리 좀 줘 봐요.

45) 연심을 노려보는 할매 일행들. 연심은 그들의 눈빛을 피한다.

46) 기분이 안 좋은 주영 막걸리 쟁반을 들고 주방에서 나온다.

47) 연심 앞에 주전자와 잔을 쌀쌀맞게 내려놓는 주영.

연심을 한 번 째려보고 돌아간다.
48) 연심도 주영을 곱게 보지 않는다.
잔에 막걸리를 채우고 벌컥 벌컥 마시며 갈증을 달래는 연심.
49) 연심을 노려보는 할매 일행들.
50) 속상한 연심, 속내를 털어 놓는다.
연심 :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51) 할매 일행은 여전히 기분이 좋지 않은 눈초리로 연심을 바라본다.
유미 : 절대 안 되요.
52) 유미를 째려보는 연심.
53) 진철 : 우리 제니 돌아 올 때까지... 절대 안 돼!
54) 연심 : 아드님 몇 주 뒤면 제대하잖아요.
55) 연심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반응하는 할매 일행들.
56) 연심 : 그리고 그 쪽도 제니, 제니 이제 좀 그만해.
8년이면 됐지. 돈 들고 튄 마누라를 뭐 하러 기다려.
경찰에 수배를 때려서 확 콩밥을 먹여도 시원찮은 판이구만.
어이구, 할머니는 누굴 기다리는 지 기억은 하시면서 그렇게 욕하시는 거에요?
어휴 나 정말 망신스러워서.. 정말!
여기 사장님도 그래. 아드님 돌아 왔잖아요. 그럼 됐지. 안 그래요?
아~! 할아버님. 뭐 솔직히 할아버님이야 뭐 돌아가시지 않았겠어요?
아니 그때가 언제야? 돌아 왔을라면 벌써 돌아 왔어야지.
정신이 온전한 분도 아니고... 아니 안 그래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냐구요!
돌아오기는 뭘 돌아와요! 이제 그만들 좀 기다려요. 정말! 어우, 열불 터져!
57) 묵묵하게 식기들을 정리하는 변사장. 연심의 말에 대꾸도 없다.
58) 화가 난 진철 벌떡 일어나 연심에게 씩씩대며 걸어 온다.
연심 앞에 선 진철 연심의 따귀를 때린다.
충격에 진철에게서 눈을 떼지 못 하는 연심.
59) 당황하는 할매.
60) 놀라 입을 다물지 못 하는 유미와 황의.
61) 진철을 바라보며 놀라는 주영과 변사장.
62) 진철 : 나쁜 년...
63) 비틀거리며 진철 퇴장하면 썰렁해지는 분위기.
뺨을 어루만지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 하는 연심.
64) 말문이 막혀 계속 깊은 숨을 내쉰다.[65]

그 동안 돌아올 거라는 막연한 기대만을 가지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덮어두었던 상처를 '연심'이 내뱉어버린 말에 의해서 상처가 터져버린 것이다. 그 결과 진철은 연심에게 욕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만다. 여기에서의 갈등은 집 나간 제니와의 갈등이 아니다. 진철이 8년간 덮어두었던 상처가 연심의 말에 의해서 다시 해결되

65) 허철, 영화 <돌아온다> 심의용 대본, #43. EXT. 막걸리 집_마당. 정오.
영화 대본의 인용에 있어 각주의 형태를 간단하게 씬 별로만 정리한 것은 이 대본이 정식으로 출판된 적이 없으며 허철 감독에게 개인적으로 받아 연구에 사용한 것이기에 출처와 씬 내용으로만 기재하였다.

지 않은 문제로 드러난 것이다. 연심이 진철에게 언어적 폭력을 구사한 것도 아니고 큰 소리로 모욕적이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저 있는 사실 그대로를 아주 객관적으로 보이는 태도로 진철에게 팩트체크로 들려준 것이다. 그러나 진철은 연심에게 언어에 의한 폭력을 당하였고 그것을 물리적인 폭력으로 갚아주는 결과가 되었다.

1-2. '유미'의 죄책감과 상실

폐교된 초등학교 선생님인 재일교포 '유미'는 군대 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 다음 달이면 군에서 제대를 하는 아들을 기다리며 사람들과 어울려 그 그리움을 달래고 사는 중이다. 그 사이 동네 폐교된 학교를 다시 살리려고 하는 데 그 이유는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돌아오면 유미의 아들도 무사히 돌아오리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미는 일본 유학 온 한 남자를 만나 사랑을 하였고 미래를 같이 꿈꾸었던 관계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남자는 갑자기 사라졌고 유미는 태어난 아이의 아빠, 그 사람을 찾아 다시 가족을 이루려고 한국으로 와서 아이 아빠를 찾아 헤매며 힘든 시간을 보내며 지냈다. 언젠가는 분명히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은 채 그렇게 버티던 어느 날 사고가 난다. 유미는 혼자서 아이를 목욕시키다가 그만 실수로 물에 빠뜨렸는데, 갑자기 아이가 그냥 죽어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금방 건지지 않았던 것이다. 너무 힘든 현실에 그만 그 마지막 끈을 놓아버리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유미의 아이는 그 후유증 때문인지 말이 어눌해 졌고 늘 마음의 짐을 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아이가 군대를 갔고 무사히 제대하여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엄마 유미는 하루도 마음이 편한 적이 없었으나 결국 기다리던 아이는 죽어서 돌아오게 되었다. 폐교된 학교를 복원하면 사라졌던 아이 아빠가 돌아올 것이라 믿었고 자신의 아이에게도 이런 아빠가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으나 모든 것이 끝나 버렸다

89. EXT. 막걸리 집_마당. 오후

1) 주영이가 낡은 지갑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는다.

변사장 : (V.O) 이게 뭐꼬?

2) 변사장 지갑을 열어보려 한다.

그 때 카운터로 다가오는 진철.

진철 : (변사장이 든 지갑을 뺏는) 어디 봐요.

3) 진철. 무리가 있는 테이블로 돌아 와 지갑을 열어 본다.

진철 : (사진을 꺼내보며) 스님?

연심 : 응? 뭔데?

연심, 진철 구경하며 깔깔댄다. 할매는 신경 안 쓰고 나물을 다듬고 있다.

황의 : 누구라고?

연심 : 스님 어렸을 때 사진인가 봐요. 한번 보세요.

할매 : 에고 치워라 마. 지랄 병 하지 마라.

황의 : 하하하하

4) 같이 웃던 주영. 인기척에 돌아본다.

5) 덤덤한 표정으로 들어서는 상복차림의 유미.

6) 단골들 주영의 시선을 따라간다.

7) 비틀거리며 초점 잃은 시선으로 다가오는 유미.

8) 주영과 변사장이 무슨 영문인가 싶어 놀라 다가간다.

9) 비틀거리다 결국 테이블에 쓰러져 기대는 유미.
진철, 연심 황의도 놀라서 다가온다.

10) 옆에 있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는 유미.

11) 여전히 초점 잃은 얼굴.

변사장 : 무슨 일... 있습니까?

12) 유미 : (겨우 입을 뗀다.) 학교 복원 하면 아이 아빠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들한테 너에게도 아빠가 있다고..
아빠가 여기서 살았다고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웃기죠? 제가 아들한테 유난 떤다고 생각하시는 거 잘 알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전.. 전 나쁜 엄마거든요..
일본 유학 온 우리 아이 아빠 만나서 사랑을 하고 아이도 갖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에 왔어요. 그 사람 찾으러...
그 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유미 : 우리 아이 목욕시키다가 손이 미끄러져 물에 빠졌는데..
아이를 건지지 않았어요.

13) 유미 : 아주 잠깐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때문인지 아이가 말이 어눌해요.
그 어눌한 아들이 군대에 가 있는 동안 하루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근데 돌아 왔네요..... 죽어서....

유미 액자를 노려본다.

14) 자리에서 일어나 액자로 달려들어 바닥에 내리 던지는 유미.
'와장창' 하며 액자가 산산 조각난다.
유미의 행동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15) 액자로 달려들어 안에 붙어 있던 한지를
[여기서 막걸리를 마시면 그리운 사람이 돌아옵니다.] 갈기갈기 찢는 유미.
할매가 달려들어 유미를 저지시키지만 이미 전부 찢겨졌다.

할매 : 야이.. 미친년아 지금 뭐하는 짓이고..

진철 : 할매! 할매...할매..!

그 사이 유미는 변사장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다.

유미 : (오열하는) 우리 아들 살려내! 우리 아들...
돌아온다고 했잖아!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다 거짓말이었다고요!

아무 말도 못하는 변사장.
깨진 유리를 개의치 않고 만지는 할매.
피가 나는 손으로 찢어진 종이를 어떻게든 붙이려 한다.
주영 할매 팔을 잡고 말리지만 금새 뿌리치고 유미에게 달려드는 할매.

할매 : 야이 미친년아! 너 뭐하는 짓이고.. 이 망할..개 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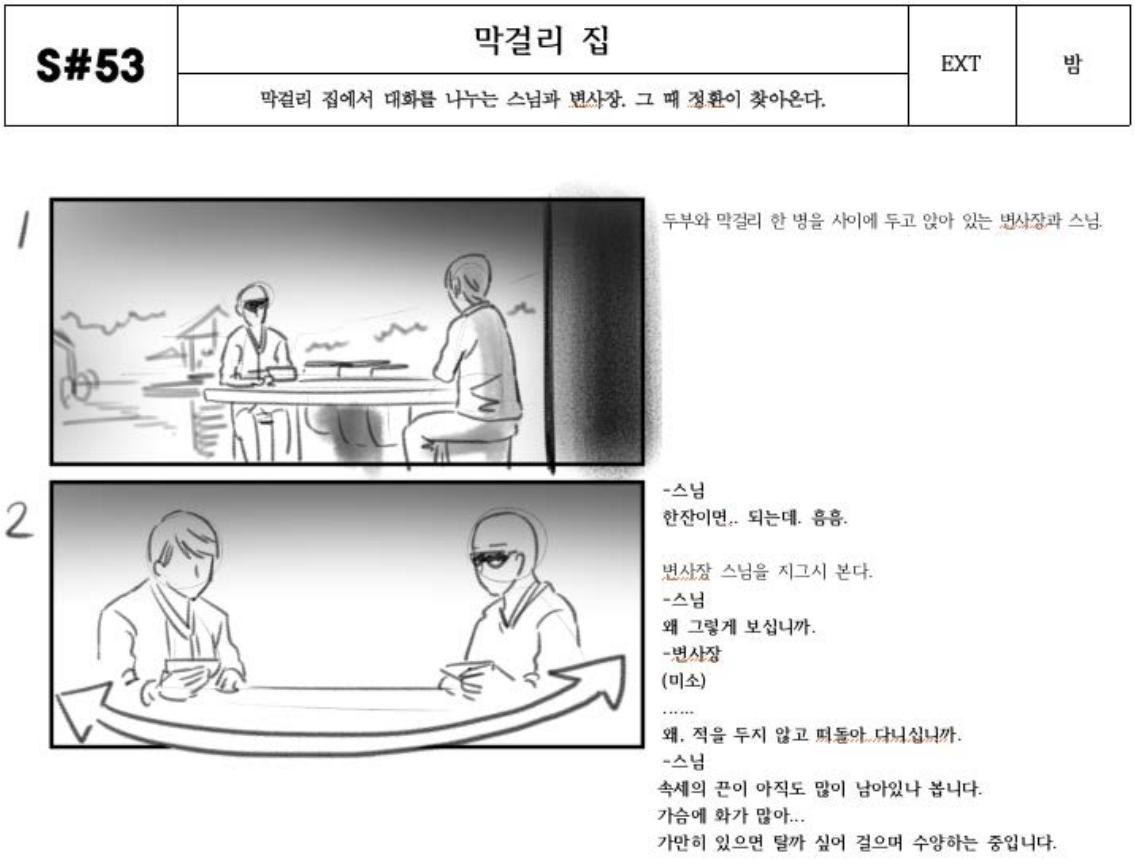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유미에게 밀쳐지는 할매.
그대로 쓰러져 의자 위로 쓰러진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쓰러진 할매.
주영 : 할머니, 괜찮으세요?
유미는 여전히 변사장의 멱살을 잡고 서러움을 퍼 붓는다.
연심과 황의가 간신히 말려 변사장에게서 떼어 놓는다.
연심 : 그만해요..좀!
16) 떨어진 스님 사진을 줍는 할매.
17) 양손으로 사진을 꼭 쥐고 뚫어지게 바라보며 떨리는 할매.
할매 : 창영아?! 아이고...애야~!
주영 : 할머니..누구요? 누구요? 누구? 왜?
할매 : 내 애! 우리 아 창영이...
주영 : 할머니~
할매 : 영아야~ 니 와 여기 있노? 애미 여 있는데.
주영 : 스님이에요~!! 스님.. 아들이 아니라 스님이에요!
할매 : 아이고! 창영아~ 니 와 여기 있노!? 애미 여 있는데~
18) 변사장 할매를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
할매 : (V.O) 아이고~ 야..와 야 와 여기 있노~!?
19) 할매의 행동이 이해 안가는 황의.
할매 : (V.O) 영아~ 내 새끼야~
20) 연심을 달래기 위해 안아주는 연심.
할매의 상태를 안타깝게 바라본다.
할매 : (V.O) 아이고~ 내 새끼야~ 애미 여 있는데...
21) 할매 : (사진을 어루만지며) 어이구 내 새끼.. 니 우짜 여 있노~?! 에고 내 새끼~[66]

여기에서 유미의 사연은 이미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이 끝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집착으로 인하여 과거를 움켜쥐고 현실을 부정하여 충돌을 가져와 고통을 안고가게 되었다. 그 현실의 고통은 한순간 자식의 존재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마음이 들게 하여 자신의 마음속에 한없는 죄의식을 심어두게 된다. 유미의 고통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다. 비록 아이의 아버지, 유미의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간 것에는 충격과 아픔을 받았겠지만 유미는 또 다른 집착으로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와 함께 떠나간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다. 본인의 의지로도 되지 않음을 알고도 미련 때문에 그것을 움켜지고 힘들어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힘든 시간을 아이에게 원인을 씌워 원망하는 마음이 가져온 행동은 아이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는 아이를 옆에서 지켜봐야만 하는 엄마인 유미에게 그대로 돌아왔다. 이 고통은 자신 스스로가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66) 허철, 영화 <돌아온다> 심의용 대본, #89. EXT. 막걸리 집_마당. 오후.

1-3. 스님의 과거 방황과 출가

이 영화에서 스님의 존재는 그다지 부각되지 않지만 주목을 끌기 충분하다. 그는 승복을 입기는 하였지만 바랑 대신에 등산용 배낭을 메고 등산화를 신고 다닌다. 얼굴을 가리려고 쓴 것인지 눈이 부셔서 쓴 것인지 늘 선글라스를 쓰고 이리저리 떠돌며 무언가를 찾아다닌다.



<그림 9> 영화 <돌아온다> 콘티북 #53

스님은 이렇듯 속세의 끈을 끊지 못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막걸리도 마시고 노래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지만 그는 <그림 9>의 장면[67]에서 변사장과 만나며 변사장이 마음의 짐으로 인하여 실체가 아닌 것과 갈등하고 있음을 한 눈에 알아보았고 또 후에 변사장이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는 항상 먼저 간 사람을 위해서 막걸리 한잔을 올리며 기도를 해 주었으며 늘 유

67) <그림 9>은 영화 콘티의 한 장면이다. 콘티는 영화의 장면을 글로 설명하는 것보다 효과적으로 그 분위기를 전달하는 힘이 있다. 여기서는 중요한 대사를 파악하기 보다는 스님의 분위기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인용하였다. 이 역시 정식으로 출판된 적이 없으며 허철 감독에게 개인적으로 받아 연구에 사용한 것이기에 출처와 씬 내용으로만 기재하였다.

쾌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가 출가하기 전까지의 삶은 굴곡이 심한 길을 걸어왔다. 비록 스승을 만나서 출가를 하여 승려가 되었지만 그는 아직도 어릴 적 헤어진 어머니를 찾으러 다니는 것이다.[68]

78. EXT. 막걸리 집_마당. 밤

1) 오랜만에 모든 멤버들이 모이기도 했지만 평소보다 더 왁자지껄한 분위기다.
무엇인가 중심으로 모두 웅성웅성 둘러싸여 있다.
황의 : 주영이도 돌아오고
연심이, 진철이 축하하고
한잔 합시다.
모두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막걸리로 건배하는 변사장과 단골들.
2) 오랜만에 흐뭇한 미소로 그들을 반기는 변사장.
3) 진철 : 저 근데 어디 갔다 온 거예요?
4) 주영 : 아...그게...
(잠시 머뭇하다)
친구가 죽어서요.
5) 당황하는 단골들.
황의 : 친구?
6) 변사장, 조금 신경 쓰이는 듯 주영을 쳐다본다.
7) 진철 : 친구 누구....?
연심 : 친구 누구라고 하면 자기가 알아?
8) 씁쓸하게 웃는 주영.
9) 눈치 없는 진철의 입에 쌈을 넣어주는 연심.
10) 스님 : (주위를 둘러보며) 근데 할머니가 안 보이십니다?
유미 : 그러네요?
11) 연심, 진철도 신경이 쓰였는지 돌아본다.
12) 유미 : (스님을 보며)
근데요 ...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스님은 왜 스님이 되셨는지 물어 봐도 될까요?
13) 스님의 이야기가 궁금한 변사장 스님에게 집중한다.
스님 : 저 말입니까?
14) 스님 : (모두의 시선을 느끼더니 하는 수 없이) 아.. 순경을 했지요. 처음엔...
15) 모두 의외라는 반응이다.
진철 : 에이.. 조폭 아니구요?
모두 : (웃는다.)
16) 스님 : 근데, 사고를 쳐서... 그때 출가를 했습니다.
한 7년 중노릇하다가.. 그만 뒀습니다.
그리고 이종격투기 6개월인가 했고...
17) 황의 : (깜짝) 이종격투기요?
18) 공손하게 몸을 곧추 세우는 진철.
스님 : (V.O) 네~

68) 출가한 스님이 헤어지거나 자신을 버렸던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찾아다닌다는 설정은 불교나 스님을 다루는 한국영화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패턴이다. 장선우 감독의 영화 <화엄경>에서 선재 또한 자신을 버린 어머니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난다.

19) 스님 : 그거 그만 두곤 원양어선 또 한 1년 탔나?
20) 스님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변사장.
스님 : (V.O) 뭍으로 다시 들어오고 난 후엔
21) 스님 : 알콜 중독으로 노숙자도 됐다가...
지금의 스승님을 만나서 다시 출가했습니다.
22) 진철 : 에이~~ 뻥치시네!
23) 스님 : (둘러보고는) 티가 났습니까?
24) 모두 허탈하다는 듯 이내 깔깔대며 웃어댄다.
유미 : 뭐예요~ 농이에요? 스님~
황의 : 그러지 말고 진짜 얘기 좀 해 주세요.
25) 스님 : (진지하게)
어머니 찾으러 다니는 중입니다.
26) 스님의 말에 모두 아무 말을 못 하고 경청한다.
스님 : 그러다 여길 오게 됐고..
27) 스님 : (액자를 보며) 저 액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막 뛰더라 이 말 입니다.
돌아온다. (웃음)
28) 약간 취했는지 눈이 풀린 주영. 씁쓸한 미소.
연심 : 돌아온다.
29) 모두 막걸리를 들며 '돌아온다'를 말한다.
30) 주영 : (조금 취한)
누구보다 강한 그리움이 쓴 글이니까요.
31) 술을 마시던 스님과 유미 잔을 든 채로 주영을 주시한다.
32) 진철은 말 없이 주영을 바라보고 연심은 쓴 웃음을 보인다.
33) 주영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황의.
34) 깊은 심호흡을 하는 주영, 잠시 생각을 하는 듯하더니 이내 자리를 뜬다.
주영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는 변사장.
35) 의아한 듯 보는 사람들.[69]

출가를 했지만 아직 속세의 인연을 잊지 못하는 스님의 아픔은 어릴 적 헤어진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지워내지 못하였다. 그는 다른 사람의 마음의 병이나 번뇌의 근원에 대한 조언을 할 수는 있었지만 자신의 번뇌는 계속 움켜쥐고 있었던 것이다.

1-4. 변사장의 좌절과 가족의 해체 그리고 아들의 죽음

마지막으로 살펴 볼 이야기는 영화 줄거리의 주된 흐름이자 주인공인 변사장 가족 간의 갈등이다. 울주군 상북면 어딘가에 있는 전통주점 막걸리집을 운영하고 있는 변사장은 홀로 몇몇 단골손님들을 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변사장은 다른

69) 허철, 영화 <돌아온다> 심의용 대본, #78. EXT. 막걸리 집_마당. 오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혼자만의 비밀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집 나간 아들과 잃어버린 아버지에 대한 사연이었다. 변사장이 운영하는 막걸리집에는 하나의 액자가 걸려 있는데 거기에는 '여기서 막걸리를 마시면 그리운 사람이 돌아옵니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그 막걸리집에 늘 오는 단골손님들은 모두 각자의 그리움을 마음에 품으며 이 곳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다.

먼저 살펴 볼 갈등은 변사장과 그 아들 정환과의 갈등과 대립 그리고 그 해결이다. 변사장은 아들 정환과 갈등을 빚는데 그 이유는 아들의 어린 시절과 관계가 있다. 어린 정환은 처음부터 아버지 변사장과 함께 산 관계가 아니었다.

> **73. EXT. 막걸리 집_변사장 꿈(과거).아침**
> 1) 변사장과 할아버지가 대치하며 말다툼 하고 있다.
> **할아버지 : 육년 만에 와가 그게 할 말이가.. !**
> **아, 연락이 돼야 묻든지 말든지 할 거 아이가.**
> **갸는 오매불망 니만 기다리다가 자만 남겨 놓고 가뻿다.**
> **아를 갖게 했으면 응당 책임을 져야 그게 사내지.**
> **그라고도 니가 남자가.. 그라고도 니가 애비가 말이다.**
> 어린 정환 평상에 누워 할아버지와 변사장의 대화를 들으며 울먹인다.
>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울음을 겨우 참아내는 어린 정환.
> **변사장 : (V.O) 내한테 그런 말 한 마디도 없었고 헤어진지도 오래 됐다고요.**
> **아버지가 받았으니까 아버지가 책임지소. 내는 모릅니다.**
>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훌쩍이는 어린 정환.[70]

변사장에게 아들 정환은 자신의 친자인지 아닌지 확인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환의 어머니는 오래 전에 변사장과 헤어진 여자이며 그 이후로도 정환의 출생에 대해 말한 적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정환을 변사장의 아버지가 혼자만의 결정으로 받아 들였고 거기에 변사장은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변사장의 아버지 입장에서는 6년 동안이나 연락이 없는 자신의 아들 변사장과 갑자기 나타나 손주라고 맡겨진 정환을 내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린 정환은 그토록 그리워하던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부정하며 자신을 살펴주는 할아버지와 언쟁을 벌이는 것을 누구보다도 슬프게 받아 들였을 것이다. 변사장은 바로 여기에서 자신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아들 정환에게 잊지 못할 상처를 입히게 된다.
변사장이 자신의 아버지와 대립을 하며 아들 정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어린 아들의 존재를 부정하며 받아들이지 못하고 원망의 말을 뱉어내었던 변사장은 어쩌면 어린 아들이 듣고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모른다.

---

70) 허철, 영화 <돌아온다> 심의용 대본, #73. EXT. 막걸리 집_변사장 꿈(과거).아침.

하지만 어린 아들에게는 그 원망의 말이 비수가 되어 평생을 가는 상처가 되어 남아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서는 직접 대놓고 한 말은 아니지만 결국 아무 선택권이 없었던 어린 아이에게 말로 인한 상처를 주고 만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살펴 볼 변사장의 상처와 아픔은 바로 변사장과 그의 아버지와의 문제다. 변사장의 아들 정환은 변사장을 살인자라 부르며 변사장이 자기 아버지인 할아버지와 어린 자식 즉 자신을 갖다버렸다고 한다.

51. EXT. 절벽 앞. 새벽

1) 힘겹게 절벽 앞에 다다르면 변사장이 그간 쌓은 돌탑이 보인다.
들고 온 지게에서 묵직한 돌들을 하나 둘 꺼내 탑 위에 정성스레 쌓는 변사장.
2) 가쁜 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돌을 올린다.
3) 가져 온 돌들을 다 쌓고 나면 숨을 고르며 돌탑을 주시한다.
4) 돌탑 앞으로 걸어가 털썩 주저앉는 변사장.
5) 수풀 사이로 주영이 고개를 내밀어 변사장의 위치를 확인한다.
살금살금 변사장이 앉아 있는 방향으로 걸어나가는 주영.
실수로 발을 헛딛고 휘청인다. 놀라는 주영.
6) 변사장, 돌아보면 주영이 떨어져 쭈뼛하게 서있다.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 담담하게 주영을 보는 변사장.
눈이 마주친 후 천천히 다가와 잠시 변사장을 지켜보다 옆에 앉는 주영.
둘 사이에 묘한 정적이 흐른다.
7) 변사장 : 아버지를... 내가.. 버렸다. 내가 그런 놈이다.
치매까지 걸린 노인네를 목욕탕에 혼자 넣어 놓고...
...(말문이 막힌다.)
그 할아버지를 정환이가 진짜 좋아했었는데...
마.. 다 들어 알겠지만...
8) 주영 깜짝 놀라 고개 들어 변사장을 바라본다.
9) 변사장 : 우연히 정환이 소식 듣고 찾아 간 적이 있었지.
니랑 같이 분식집 하는 모습을 보는데...
내는 없어도 되겠더라..
10) 당황해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주영.
변사장 : 그렇게 다시 웃게 됐다믄 마..그라믄 된기다. 그케 생각했다.
11) 변사장 : 고맙데이...
니가 온 후로 아버지도... 정환이도...
꿈속에서 웃으며 나와주네.
12) 변사장 웃옷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도장을 꺼낸다.
13) 도장을 주영에게 건네주는 변사장.
변사장 : 받아라...
14) 도장과 변사장을 번갈아 보며 고민하던 주영.
15) 도장을 건네 받는다.
변사장 : 주영아.. 할아버지 곧 돌아오실기다. 그때까지만 ...

그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정환이에게 말해줄래?

16) 변사장을 보며 뭔가 말하려다 망설이는 주영.
도장을 바라본다.

17) 주영과 변사장 앞에 넓게 펼쳐진 녹색 빛 풍경.
잔잔한 바람과 새소리가 어울어 진다.[71]

변사장은 치매 걸린 자신의 아버지를 어떤 이유로 인해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으나 결과적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책임지고 보살피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감에 자신이 '버렸다'는 말을 하는 것이었다.

세 번째로는 변사장 아들의 죽음에 관한 것이다.

S#47	막걸리 집_마당	EXT	밤
	단골들에게 정환이가 왔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변사장. 그 말에 당황하는 주영.		

<그림 10> 영화 <돌아온다> 콘티북 #47

71) 허철, 영화 <돌아온다> 심의용 대본, #51. EXT. 절벽 앞. 새벽.

변사장의 아들 정환은 영화에서 아버지인 변사장과 언쟁을 벌이며 아버지를 원망하고 폭언을 퍼붓고 변사장에게 그 곳을 떠나라고 한다. 심지어 변사장의 꿈에까지 나타나서 한바탕 언쟁을 벌이기도 하는데, 변사장은 성인이 된 아들 정환을 실제로 본 것은 '주영'과 함께 분식점을 하던 모습을 먼 발치에서 본 것이 다였다.

변사장의 아들 정환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는데 오직 변사장의 눈앞에만 나타나서 변사장과 갈등을 빚는 것이었다. 이는 변사장의 죄의식이 만들어낸 허상 또는 극 중 귀신이 되어 나타난 아들로 볼 수 있는데, 변사장과 아들 정환과의 갈등은 변사장의 마음 속 번뇌를 영화적 표현으로 재현한 장면으로 봐야한다. <그림 10>을 보면 영화에서는 이미 정환의 유골함을 가지고 주막을 찾은 '주영'이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당황하는 장면에서 이를 암시하고 있다.

80. EXT. 막걸리 집_마당. 계속. 석양.

1) 조용히 술을 마시는 사람들.
그때, 주영이 유골함을 들고 나온다.
의아한 듯 보는 사람들. 고개 푹 숙인 채로
주영 : 아버지.
모두 당황하며 말을 잇지 못 하고 주영을 주시한다.
황의 : 아버지?? 무슨 아버지?
주영 : 늦어서 죄송해요...
주영의 의미심장한 말에 불안하다.
2) 천천히 일어나 주영에게 다가간다.
변사장 : (유골함을 한 번 보고는) 이게 뭐꼬?
주영 유골함을 든 채 아무 대답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3) 고개를 들어 변사장을 한 번 보고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다.
4) 주영을 바라본다.
5) 쉽게 대답 못 하고 눈물을 흘리는 주영.
주영 : (떨리는) 저...정환이요.
6) 충격 받은 변사장. 눈에 초점이 없다.
7) 단골들 모두 놀라 입을 다물지 못 한다.
8) 울음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무는 주영.
초점을 잃은 변사장 눈에도 눈물이 차오른다.
주영 : (울먹이는) 아버지 얘기는 그렇게 끔찍해 하면서도..
술에 취하면 어렸을 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알았어야 했는데..
그게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걸 알았으면.
그렇게 냅두지 않았을 텐데..
9) 주영 : 죄송해요... 늦게 와서... 정말 죄송해요.
10) 유골함을 한참을 바라보며 쉽게 인정하지 못 하는 변사장.
11) 한 발 다가서서 떨리는 손으로 유골함이 담긴 보자기를 풀어본다.
12) 시선이 멈춘 채 멍하니 보자기를 마저 푸는 변사장.
13) 유골함 보자기를 열면 할아버지와 포즈를 취하며 찍은 해맑은 어린 정환의 사진.
14) 믿을 수 없는 사실에 휘청 거리는 변사장.

15) 주영이 들고 있던 유골함을 건네받는 변사장의 손.
16) 그제서 참았던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진다.[72]

결국 이 갈등의 국면은 '현재의 변사장'이 '과거 미흡했던 변사장' 자신과의 갈등을 빚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영화 <돌아온다>에서 나타난 네 명의 등장인물이 가진 에피소드를 통해 각각의 갈등의 유형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진철'은 집 나간 외국인 아내에 대한 '집착'이 그를 술에 빠져 살게 하였고, '유미'는 자신의 부주의로 장애를 가지게 된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이 그녀를 고통에 빠지게 하였다. 스님은 출가를 하였지만 속세의 인연으로 인한 '번뇌'를 떨치지 못하였고, 변사장은 자신의 문제를 회피해 버린 결과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한 갈등이 그를 계속 흔들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영화에서 위의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한다.

2. 영화에서 표현된 불교적 치유양상

<그림 11> 영화 <돌아온다> 속 스님 예불 장면

영화 <돌아온다>에서는 스님 캐릭터가 등장하는 것 외에는 그다지 종교적 색채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곳곳에 내재되어 있는 불교적 성향은 전체 이야기를 아우르고 있다.

72) 허철, 영화 <돌아온다> 심의용 대본, #80. EXT. 막걸리 집_마당. 계속. 석양.

우선 영화 <돌아온다>의 배경이 바로 원효의 발자취가 그대로 느껴지는 울주군 일대라는 것이다. 허철 감독은 촬영지 선택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주었는데 그가 원래부터 이 지역의 특징을 알고 선택한 것은 아니었다.

> "처음엔 몰랐는데 원효의 이야기부터... 촬영지 근처의 산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찰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근처 가지산 신불산 등이 백두대간의 최남단 밑자락이고 옛날 천주교 신자들, 일제 강점기의 농민 의병들, 한국 전쟁 시 빨치산 등 수많은 사람들의 혼령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달래주기 위함이었다는 ... 슬프고 가슴 아픈 사연들이 산 전체를 감싸고 있는 곳이라 <돌아온다> 영화의 배경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73]

원효는 사미(沙彌)라 부르던 시절 울주의 영취산(靈鷲山)에 은거하던 고승 낭지(朗地)스님에게 배운 적이 있었으며 영취산 서북쪽의 반고사(磻高寺)에서 머문 적이 있었다. 지금은 언양 반구대 근처에 반고사 터가 있다.

허철 감독이 울주군 일대를 촬영지로 선택하게 된 이유는 원작 연극 <돌아온다>의 '약장사 부부'의 이야기가 영향을 끼쳤으리라 생각한다. 연극에서 귀신으로 등장하는 약장사 부부는 일제 강점기에 전국을 떠돌며 남자는 재주를 넘고 여자는 약을 팔다가 서로 이별하게 되었다가 죽은 후에도 계속 서로를 찾아다니는 내용으로 나온다.[74] 허철 감독은 죽음으로 맞이한 이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울주군 일대의 많은 사찰이 세워진 이유에서 찾게 된 것이다.
또한 허철 감독은 불교신자로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 인하여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참선과 템플스테이 등의 체험도 몇 번이나 했던 것으로 말하고 있다.

> "원래 불교신자입니다만 부모님이 진정한 신자이시고 (…) 난 절에 가는걸 청소년 시절부터 좋아했고 (…) 법당에 앉아 참선하는 걸 즐겼고.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엔 방학 특히 겨울방학에 최소 한 달 이상 북한산에 있는 노적사와 삼천사에서 묵었습니다."[75]

허철 감독의 이러한 불교 체험은 영화에서 중요한 갈등해결 방법으로 사용되는데, 그는 불교의 영향을 표현하기 위해 영화에서 잠시지만 사찰 장면을 넣었고 스님 배역에 비중을 두고 캐스팅하였다고 하였다.

---

73) 허철 감독과의 인터뷰 - 영화 촬영지 선택에 대한 질문 중에서.
이 인터뷰는 허철 감독과 본 연구자만의 인터뷰이다. 어떤 언론하고도 한 적이 없어서 기록이 남거나 출판된 적이 없다. 이에 인터뷰의 인용 각주는 어느 내용에서 나왔는가를 밝히는 정도로만 기재하였다.
74) 선욱현, 『돌아온다』,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2018.
75) 허철 감독과의 인터뷰 - 불교에 대한 질문 중에서.

<그림 12> 영화 <돌아온다> 속 사찰 장면

영화에서 스님은 늘 막걸리 한 잔을 죽은 자를 위해서 올린다. 그리고 합장하며 '나무아미타불'이라며 기도를 한다. 기도라는 행위가 불교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곧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고통의 근원을 깨닫고 그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의 표현이다.

스님이 먼저 간 자에게 막걸리 한 잔을 올리며 기도를 하는 것은 자신의 복을 비는 기복신앙(祈福信仰)과는 그 궤를 달리한다. 불교에서의 기도에 대하여 원효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주문(呪)이라는 것은 기원[하는 특별한 언어]이니, 마치 '세간의 신령스런 주문'(世神呪)에 '큰 위력'(大威力)이 있어서 주문을 외워 신에게 빌면 불러 오지 못하는 복福이 없고 물리치지 못하는 재앙(禍)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지금 이 '크나큰 지혜로 [고해苦海를 건너 피안彼岸에] 도달함'(摩訶般若波羅蜜)도 그와 같아서 앞에서 말한 '네 가지로 [도달하여] 얻는 능력'(四德)을 모두 갖추어 '크게 탁월한 능력'(大神力)이 있으니, 안으로는 갖추지 못하는 능력(德)이 없고 밖으로는 벗어나지 못하는 환난(患)이 없다. 만약 '정성을 다 하는 마음'(至誠心)으로 이 [주문의] 언어(名句)를 외우면서 모든 부처와 보살과 '신적 존재'(神人)들에게 우러러 기원하면 구하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으니, 이러한 뜻에 의거하기 때문에 주문(呪)이라고 부른다. 마치 천상세계[의 신神] 제석帝釋이 이러한 [주문의] 언어를 외워 아수라阿修羅의 군대를 물리친 일과 같은 것이 이 [경전]에서 말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다."[76]

---

76) [H1, 656a23~c5; T34, 994b3~27] : "呪"者禱也, 如世神呪, 有大威力, 誦呪禱神, 福無不招, 禍無不却. 今此摩 訶般若波羅蜜, 亦復如是, 具前四德, 有大神力, 內卽無德不備, 外卽無患 不離. 若至誠心, 誦此名句, 仰禱諸佛菩薩神人, 隨所求願, 無不成辦, 由 是義故, 說名爲呪. 如天帝釋, 誦此名句, 却修羅軍之事, 此中應說. ; 번역은 박태원, 원효학토대연구소, 『금강삼매경론 하』, p.211 참조.

원효가 살았던 신라 사회에는 불교 공인 이전부터 무속신앙이 있었으며 불교와는 상호 공존적 영향을 주고받아 발전하여 왔다. 원효가 '세속의 신주에도 위력이 있다'라고 한 것은 바로 무속신앙 등을 염두에 두고 말했음을 알 수 있다.[77]

S#53	막걸리 집	EXT	밤
	막걸리 집에서 대화를 나누는 스님과 변사장. 그 때 정환이 찾아온다.		

-변사장
진철의가 비밀이라면서.
-스님
막걸리가 없어졌다고 합디다.

변사장 "예"하며 마당으로 나온다. 스님은 막걸리를 보며
-스님
해원스님이 오셨는가 봅니다.

-변사장
.....
제 아버지 때문에 놓으신거죠?
-스님
.....
언젠가 막걸리 맛이 그리우시면 돌아오시겠지요.

<그림 13> 영화 <돌아온다> 콘티북 #47

<그림 13> 장면의 대사를 살펴보면 스님이 막걸리를 올리고 기도를 한 것은 무속신앙 행위로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는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려는 의미로 먼저 간 자를 기리며 막걸리를 올리고 기도를 하였던 것이다.

변사장은 자신의 죄를 반성하는 방법으로 돌탑을 쌓는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돌덩이를 한 짐 지고 산에 올라 마음의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의식을 치르는 것이다. 불교에서 탑의 의미는 결국 붓다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지만 변사장이 산꼭대기에 돌탑을 쌓는 것은 여러 가지 중의적 표현으로 묘사하였다. 돌탑을 쌓는다는 것은 변사장의 그리움이 하나씩 쌓이는 것이며, 산에 올라 돌짐을 내려놓는 것은 그 그리움을 내려놓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또한 변사장이 산에 올라 내려놓은 것은 과거 아들과 아버지에게 저지른 잘못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결국 그 돌탑은 아들 정환의 무덤이 되었다. 이것은 그리움과 집착으로 상징되어온 아들 정환을 내려놓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77) 김상현, 『역사로 읽는 원효』, p.52, 고려원 1994.

<그림 14> 영화 <돌아온다> 속 변사장이 돌탑 쌓는 장면

영화에서 스님은 마음의 짐으로 인해 고통 받는 변사장과에게 번뇌의 근원을 찾아 해결하라는 조언을 한다.

"도망가지 말고 들어와 부딪혀 보시지요."

이는 곧 변사장이 가지고 있는 갈등의 문제 근원을 바로 보라는 것이다. 변사장은 치매 걸린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과 아들 정환을 부담스러워하며 원망했던 자신의 과거 잘못을 혼자서 움켜쥐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돌짐을 지고 돌탑을 쌓는 수행을 하고 있었지만 아직도 그의 마음속에서는 아들 정환과 대립하며 다투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변사장이 아들 정환과의 언쟁으로 부딪히는 장면에서는 아들 정환이 변사장의 마음이 만들어낸 실체 없는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변사장에게 헛된 다툼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런 조언을 한다.

"무거우면 내려놓으면 됩니다."
"다 부질 없습니다. 그런 원망"

변사장이 자신의 죄의식을 움켜쥐고 고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을 도와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의 장면은 변사장이 드디어 자신의 죄의식의 근원에 접근하여 '드러내기'를 하게 되는 계기를 보여준다. 치매에 걸린 아버지와 갑자기 나타난 아들로 인하여 변사장 자신이 가졌던 마음에 대한 솔직한 고백을 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돌아선 것이다.

91. EXT. 사찰. 새벽녘

1) 우두커니 서서 마을을 내려다보는 부처상 밑으로 스님과 변사장 뒷모습.

변사장 : (V.O) 아버지가 치매 걸리셨다는 전화를 받았던 날도...

일하던 호텔 헤드쉐프로 승진이 됐던 날이었어요.

2) 변사장 : 매 순간 지 발목을 잡았십니더. 가족이라는 게 지한테는 짐일 뿐이었습니다.

그걸 아들놈이 느끼지 못 했을 리가 없죠.

3) 스님과 변사장 앞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스님 : 뭐가 보이십니까?

변사장 : 아무 것도 안 보입니다.

스님 : 언젠간 다 걷힐겝니다.

4)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 반성하는 변사장.

스님 : (V.O) 다시 오거든 후회 없이 용서를 구하세요.

변사장 : 다시... 돌아올까요...

5) 스님 : 듣고 싶은 얘기가 아직 남았다면... 올 겁니다.

6)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변사장.[78]

영화 <돌아온다>에서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과 깨우침이다. 영화 <돌아온다>에서 변사장은 어린 아들에게 뱉었던 원망의 말과 자신의 사회생활에 대한 부담감에 대한 핑계로 자신의 아버지와 아들에게 원인을 돌려버렸고, 결국 그것은 변사장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번뇌와 고통으로 남았다. 변사장은 이제 성인이 된 아들 정환과 다투며 원망을 듣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며 자신의 죄지은 모습을 보게 되고 마침내는 아들 정환의 죽음을 알게 된다. 결국 아들 정환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며 변사장은 마음의 지옥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이에 대해 허철 감독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모든 번뇌와 자신의 죄의식과 후회 미안함 등 모든 심적 고통의 근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고, 결국 문제의 해결은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즉 마음의 병은 자신의 마음에서 온다는 것이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인간은 결국 천근만근의 고뇌를 무겁게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영화 속의 아들은 결국 영화적으로 '변사장'이 스스로 만든 잘못이 아들의 형태로 보여진 것이고 스스로에게 잘못을 구하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나서야 해방될 수 있다는 표현을 한 것 입니다. 결국 불교적인 해결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79]

영화에서 변사장은 성인이 된 아들 정환과 갈등이 빚어지는데 다투던 아들 정환은 이미 죽은 후였다. 허철 감독은 성인이 된 아들 정환과 변사장의 다툼을 표현했지만 정환은 변사장의 죄의식이 만들어낸 허상이었으며 마침내는 본인 스스로 잘못을 구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과정을 그린 것이다.

---

78) 허철, 영화 <돌아온다> 심의용 대본, #91. EXT. 사찰. 새벽녘.

79) 허철 감독과의 인터뷰 - 영화에서 문제해결 방법으로서의 불교에 대한 질문 중에서.

마음의 죄업을 다루는 또 다른 한국영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80]에서는 절을 떠난 후 십여 년 만에 불륜을 저지른 아내를 죽인 살인범이 되어 산사로 도피해 들어온 남자 '김호령'의 분노와 고통을 다스리는 방편으로 반야심경 새기기를 보여주었다. 김기덕 감독은 이 영화에서 어린 시절 동자승이었으나 사랑을 좇아 환속했고 아내를 죽인 범죄자가 되어 돌아온 '김호령'에게 반야심경(般若心經)을 절 바닥에 새기는 작업을 통해 분별, 망상을 소멸시켜 청정한 마음을 찾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김호령은 반야심경을 새기면서 분노를 가라앉히고 마음의 평화를 찾고 자신이 저지른 죄과(罪過)를 치른다.

영화의 전체적인 스토리는 인간의 죄업에 대한 반성과 업보 그리고 노스님의 구원을 받았던 동자승이 세월이 흘러 노인이 되어 자신도 또 다른 동자승을 맡게 되는 윤회의 인연을 보여준다. 그러나 유응오는 이 영화의 말미가 불가의 전통과 상반된다고 보고 있다.

> "붓다는 깨달은 후 저잣거리로 향했다. 산으로 가는 불상을 짊어지고 가는 주인공, 그의 모습은 골고다 언덕을 넘어가는 예수처럼 보인다."[81]

영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에 대하여 『영화로 떠나는 불교 여행』의 저자 월호는 중국 선종의 이조(二祖) 혜가대사와 삼조(三祖) 승찬의 문답을 예로 들으며 죄의식에 대하여 가르침을 주고 있다.

> 이조 혜가대사에게 승찬이 물었다.
> "제자는 몸에 풍병이 걸렸으니, 청컨대 화상께서 죄를 참회케 해주소서."
> 대사가 말했다.
> "죄를 가져오너라. 참회케 해주리라(將罪來 與汝懺)."
> 승찬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 "죄를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가 없습니다(覓罪了 不可得)."
> 대사가 말했다.
> "그대의 죄는 다 참회되었다. 마땅히 불(佛) 법(法) 승(僧) 삼보(三寶)에 의지해 살도록 하라."[82]

---

80) 영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은 한국영화 중에서 서구가 바라보는 불교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고스란히 답습하는, 즉 복제 오리엔탈리즘적의 대표적인 영화이다. 영화의 제재는 불교를 차용했지만 그 내용은 기독교적 표현으로 보인다. 영화 평론가 정성일은 김기덕 감독의 영화 특징으로 여성에게 매우 폭력적이면서 그 죄의식에 힘들어하는 남자 주인공의 캐릭터를 그린다고 평한 바 있다. 유응오는 이는 곧 기독교의 원죄와 구원이라는 인과관계의 공식을 떠올린다고 보고 있다. 영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은 공간적 배경은 절이지만 성경의 원죄 모티브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영화 속 여자는 하와가 아담을 꼬였던 것처럼 남자주인공을 유혹하고, 이로 인해 사내는 성역인 절을 떠난다.

81) 유응오, 「무늬만 불교인 봄 여름 가을 겨울그리고 봄」, 『영화, 불교와 만나다』, p.232, 아름다운 인연, 2008.

<그림 15> 영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에서 반야심경 새기는 장면

문둥병에 걸려 스스로 죄 많은 인생이라 자신을 책망하던 제자에게 죄를 가져오라는 혜가대사의 답변은 제자가 찾던 죄는 결국 실체가 없는 것이고 그저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니 이제 일체의 번뇌를 끊고 삼보에 귀의하라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영화 <돌아온다>에 나타난 불교적 치유양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관객이 영화를 감상함에 있어서 앞서 언급한 정도만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 상당한 치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인간사에 비슷한 양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만큼 공감과 치유의 정도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현실이다. 김기덕 감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에서와 같이 직접적 불교의 가르침에 대한 표현은 종교적 공감대가 없으면 관객에게는 그저 낯선 종교이야기가 되어 버리고 마는 것처럼 불교의 마음공부나 깨우침을 일반 관객에게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분명 불교의 수행방법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효과가 있음에도 누군가의 해설이나 가이드가 없는 영화감상은 그 치유효과를 보장할 수 없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종교로서의 접근이 아닌 철학적 접근이 필요해지는 것이다.
문제의 해결을 위한 근원에 대한 연기적 사유를 바탕으로 하는 '치유학'으로의 접근은 동일 종교여부를 떠나 그리고 발생한 문제의 유사 여부를 떠나 스스로의 치유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방법적 접근으로의 화쟁의 도입과 그로써 얻을 수 있는 치유철학의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해보도록 한다.

---

82) 월호, 『영화로 떠나는 불교 여행』, p.116, 이치, 2009.

Ⅴ. 원효의 치유철학

신라의 고승이자 설총의 아버지로 알려진 원효는 승려이면서 파계승이었으며 후에 스스로를 거사로 칭하며 기이한 행적과 적극적 사회 참여 등이 기록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원효는 1986년 드라마<원효대사>[83]로 만들어졌으며 한승원의 <소설 원효>와 이광수의 <원효대사> 등 소설로도 발표될 정도로 종교를 떠나 일반인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원효의 '화쟁'은 2020년 정부와 의료계의 의대 정원 확대 문제로 생긴 대립이나 4대강 문제, 쌍용자동차 노사문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문제, 제주 강정마을 사태 등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갈등 해결을 위해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중재하는 모습으로 오늘날 다시 소환되고 있다.[84]

이렇듯 이제 화쟁은 갈등과 대립에 있어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다툼의 근본원인을 제거하여 갈등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도구로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의 위원장 도법스님은 2014년 2월 겨울생명평화학교 설법에서 "최고의 판결이 최악의 타협보다 못하다"며 잘잘못을 가리는데 있어 승패를 결정짓거나 상대를 굴복시키는 식의 해결보다는 화쟁을 통한 갈등의 해소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화쟁은 모호한 태도와 명확하지 않은 중재라는 모습으로 화쟁의 정체성마저 의심하게 하였다.

미디어 붓다 이학종 기자는 「화쟁위원회가 아쇼카선언 비판에 소송? 화쟁이라는 용어마저 오염시킬 작정인가!」라는 칼럼에서 화쟁위원회에 대한 비판을 제기한 팔리문헌연구소 소장 마성스님에 대한 법적 조치를 언급한 화쟁위원회의 태도를 꼬집어 꾸짖고 있다.

> "아쇼카 선언에 대해 강한 비판의 글을 언론에 기고하고, 페이스북에 다소 격한 내용의 글을 올린 마성 스님(팔리문헌연구소 소장)에 대해 화쟁위원회가 명예훼손 등의 명목으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전해와, 조만간 아쇼카 선언을 둘러싼 논쟁이 법정 소송으로 번지게 될 전망이다. 화쟁위원회가 소송을 벌이는 그야말로 '소가 웃을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게 된 것이다."[85]

---

83) 원효대사 8부작, 드라마, KBS, 1986 원효대사가 대중매체에 등장한 역사는 오래되었다. 1962년 장일호 감독의 영화 <원효대사>를 시작으로 KBS 전설의 고향에도 해골물 에피소드로 등장한 적이 있다. 1979년 KBS주말드라마 <성사의 길 맥 - 원효대사>을 거쳐 86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8부작 드라마로 다시 만들어졌다.

84) 조현, 「조계종 화쟁위 "정부-의협 갈등 중재 나서겠다"」 ,한겨레, 2020.09.01.

85) 이학종, 「화쟁위원회가 아쇼카선언 비판에 소송? 화쟁이라는 용어마저 오염시킬 작정인가!」, 미디어 붓다, 2012.02.19.

또한 그간의 화쟁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갈등과 대립의 해소는 뚜렷이 드러난 것이 없었다. 2014년 12월 10일에 열린 조계종 화쟁위원회 주최 대중공사에서 발제자로 나선 정웅기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위원장은 「화쟁의 길, 성과와 한계」 라는 주제 발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화쟁위원회가 2010년 6월 설립 이래 철도노조 파업,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문제 등 10여 건에 달하는 의제를 다뤄왔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 사안은 미완성으로 끝났다."[86]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원효의 화쟁사상과 정신을 이어받아 불교 내부만이 아니라 사회적 아픔까지 아우르는 안팎의 분열과 대립의 문제를 풀어 서로 소통하고자 하는 취지로 출범하였건만 중재에 나서면서도 오히려 갈등에 휘말리기도 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2015년 12월 10일 공권력의 횡포를 피해 조계사에 피신해 있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자진출두의 형식으로 경찰에게 인계해버린 화쟁위원회의 결정에는 많은 이에게 화쟁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사건이었다.[87] 이에 기존 '화쟁'에 대한 해석과 방법론 등에 의문이 생기는 바 본 연구자는 원효의 화쟁에 대한 기존 연구와는 다른 실천적 해석으로 분석한 울산대학교 박태원 교수의 『원효의 화쟁철학』을 중심으로 화쟁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자 한다.

86) 배희정, 「화쟁위원회 성과와 한계 논의」, 미디어붓다, 2014.12.10.
87) 서현욱, 「조계종 화쟁은 노동자 대표 경찰에 보내는 건가?」, 불교닷컴, 2015.12.11.

1. 원효의 화쟁이란?

1-1. 화쟁의 개념과 통섭

화쟁(和諍)은 '언어로 드러나는 다툼'을 대상으로 하는 문제의식이다. 언어적 쟁론을 화해 내지 해소시키려는 의지와 노력과 실천이 담긴 말이 화쟁이다.[88] 이는 곧 '견해의 배타적 다툼에 대한 치유'를 의미한다.[89] 원효의 핵심사상인 '화해(和解)와 회통(會通)의 논리체계'를 이르는 말로 불교의 특정 종파를 고집하지 않고 전체 불교를 붓다의 진정한 가르침, 하나의 진리에 귀결시켜 사상 체계를 세우고자 한 것이다.[90]

원효의 신라시대는 불교 공인 후 100여 년의 시간 동안 서로 다른 불교이론들이 쏟아져 들어와 붓다의 가르침에 혼란이 생겼고, 대승불교와 소승불교는 서로의 차이와 배타적 분열로 시비(是非)를 가리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에 원효는 당시 존재하던 거의 모든 경전을 분류하고 거기에 독자적 해석을 더하여 주석을 달았다. 여기서 원효는 서로 모순되고 대립하는 견해에 의한 불교 사상계의 분열적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미시 해석학적 방법'으로 화쟁사상을 정립한다.[91]

박태원에 의하면 인간의 언어능력은 축복과 재앙의 두 얼굴을 지니는데, 그 중 '언어능력에 의한 배제적 다툼'(諍論)은 재앙이며, 화쟁은 '쟁론 치유의 길'로 언어능력의 축복이라고 한다.

다툼을 화해시킨다는 뜻의 화쟁은 모든 갈등과 대립을 아울러 중생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고자 함이다. 화쟁은 원효사상을 관통하는 원리로 원효의 모든 통찰을 수렴하는 통섭(通攝)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라 할 수 있다. 박태원은 통섭을 '다양한 것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열고 껴안을 수 있는 지평'이라고 설명한다. 원효의 화쟁/통섭은 개인치유력과 사회치유력의 근원적 수준이 동시적으로 결합하여 일상에서 작동하는 지평이다.

위와 같은 화쟁의 개념을 바탕으로 앞서 조계종의 화쟁위원회가 사회적 갈등에 개입하면서 오늘날 화쟁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아쉬움이 짙어졌다. 과연 원효의 화쟁은 불교 안에서만 가능하였던 '박제화된 관람용 전시유품'이었던가?

---

88) 박태원, 『원효의 화쟁철학』, p.25, 세창출판사, 2017.
89) 위의 책, p.17.
90) 강성률, 『위대한 철학자들은 철학적으로 살았을까』, p.136, 평단문화사, 2011.
91) 박태원(2017), 앞의 책, p.42.

<그림 16> 화쟁 좌담회 안내문

다음의 「화쟁을 화쟁하다」[92]의 토론 내용을 보면 토론에 참여한 자들의 화쟁에 대한 생각은 박태원의 화쟁과는 차이를 보인다. 좌담회에서 토론 참석자들의 화쟁에 대한 이해는 비슷하지만 서로 간에 차이가 있었다. 이날 좌담회는 '원효 화쟁의 요체가 무엇이며 화쟁을 우리 사회에서 실천할 때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한 견해를 나누는 자리'였는데, 각기 다른 위치의 사람들이 화쟁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확인하기에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화쟁위원회의 위원장 도법은 전반적으로 붓다의 가르침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나 화쟁에서의 원효의 역할에 대한 해석에서는 표현이 달랐다. 도법은 원효가 '싸움을 말리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리며 화쟁위원회의 역할을 중재자로 규정지었다. 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화쟁의 전제조건이자 결과로 파사현정을 이야기하였다. 화쟁을 실천하려면 최소한 탐욕이나 의도가 배제되거나 완화한 상태가 요구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조성택 고려대 교수는 개시개비(皆是皆非)를 전제한 화쟁을 말하였다. 이도흠 한양대 교수는 '대립물 사이의 조건과 인과, 작용에 대한 연기적 깨우침'이라고 화쟁을 말하였다. 개시개비(皆是皆非)를 넘어서는 것으로 '대립물 사이의 중도적 깨우침'을 설명하였다.

92) 「화쟁을 화쟁하다」를 주제로 한 이 좌담회는 2015년 9월 22일 화쟁문화아카데미 중앙홀에서 열렸다.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이 진행자로, 토론자로는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 조성택 고려대 교수, 우희종 서울대 교수, 이도흠 한양대 교수,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 정웅기 붓다로 살자 연구위원이 나섰다.

이 화쟁 좌담회에서 드러난 문제는 우선 화쟁이 관념적 해결로만 남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서로가 적대적인 모순상황에서 누군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임하는 경우에 화쟁이 가능한가 하는 의문도 생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화쟁적 진실 즉 근원적 지점을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화쟁에 대한 전통교학적 독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어느 주장에도 화쟁의 구체적 실천방안이 나오지 않는다.

이러한 논쟁은 본 연구자에게 박태원의 화쟁사상 연구사에서 지적한 [표 8]의 지금까지의 화쟁사상 연구에서 보아왔던 화쟁 논리의 한계와 문제점을 확인하는 수순으로 다가왔다.

연구자	출처	연구내용	평가	한계 / 문제점
박종홍	「한국사상사」, 서문당, 1977	화쟁의 논리를 개합(開合)과 종요(宗要), 입파(立破)와 여탈(與奪), 동이(同異)와 유무(有無), 이변비중(離邊非中,) 일미(一味)와 절언(切言)으로 파악	. 원효 화쟁사상의 논리형식을 밝히려고 한 최초 시도 . 원전 해석이나 논의 내용상 문제점 드러남	근대적 학문방법론에 의한 화쟁사상 연구사에서 원효의 화쟁논리를 밝히려는 노력의 단초 마련
박성배	「동서철학의 제문제」, 김규영박사화갑기념논문집, 1979	「원효사상 전개의 문제점」 - 박종홍의 논의 비판적 검토	. 개합에 의하여 화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 원효의 학어자의 길과 수도자의 길 사이를 고려해야 한다	화쟁 논리형식이 산출되는 토대와 원천에 대한 관점
이종익	「원효의 십문화쟁론 연구」, 「원효의 근본사상, 동방연구원, 1977」, 「원효」, 예문서원, 2002에 재수록	화쟁론의 기점(基點), 화쟁사상의 원리, 화쟁론의 근본원칙 정리. 그리고 십문을 화쟁의 열가지 주제로 보아 현존 원효 저술에 산재해 있던 화쟁 논의에 입각한 명목(名目)의 복원 시도	화쟁 논법의 구성 원리에 관한 언급은 원전 언어 그대로 정리하는 수준	원효 저술의 현존 자료를 종합하여 십문의 복원까지 시도
최유진	「원효의 화쟁사상 연구」, 서울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화쟁 논법 구성 원리를 구체적으로 분류, 음미	극단을 떠남, 여러 이론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자재, 동의도 않고 이의도 제기하지 않으며 설함, 경전 내용에 대한 폭넓은 이해	화쟁의 논리형시과 구체적 쟁론들의 화쟁이 상응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다루지 않고 화쟁 방법의 논리형식 확인하는 수준
박성배	「원효의 화쟁논리로 생각해 본 남북통일 문제-	화쟁 논법의 논리적 구성을 '양긍정->양부정->무	개비개시(皆非皆是)의 논리를 화쟁논법에 도입	개비개시의 논리와 불교철학의 관

	원효사상의 현실적 전개를 위하여」, 김지견박사 화갑기념사우록, 「동과서의 사유세계」, 1991	애'의 구조로 파악하려는 관점		계에 대한 연구 없음
김영태	「「열반종요」에 나타난 和會의 세계」, 「원효」, 예문서원, 2002	상이한 견해들을 부정과 긍정을 통해 화해시키고, 불설과 경교의 문증을 들어회석고통하는 것이 열반종요에서 확인되는 화쟁의 방법이라 함	「열반종요」에 나타나는 화쟁 논법의 유형을 종합하여 '화회'(和會)사상으로 파악하면서 그 내용 정리	화쟁 논법에 대한 해석학적 관점은 찾기 어려움
김형효	「원효사상의 텍스트 이론적 독법」, 「원효에서 다산까지」, 청계, 2000, 「노장사상의 해체적 독법」, 청계, 1999	화쟁사상을 비롯한 원효사상 전반을 데리다 등이 대표하는 텍스트 이론에 의거하여 파악하려는 시도 원효사상, 노장사상을 텍스트 이론에 의한 독해	공(空)의 지평과 데리다의 지상권(至上權) 지위를 결합시키는 방식	비교철학적 접근이 돋보임 '사변적이고 형이상학적 지향에 그친다'는 혐의
사토 시게키(佐藤繁樹)	「원효의 화쟁논리」, 민족사, 1996	「금강삼매경」의 불수일이무이(不守一而無二)<귀원일심>과 무이이불수일(無二而不守一)<요익중생>의 논리가 화쟁의 핵심 논리체계다.	화쟁사상을 귀일심원과 요익중생이라는 두 축과 연결시켜 원효사상 전체를 이해하는 틀로 보려는 시도	지나친 일반화의 가능성
최연식	「원효의 화쟁사상의 논의방식과 사상사적 의미」, 「보조사상」 25집, 2006	화쟁의 사상적 토대는 보법(普法)사상과 일심이다.	화쟁사상은 7세기 후반 신라사회에서 대립하고 있던 이견들을 조절하기 위하여 제시된 것이 아니라 불교학에서 전개되는 혹은 전개될 수 있는 다양한 논의들을 종합하기 위한 이론이다.	원효의 화엄 보법과 일심사상에 대한 본체/현상론에 입각한 최연식의 독법이 얼마나 불교와 상응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
김영일	「원효의 화쟁논법 연구-화쟁의 실례를 중심으로」, 동국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원효의 저술에 등장하는 화쟁 논법의 사례들을 종합하여 그 교학적 배경과 근거를 정리하고 화쟁의 유형과 구조, 회통의 방법과 논거들 및 논증 형태를 세밀하게 분류	원효의 화쟁 논법을 사례 중심으로 종합하며 그 형식을 체계적이고도 세밀하게 정리하고 있는 점이 돋보임.	형식 분류가 화쟁 이론의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의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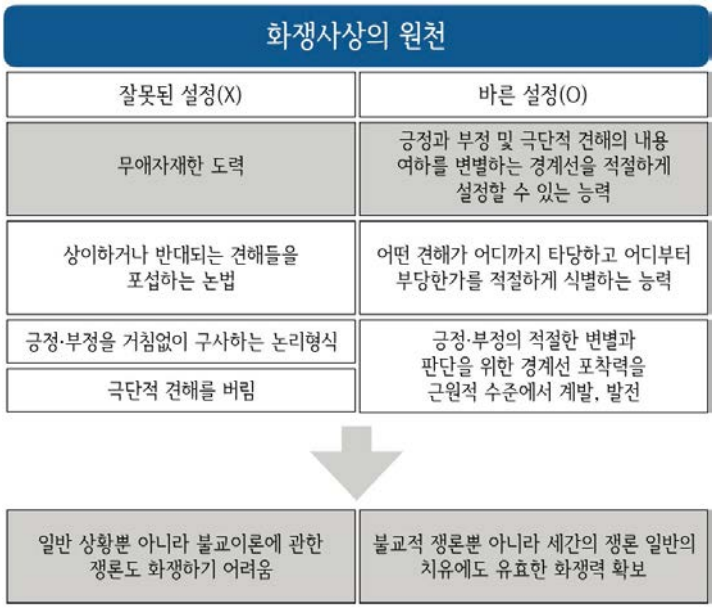
[표 8] 박태원의 화쟁연구사 비교 분석

"원효의 화쟁 논법에서 흔히 목격되는 '긍정·부정의 자유자재' '극단적 견해를 버림' 등의 논리형식은 그럴듯해 보일지 몰라도 실제 쟁론에 적용하기에는 모호하거나 막연하여 문제해결에는 무력하다."[93]

93) 박태원(2017), 앞의 책, p.39.

기존 화쟁 연구[94]와는 달리 박태원의 화쟁 원천에 대한 해석은 '긍정과 부정 및 극단적 견해의 내용 여하를 변별하는 경계선을 적절하게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의 여부에 대해 중심을 둔다. 박태원은 문제 해결에 있어서 화쟁 논리가 '저마다 일리가 있다'면서 상이하거나 반대되는 견해들을 포섭하는 논법이나 '모두 맞기도 하고 모두 틀리기도 하다'는 식의 긍정·부정을 거침없이 구사하는 논리형식 등으로 접근한다면 쟁론에서 한계를 가져와 공허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자칫 위험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림 17>의 화쟁 사상 원천에 대한 비교 그림을 보면 어떤 견해에 대해 조건과 인과를 정확하게 구별해내지 못한다면 수많은 대립된 불교이론의 통합적 재해석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화쟁은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 박태원은 올바른 화쟁 사상의 원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림 17> 올바른 '화쟁사상의 원천'에 대한 비유

"화쟁의 논리형식이 솟구치는 원천은, 이 '긍정·부정의 적절한 변별과 판단을 위한 경계선 포착력'을 근원적 수준에서 계발시키고 발전시켜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원효의 화쟁 논법이 그러한 원천에서 발현되는 것이라면, 화쟁논법은 불교적 쟁론뿐 아니라 세간의 쟁론 일반의 치유에도 유효한 보편적 화쟁력을 발휘한다고 할 수 있다."[95]

94) 화쟁사상에 대한 다양한 연구에 대한 분석 중 김태수는 「원효의 화쟁논법 연구」라는 박사학위 논문의 선행연구에서 기존 연구 경향을 화쟁을 포섭적 종합의 측면에서 '비이'를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와 다원주의적 차이를 강조하여 '비일'을 중시하는 시각으로 대별하여 비교 분석하고 있다.

95) 박태원(2017), 앞의 책, p.40.

화쟁이 올바른 원천을 바탕으로 불교적 쟁론을 해결하면서 나아가 세간의 쟁론에도 치유의 역할을 하게 되려면 화쟁을 함에 있어 인간사 모든 쟁론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는 보편적 원칙이 있어야 가능하다. 본 연구는 불교 이론들을 분석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살아가면서 만나고 힘들어하는 인간사를 다루는 영화에 치유기법으로서의 화쟁이기에 '화쟁의 보편성'에 대하여 좀 더 나아가보도록 하겠다.

화쟁 논법의 보편 원리
각 주장의 부분적 타당성(一理)를 변별하여 수용한다
모든 쟁론의 인식적 토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음지평(一心)을 열어야 한다.
언어 환각에서 깨어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표 9] 보편적 화쟁을 위한 원칙

세간의 쟁론에 도입할 수 있는 화쟁을 위해서는 각 주장의 부분적 타당성을 분별하여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앞서 '저마다 일리가 있다'면서 상이하거나 반대되는 견해들을 포섭하는 논법이나 '모두 맞기도 하고 모두 틀리기도 하다'는 식의 긍정·부정을 거침없이 구사하는 논리형식 등은 실제 문제의 해결이나 쟁론의 치유에는 무력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분적 타당성(一理)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적 일리에 집착하지 않는 것으로 이룰 수 있다. 여기에서 그치면 화쟁의 성공여부는 '무애자재한 도력'의 권능으로 넘어가 버린다. 그렇다면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박태원은 "자기 견해에 폐쇄적으로 갇히지 않고 타인의 견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하여 각 견해의 '부분적 타당성'(一理)을 식별하여 포섭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견해 '계열 구분'(門)을 통한 화쟁 논법"을 제시하고 있다.[96]

1-2. 문(門) 구분을 통한 화쟁

앞에서 각종 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립의 해소와 그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 폭력적 배타 등에 대한 치유 방법으로 화쟁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화쟁은 원래의 목적인 불교 교학뿐 아니라 인간 세상의 일반 쟁론에도 보편 철학으로 작용하여 치유작용을 한다. 화쟁의 보편성은 [표 9]의 '화쟁 논법의 보편 원리'를 통해 확보되며, 이는 붓다의 '모든 것은 조건인과적으로 수립된 것'이라는 연기적 사유방식을 계승한 것이다. 원효는 붓다의 연기법을 계승하면서 부분적 타당성의 변별과 수용(一理)의 조건인과적 방법을 '계열 구분'(門)을 통한 화쟁 논법으로 구사한다.

96) 박태원(2017), 앞의 책, p.44.

결국 ‘문 구분을 통한 화쟁’이란 ‘모든 것을 조건인과적으로 수립된 것이라 파악’하는 붓다의 연기법을 원효가 계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붓다	원효
일체를 조건 의존적으로 파악	부분적 타당성의 변별과 수용
연기법	문 구분을 통한 화쟁
쟁론 치유력 확보	

[표 10] 연기법과 화쟁의 연관성

쟁론의 상황에서 부분적 타당성을 분별하여 수용한다는 것은 무조건적 주장을 조건적 진술로 바꿀 수 있다는 것으로 그러한 과정에서 대립의 갈등은 해소되어 치유가 된다는 의미이다. 쟁론은 한쪽의 주장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한다.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주장은 한쪽의 무조건적이나 절대적인 일방적 자기주장으로 인해 결국 상대방에게는 이견을 말하거나 거부하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는 폭력적 상황을 만들어낸다. 종교에서는 ‘이것이 진리고 다른 의견은 이단’이라고 하는 경우이고, 사회에서의 대립과 갈등은 ‘나는 정의고 너는 불의’ 또는 ‘나는 피해자 너는 가해자’라는 식의 이분법적 판단과 한쪽의 편을 들어 밀어붙이는 경우 충돌이 일어난다.

이러한 갈등 상황을 화쟁으로 풀어나가자면 피해자에게 당신은 ‘절대적 피해자’인지를 확인하게 해야 한다. 즉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입은 상황에 대해 조건인과적으로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나는 정의고 너는 불의’라는 경우도 언제, 어느 경우에 정의인지 판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정의가 또 다른 누구에게는 불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여성인권변호사 출신의 한 행정가의 성추행 관련 추문으로 인한 자살 사건은 이 같은 아쉬움을 갖게 한다.

<table>
<tr><th>쟁론</th><th>화쟁</th><th>통섭</th></tr>
<tr><td>무조건적/전면적/절대적
견해 주장</td><td rowspan="2">쟁론 치유의 과정</td><td>부분적 타당성의 변별과 수용</td></tr>
<tr><td>독선, 독단, 무지, 배타적 폭력성</td><td>본질/실체의 환각, 격
절과 분리, 배타적 폭
력 등의 원천적 치유</td></tr>
<tr><td>불각(不覺)</td><td>시각(始覺)</td><td>본각(本覺)</td></tr>
</table>

[표 11] 화쟁의 의미

이와 같이 각종 견해의 대립 상황에서 한쪽의 주장의 절대성이나 무조건적 주장은 나중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바뀌거나 정의가 불의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조건인과를 따져 주장이나 견해의 부분적 타당함을 가려내고 그것을 이유 있는 주장의 수용으로 받아들인다면 대립의 국면은 치유의 양상으로 달라질 수 있다. 쟁론을 화쟁으로 풀어내면서 새로운 지평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화쟁의 실행함에 있어 조건인과적 적용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고 그것은 곧 문 구분을 통한 화쟁이 대립과 갈등을 원천적으로 치유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음은 '배타적 말다툼'이 일어난 경우에 대한 붓다의 가르침을 『금강삼매경론』을 통해 알아보도록 한다.

> '갖가지 다른 견해의 배타적 말다툼'(諸異見諍論)이 일어날 때, 만약 '있다는 견해'(有見)에 동의하여 말하면 '없다는 견해'(空見)와 달라지고 만약 '없다는 집착'(空執)에 동의하여 말하면 '있다는 집착'(有執)과 달라지니, 동의하는 것과 달라지는 것이 더욱 그 '배타적 말다툼'(諍)을 일어나게 한다. 또 [만약] 저 ['있다는 견해'(有見)와 '없다는 견해'(空見)] 두 가지에 모두 동의하면 자기 안에서 [두 가지 견해가] '서로 배타적으로 다투게 되고'(相諍), 만약 저 두 가지 [견해]와 모두 [입장을] 달리하면 두 견해와 '서로 배타적으로 다투게 된다'(相諍). 그러므로 [전적으로] 같은 입장을 취하지도 않고 [전적으로] 다른 입장을 취하지도 않으면서 말해야 하는 것이다.
>
> "[전적으로] 같은 입장을 취하지도 않는다"(非同)는 것은 말한 그대로 취하면 [다른 주장들을] 모두 허용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전적으로] 다른 입장을 취하지도 않는다"(非異)는 것은 뜻을 파악하여 말하면 [다른 주장들을] 허용하지 못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전적으로] 다른 입장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저 [듣는 사람의] 감정(情)과 어긋나지 않고, [전적으로] 같은 입장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도리와도 어긋나지 않아, 감정(情)에 있어서나 도리(理)에 있어서나 서로 기대면서 어긋나지 않으니, 그러므로 "서로 응하게 설해야 한다"(相應如說)고 말하였다. [여기서] '여如'는 '이而'[의 뜻]이다.[97]

위 부분은 『금강삼매경론』의 '제4편 경문의 뜻을 자세히 풀어냄(消文義)'의 'Ⅱ. [경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설한 부분(正說分)'에 나오는 가르침의 풀이이다. 화쟁에

---

97) [H1, 637c20~638a23; T34, 982b26~c18] : 此是第二別開方便. 於中卽開四種方便, 一者知時方便, 二者識機方便, 三者引入方便, 四者出離方便. 知時方便者, 如經"若後非時, 應如說法, 時利不俱"故. 後有三義, 佛滅度後故, 正法滅後故, 五重五百中, 後五百歲故. 言"非時"者, 非純熟時故, 非易悟時故, 異見盛興, 相非時故. 若於如是非時, 直應眞如說法, 不當彼時, 無所利益, 時利不並, 故言"不俱". 是爲知時方便. 識機方便者, 如經"順不順說, 非同非異, 相應如說"故. "順不順說"者, 若直順彼心說, 則不動邪執, 設唯不順說者, 則不起正信, 爲欲令彼得正信心, 除本邪執故, 須或順或不順說. 又復直順理說, 不起正信, 乖彼意故, 不順理說, 豈生正解, 違道理故. 爲得信解故, 順不順說也. 若諸異見諍論興時, 若同有見而說, 則異空見, 若同空執而說, 則異有執, 所同所異, 彌興其諍. 又復兩同彼二, 則自內相諍, 若異彼二, 則與二相諍. 是故非同非異而說. "非同"者, 如言而取, 皆不許故, "非異"者, 得意而言, 無不許故. 由非異故, 不違彼情, 由非同故, 不違道理, 於情於理, 相望不違, 故言"相應如說". 如者而也. ; 번역은 박태원, 원효학토대연구소, 『금강삼매경론 하』, p.25 참조.

대하여 직접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화쟁 논법으로 붓다의 연기법에 의거하여 쟁론의 경우에 올바르게 설법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쟁론의 발생		
있다는 견해(有見)	VS.	없다는 견해(空見)
없다는 집착(空執)		있다는 집착(有執)

[표 12] 쟁론 발생의 예

먼저 배타적 말다툼이 일어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있다(有)/없다(空)의 견해와 집착에 동의하는 것과 달라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위 [표 12]는 쟁론 발생의 예를 알아보기 쉽게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발생한 쟁론의 양상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있다는 견해와 없다는 견해의 두 가지 모두에 동의하는 경우와 또 그 두 가지 견해와 입장을 달리하는 경우이다. 두 가지 견해 모두에 동의하는 경우는 '하나의 사안에 대하여 이것도 맞고 아닌 것도 맞다'고 하는 것이 되어 자기 안에서 두 가지 견해가 서로 배타적으로 다투게 되고, 두 가지 견해 모두와 입장을 달리하게 되면 그 두 가지의 견해와 서로 배타적으로 다투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화쟁을 할 때는 위 두 견해 모두에게 전적으로 동의하지도 않으면서도 두 견해 모두에게 전적으로 다른 입장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非同) 이유는, 만약 전적으로 동의하였을 때는 다른 의견이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쟁론의 양상		
두 견해 모두에 동의 (자기 안에서 서로 배타적 다툼)	있다는 견해(有見)	두 견해 모두에 입장을 달리함 (두 견해에 서로 배타적 다툼)
	없다는 견해(空見)	

[표 13] 쟁론의 양상

이 경우 [표 13] 쟁론의 양상 중 '두 견해에 서로 배타적 다툼'(相諍)의 경우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 되고 만다. 그리고 전적으로 다른 입장을 취하지 말아야 하는(非異) 이유는 다른 주장이나 견해를 동의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또한 위 쟁론의 양상 중 '자기 안에서 서로 배타적 다툼'(相諍)의 경우에 다시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화쟁을 이끌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같은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서 같은 입장도 취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입장에 서지 않았기에 감정(情)이 어긋나지 않음이고 같은 입장을 취하지 않아서 도리(理)에 어긋나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화쟁을 화쟁하다」라는 좌담회에서 조성택이 개시개비(皆是皆非)[98]를 화쟁의 전제로 하는 주장과 비슷하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빠졌다. 바로 쟁론으로 배타적 다툼을 하는 '서로가 화쟁에 응해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앞서 『금강삼매경론』의 인용에서 마지막 부분에 주목한다.

> "감정(情)에 있어서나 도리(理)에 있어서나 서로 기대면서 어긋나지 않으니, 그러므로 서로 응하게 설해야 한다."(相應如說)[99]

여기서 서로 기대면서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은 서로 열고 서로 껴안는 통섭(通攝)이며, 서로 응하게 하는 원동력은 바로 '조건인과로 행하는 문(門) 구분'의 화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문 구분의 화쟁를 실천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문 구분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원효의 문(門) 구분을 사용함에 있어 문의 개념은 '국면, 맥락, 계열, 측면, 방법, 방식, 종류' 등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박태원은 "통섭이나 화쟁의 통찰을 전개할 때 구사하는 '문 구분'의 '문'(門)은, '일련의 타당한 인과계열' '조건적으로 타당한 의미맥락'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다수"[100]라고 하고 있다.
원효는 『대승기신론 소·별기』를 저술함에 있어 각기 다른 불교 경전의 교리를 하나의 가르침으로 풀어내는 방법으로 '일심이문'(一心二門)의 방법을 도입했다.

> "『대승기신론』이 '일심이문'(一心二門)을 통해 밝히려는 통찰은 매우 흥미롭다. 특히 이에 대한 원효의 안목은 가히 경이롭다. 『대승기신론』과 원효는 일심이문을 통해 불교철학의 요점을 압축적으로 수렴하는가 하면 다양한 측면(門)으로 펼쳐낸다."[101]

그리고 대승기신론에서 보이는 '일심이문'(一心二門) 전개 방식의 기본 취지는 다음과 같다.

---

98) 조성택은 화쟁의 전제로 개시개비(皆是皆非, 모두 옳지만 또한 모두 그르다)를 말하고 있는데, 장님 코끼리만지기의 예화는 대립된 견해의 충돌에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라 하겠다. 조성택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에 나오는 각기 다른 장님들의 주장에 대해 원효는 '모두 옳다'(개시, 皆是)고 했다. 부분적이긴 하지만 코끼리가 아닌 다른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효는 또한 '모두 틀렸다'(개비, 皆非)고 했다. 어느 누구도 코끼리의 전모를 묘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내가 옳으면 다른 사람도 옳고, 다른 사람이 틀리면 나도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때 진정한 의미의 화쟁이 이루어지고 대화 또한 가능해 진다"고 덧붙였다. 본 연구자는 이 예화에서 장님들은 코끼리에 대해 알고자 하는 공동의 목적이 있어서 이런 예화가 나왔다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이나 생존이 걸린 문제에서 대립하는 두 견해는 위의 개시개비의 전제로 같이 화쟁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익이나 생존의 문제를 손해 볼 수도 있는 화쟁에 응해야하는 이유가 분명치 않아서이다.

99) 본 논문 p.69 각주 96).

100) 박태원(2017), 앞의 책, p.77.

101) 박태원 외, 『대승기신론 소·별기 상』, 원효학 토대연구소 번역, p.129, 세창출판사 2019.

"이 『대승기신론』의 의도가 이와 같으니, [이론을] 펼칠 때는 '제한 없고 끝이 없는'(無量無過) 뜻을 근본으로 삼고, [이론을] 합할 때는 '두 가지 측면'(二門)과 '하나처럼 통하는 마음'(一心)이라는 도리를 요점으로 삼는다. '두 가지 측면'(二門) 안에서는 온갖 뜻을 받아들여도 혼란스럽지 않고, [본질이나 실체관념에 의한 막힘이 없어] 한계가 없는 도리는 '하나처럼 통하는 마음'(一心)에서 섞이어 융합된다. 이리하여 펼침(開)과 합함(合)이 자유롭고 수립(立)과 해체(破)가 걸림이 없다. [또한] 펼쳐도 어지럽지 않고 합해도 좁지 않으며, 수립해도 얻음이 없고 해체해도 잃음이 없다. 이것이 마명(馬鳴)의 기묘한 솜씨이고 『대승기신론』의 '가장 중요한 본연'(宗禮)이다."[102]

위 내용은 『대승기신론』에서의 사용하는 '일심이문'(一心二門)의 개념을 풀이하고 있다. 원효는 모든 불교이론을 진여문(眞如門)과 생멸문(生滅門)의 두 개 문으로 분류한 후, 그 두 문을 펼쳐내고 포섭하는 자리에 일심(一心)을 놓는다. 두 문의 거점이 마음의 국면인 일심이라는 점에서 이문(二門) 앞에 심(心)을 붙여 각각 '마음에 의거하는 참 그대로의 측면/맥락'이라는 심진여문(心眞如門)과 '마음에 의거하는 분별 동요의 측면/맥락'이라는 심생멸문(心生滅門)이라 부르기도 한다. 여기에서 두 문은 '마음'이라 부르는 경험현상의 발생조건에 따라 두 가지 계열로 나뉘어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103]

"『대승기신론』에서는 세우지 않는 것도 없고 깨뜨리지 않는 것도 없다. [그러나] 『중론中論』과 『십이문론十二門論』 같은 것들은 모든 집착을 두루 깨뜨리고 깨뜨리는 것까지도 또 깨뜨리지만, '깨뜨리는 것'(能破)과 '깨뜨려진 것'(所破)을 다시 허용하지는 않는다. 이것을 일컬어 '[깨뜨려] 보내기만 하고 두루 허용하지는 않은 논서'(往而不遍論)라 한다. [그리고]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과 『섭대승론攝大乘論』 같은 것들은 [수준의] 깊음과 얕음을 모두 수립하여 가르침(法門)들을 구분하지만, 자신이 세운 이론(法)을 녹여 없애지는 않는다. 이것을 일컬어 '세워 주기만 하고 없애지는 않는 논서'(與而不奪論)라 한다. 지금 이 『대승기신론』은 지혜롭고 어진 데다가 깊기도 하고 넓기도 하니, 세우지 않는 것이 없으면서도 스스로 없애고, 깨뜨리지 않는 것이 없으면서도 다시 허용한다. '다시 허용한다'(還許)는 것은, 저 [깨뜨려] 보내는 것이 보냄의 궁극에 이르러 [다시] 두루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또 '스스로 없앤다'(自遣)는 것은, 이 허용하는 것이 허용의 궁극에 이르러 [다시] 빼앗는 것을 밝힌다. 이것을 일컬어 모든 논서의 '으뜸되는 본보기'(祖宗)이고 모든 '배타적 말다툼'(諍)을 '제대로 평가하는 주인'(評主)이라 한다."[104]

---

102) 『소』(1-698c6~12); 『회본』(1-733c9~15) : 【소】此論之意, 既其如是, 開則無量無邊之義爲宗, 合則三門一心之法爲要, 二門之內, 容萬義而不亂, 無邊之義, 同一心而混融. 是以開合自在, 立破無礙. 開而不繁, 合而不狹, 立而無得, 破而無失. 是爲馬鳴之妙術, 起信之宗禮也 ; 번역은 박태원, 원효학토대연구소, 『대승기신론 소·별기 상』, p.245 참조.

103) 박태원(2017), 앞의 책, p.79.

104) 『별기』(1-678a10~19); 『회본』(1-733b13~23) : 【별기】其爲論也, 無所不立, 無所不破. 如『中觀論』『

위 내용은 『대승기신론』의 '전체 취지'(大意)와 '가장 중요한 본연'(宗體)[105]을 설하는 부분에서 『대승기신론』의 가치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논서의 분류를 '[깨뜨려] 보내기만 하고 두루 허용하지는 않은 논서'(往而不遍論)와 '세워 주기만 하고 없애지는 않는 논서'(與而不奪論)의 두 문으로 들어 정리하여, 다른 논서들의 가르침을 통합하고 한계를 넘어서는 『대승기신론』의 가치와 역할을 내보이고 있다.

> "[또] 이와 같은 [분별성과 의타성의] 두 면모는 비록 다르지 않지만 또한 같지도 않다. 어째서인가? '[근본무지에 따라] 분별된 것들'(分別性法)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없지 않은 것도 아니며, '다른 것에 의존하는 것들'(依他性法) 또한 비록 있는 것이 아니지만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분별성과 의타성의] 두 면모는 또한 뒤섞여 어지러워지는 것이 아니다.『섭대승론』에서 설명하기를, "[의타기성과 변계소집성과 원성실성이라는] 세 가지 면모는 서로 기대어 있어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니니, 반드시 이와 같이 설명해야 한다"라고 한 것과 같다. 만약 이 [의타기성과 변계소집성과 원성실성이라는] 세 가지 면모가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는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온갖 논쟁을 화해시키지 못할 것이 없다."[106]

분별성과 의타성의 두 면모를 설명함에 있어 두 문으로 설명하는데, 이는 배타적 이분법에 의한 구분이 아니다. 각기 다른 조건에 의한 구분을 통해 '근본무지에 따라 분별된 것들'(分別性法)과 '다른 것에 의존하는 것들'(依他性法)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이를 통해 의타기성과 변계소집성과 원성실성이라는 세 가지 면모가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는 것을 말하며,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다면 모든 논쟁을 화해시킬 수 있다하였고 이는 곧 화쟁의 전제라 할 수 있다.

> "원효는 「대승기신론」의 '진여/생멸 이문(二門) 구별'에서 포착한 '문(門) 구별의 연기적 사유'를 다양한 유형의 이문 구별로 발전시킨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론과 주장들을 조건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사실에 부합하는 정확한 이해에 접근하려 한다. 아울러 다양하게 분석한 이문(二門)들을 '통섭(通攝)적 관계'를 밝힘으로써 배타적으로 엇갈리는 이론과 주장들이 화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107]

十二門論』等, 遍破諸執, 亦破於破, 而不還許能破所破. 是謂往而不遍論也. 其瑜伽論攝大乘等, 通立深淺, 判於法門, 而不融遣自所立法. 是謂與而不奪論也. 今此論者, 旣智旣仁, 亦玄亦博, 無不立而自遣, 無不破而還許. 而還許者, 顯彼往者往極而遍立. 而自遣者, 明此與者窮與而奪. 是謂諸論之祖宗, 群諍之評主也. ; 번역은 박태원, 원효학토대연구소, 『대승기신론 소・별기 상』, p.241 참조.

105) 체(體): '체'는 『대승기신론』이나 원효의 저술에서 어떤 현상의 '가장 근원적 위상'을 지칭할 때 채택되는 중요한 개념이다. 이 근원적 위상이 '의지하게 되는 토대적 조건'을 의미할 때는 '기본'이나 '바탕'이라는 번역어를 선택하고, 근원적 위상이 '참된 국면/지평'이나 '본래의 고유성'을 의미할 때는 '본연(本然)'이라 번역해 본다. 각주 인용, 박태원 외 15명, 『대승기신론 소・별기 상』, 원효학 토대연구소 번역, p.233, 세창출판사, 2019.

106) 『별기』(1-680a10~16); 『회본』(1-742a3~9) : 【별기】如是二性雖復不異, 而亦非一. 何以故? 分別性法本來非有亦非不無, 依他性法雖復非有而亦不無. 是故二性亦不雜亂. 如『攝論』說, "三性相望, 不異非不異, 應如是說". 若能解此三性不一不異義者, 百家之諍無所不和也. ; 번역은 박태원, 원효학토대연구소, 『대승기신론 소・별기 상』, p.354 참조.

이와 같이 화쟁에 있어서 ‘문 구분 사유방식’이란 조건인과를 밝혀내는 연기적 사유방식을 뜻하며, 이는 쟁론의 상황에서 ‘상이한 견해와 이론들의 배타적 충돌을 해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2. 갈등해결 방법으로의 화쟁

앞서 화쟁의 개념에 대한 여러 생각들을 정리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영화를 감상하면서 영화에 나타나는 각종 갈등 상황에 화쟁을 어떻게 도입해야 하는가를 알기위해 ‘갈등해결 방법으로서의 화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영화에서 다루어지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현실세계의 재현이며 지금 동시대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 장에서의 화쟁에 대한 고찰은 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알아볼 것이며, 신라시대 원효의 화쟁사상이 오늘날 어떻게 도입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갈등을 해결하자면 갈등의 원인에 대한 파악이 필수적이다. 도대체 갈등은 왜 생기는 것이며 그것을 해결하는 문제는 법적으로 밖에 풀 수 없는 것일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본 연구자는 수년전 학교재단과의 대립에서 피해를 입고 법적인 판결로 복직을 하였지만 최근 뉴스에 보도되며 국정감사[108]에서 언급되는 것처럼 아직도 재단과의 갈등은 현재진행형으로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다. 법적으로도 끝나지 않는 갈등과 대립의 양상을 해결할 수 있는 묘안으로서의 화쟁을 알아보도록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갈등, 대립, 다툼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토록 싸워야 하는 것인가. 『원효의 화쟁철학』을 저술한 박태원에 따르면 인간은 언어가 가진 속성으로 인하여 ‘언어로 싸우는’ 존재라고 하고 있다. 인간에게 언어는 상호소통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정보의 교류 및 학술적 발전, 문

107) 박태원(2017), 앞의 책, p.91.

108) 경성대학교 문제가 국정감사장에 나온 것을 [KBS 부산] 뉴스에 보도되었다.(2020.10.27.) ; 유은혜 부총리는 교육부가 경성대와 관련된 개방이사 선임 문제 외에도 총장의 인사 전횡이나 이사장 횡령혐의까지 각종 문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했다. 송수건 경성대 총장이 취임한 건 지난 2011년. 이후 지난 6년 새 경성대는 교직원 182명에 대해 징계 처리하였는데, 송 총장 부임 전 징계는 4년간 단 3건이었다. 경성대 교수들은 이러한 인사 전횡에 반발해 총장 퇴진 운동을 벌였고, 이를 주도한 교수 2명이 지난해 해임되거나 재임용에서 탈락하였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부당 해임’이라며 해임 취소 결정을 내렸지만, 경성대는 다시 행정소송으로 맞섰고, 사립대의 ’교원소청제도’가 무력화되는 이번 사건은 계속 반복되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또 대학이 학칙을 무단 변경해 교수를 배제하고 개방이사를 선임했다 법원으로부터 무효 판결을 받은 것도 학내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교육부 개입을 촉구하였다. 설립자의 증손자인 현재 이사장은 상근 이사장인 것처럼 꾸며 급여 등 6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수사 받고 있다. 본 연구자 역시 교수협의회 부의장으로서 교내 투쟁하다가 해직되어 법적 절차를 거친 적이 있다.

화적 환경을 풍부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지만 바로 그 언어 때문에 서로 다투고 대립하며 승자가 있고 패자가 생겨나기도 한다.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과 타인의 차이를 왜곡, 굴절, 오염시키며 폭력적으로 대하는 것 바로 그 문제를 붓다는 '고(苦)'라고 보고 그것을 연기(조건인과에 의한 발생) 통찰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는 동일화 작용, 배제 작용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언어가 지닌 이런 속성을 '견해'[109]에 담아 개인과 집단이 싸우는 상황으로 나타나는 것이 '쟁론'이다.[110]

박태원은 동일화와 배제의 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책상의 명칭 부여'에 대한 예를 들어 설명한다. '책상'이라는 명칭을 붙임으로써 책상으로 지칭되는 것들에는 '동일성'을 부여하고 아닌 것은 '배제'한다는 것으로 언어 속성의 예를 보여준다.[111]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동물처럼 신호를 주고받는 것을 넘어 동일성과 배제 작용을 적용시켜 생존력을 높이고 결속력을 강화시켜 적대적인 것에 대한 방어력까지 강화하는 효과를 누렸다.

승리의 힘	유형	합리의 힘
개인 및 집단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관철하려는 충동 이 견해에 싣고자 하는 힘	개념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 의지'와 '서로 열고 서로 껴안는 태도'(통섭) 의 두 가지가 견해에 담고자 하는 힘
사적/집단적 이익의 폐쇄적/배타적 관철을 지상과제로 삼기 때문에 이익관철을 위해서는 독단과 독선, 허위와 무지, 부당한 폭력도 기꺼이 선택하고 정당화시킨다	특징	진실, 공존, 정의로운 공익, 평화, 열린 우애를 이로움으로 간주

[표 14] 견해의 두 가지 힘

인간은 그와 같은 언어의 속성에 의한 생존 이익을 얻기 위해 '판단/평가의 견해'를 '무조건적'이거나 '절대적'인 것으로 주장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이로써 인간은 '같음에 대한 동일성'으로 자신들의 결속력은 높여 방어력을 향상시키고, 이익 획득에 해로운 것에는 '차이에 의한 배타성'을 작용해 자신들의 적을 확정하고 그에 대해 공격성을 강화한다. 여기서 나타나는 견해의 수립에는 진실을 온전히 포착하고 구

109)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생각이나 입장을 나타내는 말로, 박태원은 언어의 속성에서 나타나는 견해를 '차이들을 분류/선택하고 판단/평가하는 방식'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견해는 언어적 인지능력의 대표적 산물이고 표현으로 인간의 사고방식과 상호 인과적으로 맞물려 있다고 하고 있다.
110) 박태원(2017), 앞의 책, p.115.
111) 위의 책.

현하기 위한 진리 의지에 의거하는 경우가 있고, 개인과 소속 집단의 이익을 구현하려는 이익 의지가 판단과 평가를 지배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인간은 이익의 문제에 있어서 무조건적/절대적 타당성을 주장하게 되며, 이때 진실과 합리성은 얼마든지 외면한다는 문제를 만든다. 이상과 같이 견해가 실린 언어의 속성으로 인하여 쟁론은 생겨난다.

견해는 그것을 주장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이익을 도모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 서로 다른 힘의 작용을 볼 수 있다.[표 14]
수많은 견해는 이러한 힘의 유형을 바탕으로 때로는 결합하고 때로는 각축을 벌이며 충돌하고 있다. 견해의 충돌이 일어날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견해에 승리의 힘을 싣고자 하는데, 그 승리의 힘의 바탕에는 다시 두 유형의 사고방식이 나타난다.

	정의	속성
절대주의 사고방식	판단과 평가의 절대화를 지향하는 사고방식	무조건 맞거나 틀리고, 무조건 좋거나 싫다는 사고법
		근대 이전의 교육, 문화, 관습 등의 모든 집단적 제도들에게서 볼 수 있다.
본질/ 실체주의 사고방식	순수하고 변치 않으며 배타적으로 독점할 수 있는 그 무엇을 본질이라 부른다.	승리의 힘을 추구 하는 견해는 자기 견해가 본질이나 실체로 대접받길 원한다.
	변화하는 현상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불변의 절대적/독자적 그 무엇을 실체라 부른다.	본질/실체주의는 동일화와 배제를 속성으로 삼는 개념적 언어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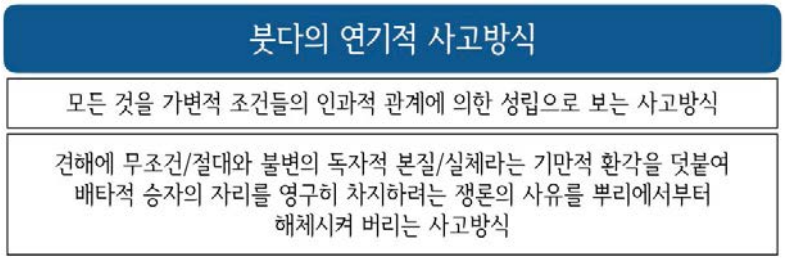
[표 15] 승리의 힘에 나타나는 사고방식의 유형

[표 15]에서 보는 사고방식의 속성을 이유로 하여 쟁론은 승리의 힘을 추구 하는 견해들의 충돌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서 합리의 힘은 활인검이 되는 논리적 합리성을 토대로 하여 진실을 추구하고 공존을 도모하며 공공의 이익과 평화, 열린 우애를 이간사의 이로움으로 간주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는 논리적 합리성에 기대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진리와 관계를 구현하려는 것이다.[112]

활인하는 합리의 힘과 견해의 결합을 가장 먼저 가장 높은 수준에서 가장 성공적

112) 박태원(2017), 앞의 책, p.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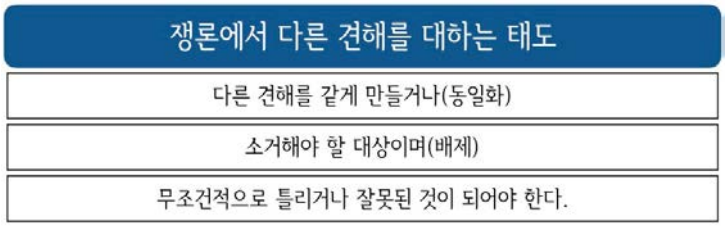
<그림 18> 붓다의 연기적 사고방식

으로 성취한 인물은 붓다이다. 붓다는 모든 것은 조건인과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연기 통찰에 의해 개념언어의 무본질/무실체성과 견해의 조건성을 밝혀 줌으로써 언어 환각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로 안내한다.[113]

<그림 18>의 붓다의 연기 통찰은 원효의 조건인과를 바탕으로 한 문(門) 구분의 화쟁 사상으로 계승된다. 박태원의 화쟁 통찰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 "더욱 진리에 부합하고 더욱 합리적이며 더욱 이로운 것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기존의 조건인과를 조건적으로 재성찰하고, 더 좋은 조건인과를 조건적으로 선택하라."[114]

쟁론의 상황에서 화쟁을 실천하여 더 좋은 결과,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쟁론의 속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쟁론은 인간의 언어적 싸움이다. 이 싸움의 현장에서 쟁론은 다음과 같은 태도를 나타낸다.



<그림 19> 쟁론에서 다른 견해를 대하는 태도

위 <그림 19>에서와 같이 다른 견해를 동일화 내지는 배제하는 태도가 나타나는 쟁론은 불통의 쟁론이다. 불통의 쟁론 상황에서는 차이는 정복하여 나와 같게 만들어 버리거나 없애버리는 통일하는 대상이 되며, 이것은 한 쪽의 일방적 승리를 가져오게 한다. 이 불통의 쟁론을 차이가 존중되며 상호작용하는 관계방식의 소통의 방식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화쟁이다. 원효는 불통의 쟁론을 조건인과로 원인과 결과, 상호 관계 등의 조건과 변화 등을 찾아내게 하는 화쟁으로 소통으로 변하게 한다.[표 16]

113) 박태원(2017), 앞의 책, p.114.
114) 위의 책, p.128.

쟁론	
소통	불통
차이가 존중되며 상호작용하는 관계방식	차이를 정복하여 동일하게 만들거나 제거하고 일방의 완전한 승리를 추구하는 관계방식
원효의 화쟁	
쟁론의 불통을 이견들의 소통으로 바꾸려는 방법이고 과정이며 결과	

[표 16] 쟁론과 화쟁 관계도

원효는 불통의 쟁론을 소통의 화쟁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문(門) 구분'의 방법을 도입한다. 원효의 '문(門) 구분'이란 붓다의 연기 통찰을 계승하여 대립된 견해의 차이와 변화를 조건인과로 살펴보는 것으로 쟁론의 치유와 소통에 적용하는 것이다.[표 17]

붓다의 연기	원효의 문
모든 현상은 일정한 조건들의 상호작용이 인과적으로 결합하여 발생한다고 보는 것	이견을 회통하여 쟁론을 화쟁할 때 채택하는 문(철학적으로는 견해/관점/이론의 조건인과 계열을 의미한다)
원효는 이 연기적 사유를 견해/이론의 문 구분으로 계승하여 쟁론의 치유와 소통에 적용한다.	

[표 17] 연기와 문의 개념

원효의 '문(門) 구분'을 화쟁에 도입하면 아래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 "A문으로 보면 이런 뜻이 되고 B문으로 보면 저런 뜻이 된다. 그러므로 모두 살려 통하게 할 수 있다."[115]

이것은 화쟁논법의 정형으로 견해의 문을 구별하여 배타적 다툼을 화해적으로 소통시킨다는 의미이다. 하나의 사물이나 말 등의 대상에 대한 감상이 각각의 입장이나 경험 등에 의해서 서로 달리 표현될 수 있으나 이를 조건인과의 문 구분으로 살펴 통하게 하면 둘 모두의 의견을 살려 더 나은 차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박태원의 '신김치 맛에 대한 견해 다툼'의 사례를 [표 18]의 분석으로 알아보도록 한다.[116]

115) 박태원(2017), 앞의 책, p.132.
116) 위의 책.

한국인 '갑'	견해 다툼	외국인 '을'
세상에 둘도 없는 진미	맛	악취가 풍겨 차마 입에 넣을 수 없는 썩은 채소
맛을 모르는 사람	상대 비방	야만인
김치를 좋아하는 한국인 / 좋다	증인 소환 체험 / 결과	김치를 혐오하는 외국인 / 싫다
김치가 맛있다고 인정하라	자기 견해 무오류의 입증	김치가 맛없다는 것을 받아들여라
갑과 을의 관계 훼손	결과	갑과 을의 관계 훼손

[표 18] 박태원의 신김치에 대한 견해다툼 사례 분석

한국인 '갑'과 외국인 '을' 사이에서 시큼한 맛이 나는 김치의 맛에 대하여 서로 의견이 대립한다. 둘의 관계는 이미 같은 음식을 두고 맛을 평가하고 의견을 나눌 정도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둘은 자기의 맛에 대한 평가가 절대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의 생각은 무식함의 결과로 밀어붙인다. 거기에 자기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각각 자기와 생각이 같거나 비슷한 사람을 내세워 자기주장의 정확하다는 증언을 만들지만 이는 각기 상대방과 같은 방법, 변화 없는 결과로 인해 실패로 돌아가자 둘의 관계는 더 악화된다. 이렇게 발생한 견해 다툼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재자 '병'을 내세워서 화쟁으로 풀어보도록 한다. '병'은 여기에서 갑과 을에게 견해 다툼의 원인에 대해 조건인과적으로 설명한다.

'병'	한국인 '갑'	외국인 '을'
둘의 환경에 대한 조건인과적 설명	오랫동안 누적되고 공유되는 한국의 식자재와 음식 맛에 익숙해 있고 감각과 신체도 그에 상응하여 최적화 되어있다	전혀 다른 식자재와 음식 문화에서 살아온 사람으로 그의 상이한 환경과 경험 및 감각조건이 원인이 되어 시큼한 김치를 악취나는 썩은 채소로 경험할 수 있다
갑과 을에 대한 병의 제언	결과적으로 갑과 을의 견해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 모두 살릴 수 있으며, 굳이 옳고 그름을 다투어 한쪽 견해의 일방적 승리를 추구할 수 없는 문제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	

[표 19] 신김치 맛에 대한 견해 다툼을 화쟁으로 소통하는 과정

[표 19]에서 중재자 '병'은 한국인 '갑'의 주장을 신김치를 좋아하고 그 맛에 익숙한 한국인으로서 평가한 것이므로 틀리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외국인 '을'의 주장에 대해서도 신김치의 냄새와 맛에 대하여 낯설음과 거부감이 드는 것은 외국인 '을'이 살아온 환경과 경험에 의해서 틀리지 않다고 하였다. 하여 중재자 '병'이 정리하는 것은 '갑'과 '을'의 맛에 대한 주장은 둘 다 틀리지 않다는 것이고, 이런 기회를 통해 둘 다는 서로 상대의 맛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화쟁의 과정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견해 대립의 해소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갑'과 '을'은 서로의 무지와 과오를 깨닫게 된다. 그리고 화쟁의 과정에서 얻는 새로운 지평의 세계로 들어간다.

견해 다툼의 해소 과정	'갑'과 '을'은 '견해 차이의 조건인과를 주목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깨달음
깨달음의 결과	김치 맛에 대한 견해 차이를 동일화나 배제의 문제로 보지 않을 수 있게 됨
	자기 견해의 타당성을 무조건적/절대적으로 주장하는 태도가 부당하다는 점을 알게 됨
	김치 맛에 대한 견해 차이가 승패의 다툼이 아닌 음식과 맛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심화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계기가 됨

[표 20] 견해 다툼의 해소 과정에서의 깨달음 사례

이렇듯 조건인과의 차이와 내용을 정확하게 포착하게 되면 견해의 대립은 화쟁을 거쳐 배타적 쟁론에서 갈등은 해소되거나 조정된다. [표 20]의 결과와 같이 견해 차이는 정복이나 소거의 대상이 아니라 공존의 벗이 될 수 있다. "특정 견해를 형성한 조건인과의 특징과 타당성 정도에 대한 이해력은 커지는 만큼, 견해 차이의 상생적 상호작용이나 조정 가능성도 커진다."[117]

> "원효가 견해와 이론의 문 구분을 통해 불통의 쟁론을 소통의 화쟁으로 바꾸려 한 것은, 인류의 오래된 동일화와 배제, 무조건화와 절대화의 언어 사유의 관행을 치유하려는 행위였다."[118]

이러한 치유의 화쟁이 오늘날 발생하는 견해의 대립, 사회적 갈등 문제에서는 어떻게 작용하였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앞서 언급한 화쟁 좌담회는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지난 몇 년간 한국사회에서 발생하였던 심각한 대립의 문제에 중재자로 나서서 화쟁을 실천한 것에 대한 것이다. 모든 문제를 분석하여 화쟁의 문제를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요인으로 인하여 화쟁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도록 한다.

117) 박태원(2017), 앞의 책, p.134.
118) 위의 책, p.135.

토론자들은 오늘날 화쟁의 사회적 적용에 대하여 논하였는데, 그들이 다른 이슈는 앞서 화쟁의 사례처럼 해소되거나 조정이 된 것이 아니다. 이도흠은 원효의 화쟁이 불교적인 것이라서 사회적으로 적용하면 오유나 비약이 생긴다는 생각을 말하였다. 원효의 화쟁과 붓다의 가르침을 보면 어디에서도 지금의 종교 불교의 행태는 나타나지 않는다. 지금 종교로서의 불교의 모습과 행태는 현재 그것을 운영하는 종교 직업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 원효나 붓다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화쟁을 실천하는 것을 중재 또는 중재자로서의 역할과 당사자의 화쟁 실천으로 나누어 생각하고 있다. 조계종 종단 내의 문제로 인해 당사자로서의 화쟁은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중재자로서 사회적 문제에의 화쟁 또한 오염되고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피해자 가해자 강자 약자 권력관계 등의 문제에서 갈등해소 문제해결 치유 등의 문제로 분류별 단계별로 나누어 논하는 것도 진정한 화쟁의 결과였던 것인가를 의심케 한다.
그렇지만 화쟁을 오늘 현재로 불러와 대립과 갈등의 국면을 해소하여 치유의 길로 가는 것에 대한 본 연구에는 잘못 적용된 사례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림 20> 현실 화쟁의 성공조건

오늘날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견해의 대립, 갈등 문제는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방어하며 더 큰 이득을 얻기 위해 더 치열하고 독하게 싸우는 양상이다. 지금 여기에서 발생한 사회적 문제에 7세기 경전해석학으로 등장한 화쟁은 과연 나이브한 생각인 것인가 아니면 화쟁에 대한 진정한 연구가 부족하여 저런 화쟁을 화쟁한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앞서 밝혔듯이 영화에서의 사례들을 주요 화쟁 대상으로 보는 영화 치유의 방법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계기로 생각한다.

박태원은 「‘문(門) 구분의 화쟁(和諍)과 통섭(通攝)’을 ‘지금 여기’로 소환하기 위한 성찰」에서 원효의 ‘문 구분을 통한 화쟁’은 붓다의 연기 법설처럼 견해에 ‘합리의 힘’을 장착할 수 있는 원천이므로 ‘지금 여기’의 쟁론 세상으로 소환할 수 있다

고 한다. 여기에는 성공의 조건으로 필요한 현실적 부가조건들을 확보해야 하는데, '견해의 다면적 조건인과'를 이해하여 이견의 불통과 배타적 다툼을 치유하기 위한 조건은 <그림 20>와 같다.[119]

화쟁을 오늘 지금 여기의 갈등과 대립 문제에 도입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첫 번째는 견해 주체들 간의 상호신뢰 문제를 꼽고 있다. 눈앞에서 자신과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속고 속이는 싸움의 양상에서 순진하게 상대의 말과 행동을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이런 경우 화쟁은 실행될 수 없다. 화쟁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견해의 주체들이 각기 상대방에게 믿음을 얼마나 보장할 수 있느냐에 따라 화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당사자가 아닌 중재인이나 대리인의 경우 그 신뢰를 형성하기는 진정 어려울 것이다.

> "내 의견은 ~한 조건인과에서 타당/부당하고, 당신 의견은 ~한 조건에서 타당/부당한 것입니다. 그러니 각자 의견의 조건적 타당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조정해 봅시다."[120]

위의 조정을 위한 제안은 실현되기 어려운 조건이다. 그러나 원효의 화쟁에서는 '인간에 대한 근원적 신뢰'를 필요로 한다. 비록 상대가 나의 선의와 합리적 태도를 악용하더라도 우선 보장해야 하는 것은 견해 대립의 당사자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선의와 합리적 태도를 저버리지 않는 태도와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대의 악의로 인하여 한쪽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진정성이 훼손당하는 일이 생기게 될 때를 대비해서 그 견해의 대립의 해소를 원하고 지켜줘야 하는 사회구성원들의 지원이 약속되어야 한다. 그것이 법적인 처벌이거나 민사상의 배상이거나 간에 상대가 악의를 지속적으로 가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 제도적 지원[121]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고려'는 오늘날 사회적 문제에의 화쟁을 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이다. 이유는 견해의 충돌인 쟁론은 강자와 약자, 유리한 조건과 불리한 조건의 주체들이 벌이는 싸움이기에 그렇다. 게다가 이런 종류의 싸움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싸움이다. 이렇듯 한쪽이 무조건 불리한 싸움을 화쟁으로 다루려면 불공정의 격차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규칙부터 확보한 후에나 가능하다.<그림 21> 그렇지 않으면 이미 패배가 자명한 이 싸움에

---

119) 박태원(2017), 앞의 책, p.140.
120) 위의 책.
121)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지 않아서 부자나 권력자의 경우 자신에게는 미미한 경제적 부담만 감수하는 결과를 악용, 같은 잘못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경향이 많이 있다. 사학에서 감정적 면직처분을 반복해서 시행하더라도 사학이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현실이다. 이런 경우 갈등이나 문제의 해결을 위한 화쟁을 도입하는 순간 피해만 가중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약자가 참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강자도 그런 제약의 조건을 받아들여야 하는 명분이 필요하다는 전제도 있어야 한다. 쟁론의 싸움에서 화쟁적 태도를 선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감내하는 선택은 강자가 먼저 행하는 것이 공정하다. 그래야 약자도 화쟁적 선택을 할 의지가 생기고 결과에도 승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회적 정의와 공정성의 구현을 위한 모든 노력도 결국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게임에 기꺼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룰을 만드는 문제일 것이다.

<그림 21>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요구되는 규칙

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조계로 피신해 있던 사건에서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대중의 눈을 가리는 중재만 하고 강자와 약자 사이에서의 실재적인 화쟁에 실패하고 결국 약자인 한상균 위원장을 경찰에 내주고 말았다.[122]

> “사회 갈등 속에서 화쟁을 통한 불교적 가치의 구현은 소외되어 고통 받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면서도 동시에 갈등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 물론 이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다. 하지만 약자와 기득권을 가진 자가 대립할 때 단순한 갈등 해소나 조율이 아니라 발전적이면서도 약자의 고통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코끼리’를 찾아내는 것이 진정한 불가의 화쟁이다.”[123]

---

122) 본 연구자도 그 당시 화쟁위원회가 중재자의 역할을 자임하면서 내세운 화쟁을 보며 실망을 금할 수 없었으며 불교철학 공부에 대한 회의가 들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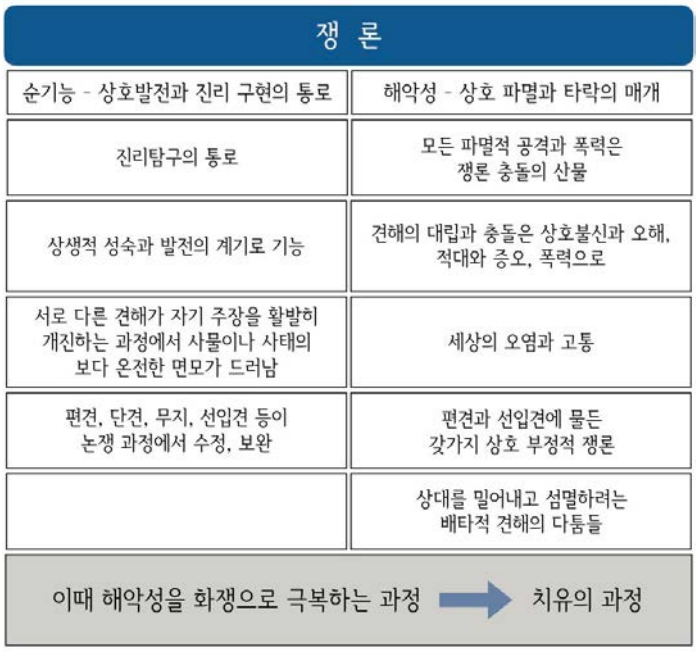
123) 우희종, 「[주장] 조계종・정부 빼고 약자들만 손해본 조계사 사태... 길 잃은 조계종 화쟁위」, 오마이뉴스, 2015.12.12.
이 글에서 우희종은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그간 사회적 문제에 중재로 나선 결과에 대해 꾸짖고 있다. “쌍용차 사태, 한진 중공업 사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태 등 대표적인 사례에서만 보아도, 화쟁위원회는 외형적 대립상황을 소위 ’평화롭게’ 끝내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약자를 어루만지며 양측 모두 만족스럽게 마무리한 적이 과연 있었던가. 결코 아니다. 단지 표면적 갈등이 사라졌을 뿐이다. 약자와 기득권 세력이 부딪혔을 때 양쪽 모두 만족스러운 결론 없이 조용히 끝났다면, 그건 결국 기득권 구조를 강화 시켰다는 걸 뜻한다.” 결국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고려 없이 약자와 강자와의 불합리한 대립상황의 해결만 추구한 화쟁위원회의 중재자 역할은 그 누구에게도 치유의 길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원효의 화쟁을 오늘날 지금 여기의 대립과 갈등의 문제로 불러오는 문제는 이상과 같은 현실보완적 조건들을 충족하게 된다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깨달음은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함과 더불어 새로운 공존의 지평을 열게 할 것이다.

> "원효가 펼치는 문(門) 구분을 통한 화쟁은 지금 여기 우리의 실존과 세상에 고스란히 유효해 보인다. 삶과 세상의 연기(緣起)적 합리화 - 그것이 붓다와 원효가 권하는 화쟁의 길이라고 본다."[124]

3. 화쟁과 치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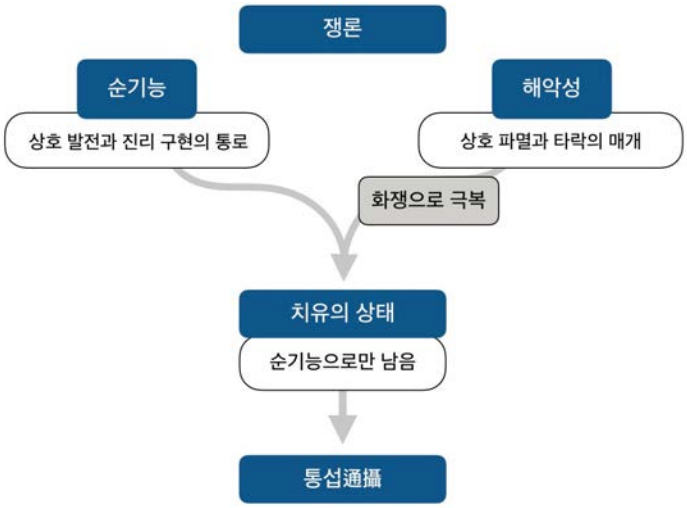
앞 장에서 견해의 대립으로 발생하는 쟁론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쟁론은 언어를 구사하는 '인간의 언어 싸움'이며 언어적 존재인 인간의 '인간적 다툼 방식'이고 인간세의 특징적 면모라고 하였다. 쟁론은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상호발전과 진리구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배타적일 경우 대립하는 상대의 견해나 주장은 나의 견해나 주장에 흡수 통일시켜 동일시하거나 아니면 제거해 버리는 폭력성을 띄게 된다. 이 과정에서 대립하는 상대는 어느 한 쪽의 일방적 승리만 남게 되고 패한 쪽은 패배의 아픔을 안게 된다.



<그림 22> 쟁론의 속성

124) 박태원(2017), 앞의 책, p.7.

이런 쟁론은 물리적 싸움으로 인한 상처를 남기는데, 바로 언어적 폭력에 의한 마음의 상처이다. 상대를 무시하고 공격하며 밀어내는 배타적 견해의 다툼은 결국 상호관계도 깨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림 22>은 이러한 쟁론의 순기능과 해악성의 두 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3> '화쟁과 치유 그리고 통섭'의 관계도

화쟁은 배타적 쟁론으로 인해 대립하는 견해의 충돌을 해소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부정적 작용과 편견, 선입견 등으로 인한 상처와 고통을 치유한다. 앞서 '신김치 맛에 대한 견해의 대립' 사례에서 보았듯이 화쟁은 발생한 견해의 충돌을 해소함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대립하는 쌍방에 서로가 '견해 차이의 조건인과'를 알게 된다.
더불어 화쟁의 결과 대립하게 된 원인은 제거되고, 서로가 일방적/ 절대적/무조건적 주장을 펼쳤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며 마침내 서로의 차이에 대한 이해와 상호존중의 지평에 이르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이득을 얻는다. 원효는 이것을 통섭의 경지로 설명하고 있다.
<그림 23>는 쟁론에서 화쟁을 거쳐 치유의 단계로 가는 과정을 보여줌과 동시에 통섭의 의미를 보여준다.

앞서 본 논문 [표 12] '화쟁의 의미'를 통해 쟁론의 상태일 때 불각(不覺), 화쟁의 과정에서의 시각(始覺) 그리고 통섭의 단계에서의 본각(本覺)을 대입시켜 보았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과 깨달음에 관한 정의가 그렇듯이 통섭은 화쟁의 결과로 성취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통섭(通攝)의 지평에 이르기 위해서는 화쟁과 본각, 일심, 여래장의 체계를 거쳐야 한다. <그림 23>의 그림에서 화쟁 과정을 치유의 과정으로 놓으면 이는 곧 원효의 시각(始覺)으로 읽을 수 있다.

시각(始覺)	본각(本覺)
비로소 깨달아 감	본연적 깨달음
그 인지 문법에 대한 성찰적 자각과 치유과정	인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품게 된 인지능력의 최고가능성과 면모
견해에 합리의 힘을 싣는 화쟁의 여정, 차이 왜곡과 오염의 인식문법을 치유하는 비로소 깨달아 감(始覺)의 길에 인류가 본격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희망의 단서[125]	본각(本覺) 구현을 위한 시각의 행보

[표 21] 본각과 시각의 관계

[표 21]에서 시각과 본각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이 둘을 나누어 설명했지만 이것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경지가 아니다. 본각(本覺)은 시각(始覺)의 뜻에 상대하여 만들어 진 것으로 시각은 곧 본각으로 본다. 본각, 시각, 불각에 대한 『금강삼매경론』의 가르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26]

> "이것은 '[불변・독자의 본질/실체로 차별되어] 둘로 나뉘지 않는 차이'(無二之相)를 '곧바로 사실대로 이해함'(正觀)을 밝힌 것이니, '취해진 것'(所取)과 '취하는 자'(能取)[를 불변・독자의 본질/실체로 보는] 두 가지 [분별]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취해진 것'(所取)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모든 '사람과 현상에 대한 [불변・독자의 본질/실체로 차별된] 차이'(人法相)에서 벗어났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첫 번째는 '[비로소] 보내어 벗어나는 것'(遣離)이고 두 번째는 '[본래부터] 없어서 벗어나는 것'(泯離)이다. '[비로소] 보내어 벗어나는 것'(遣離)이라는 것은, <앞서 취한 '[불변・독자의 본질/실체로 차별된] 차이'>(先所取相)를 지금 없애버리는 것이니, 『금강삼매경』에서 "저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일체현상의 의지처인] 마음(心)과 [사람인] 자아[를 '불변・독자의 본질/실체인 차이'(相)들로 보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한다"(令彼衆生, 皆離心我)라고 말한 것과 같다. '[본래부터] 없어서 벗어나는 것'(泯離)이라는 것은, <앞서 취한 '[불변・독자의 본질/실체로 차별된] 차이'>(先所取相)가 '본래부터 불변・독자의 본질/실체가 없는 것'(本來空)이니, 『금강삼매경』에서 "[일체현상의 의지처인] 마음(心)과 [사람인] 자아는 모두 본래부터 '불변・독자의 본질/실체가 없는 것'(空寂)이다"(一切心我, 本來空寂)라고 말한 것과 같다.
>
> "[일체현상의 의지처인] 마음(心)과 [사람인] 자아"(心我)라고 말한 것은, 사람(人)을 자아(我)라 부르고 현상(法)을 마음(心)이라 부르니, 마음(心)은 모든 현상이 의거하는 주체(主)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과 현상들'(人法)이 본래부터 '불변・독자의 본질/실체가 없음'(空)을 깨달을 때, [그들에 대해] <앞서 취한 '[불변・독

125) 박태원(2017), 앞의 책, p.145.
126) 『금강삼매경론』을 인용하면서 원문을 임의대로 잘라내어 사용하는 것보다 내용별로 묶어서 인용하였기에 다소 긴 인용문이 되었다.

자의 본질/실체로 차별된] 차이'〉(先所取相)는 이때 일어나지 않으니, 따라서 ['보내서 벗어나는 것'(遣離)과 '없애서 벗어나는 것'(泯離)의] '두 가지 벗어남'(二離)을 한꺼번에 성취하는 것이다. '취한 것'(所取)[을 불변·독자의 본질/실체로 보는 생각]에서 벗어남에 대해서 다 설명하였다.

[그러면] '취하는 자'(能取)[를 불변·독자의 본질/실체로 보는 생각]에서 벗어남이란 무엇인가? 모든 〈'취하는 자'를 [불변·독자의 본질/실체라고] 분별함〉(能取分別)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여기에도 두 가지가 있으니, 첫 번째는 '본래부터 벗어남'(本離)이요, 두 번째는 '비로소 벗어남'(始離)이다.

'본래부터 벗어남'(本離)이라는 것은, [일체현상의 의지처인] 마음(心)과 [사람인] 자아(我)가 본래부터 '불변·독자의 본질/실체가 없다'(空)는 것을 통달할 때 곧바로 〈'깨달음의 본연'[인 '사실 그대로 앎']을 일으키는 '불변·독자의 본질/실체가 없는 마음'〉(本覺空寂之心)을 성취한다. 이 '불변·독자의 본질/실체가 없는 마음'(空寂之心)은 본래부터 '취하는 자'(能取)[를 불변·독자의 본질/실체로 보는 생각]에서 벗어나 있으며, '취하는 자'(能取)[를 불변·독자의 본질/실체로 보는 생각]에서 벗어나있기 때문에 본래부터 '허깨비 같은 환상'(幻化)이 없다. [이는]『금강삼매경』에서 "만약 '불변·독자의 본질/실체가 없는 마음'(空心)을 얻으면, [이] 마음은 '허깨비 같은 환상'(幻化)을 짓지 않으니"(若得空心, 心不幻化)라고 한 것과 같으니, "[이 마음은] '허깨비 같은 환상'(幻化)을 짓지 않는다"는 것은 [환상을 짓지 않는 그 마음이] 허망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로소 벗어남'(始離)이라고 한 것은, 이 〈'깨달음의 본연'[인 '사실 그대로 앎']을 일으키는 '불변·독자의 본질/실체가 없는 마음'(本覺空寂心)〉을 성취할 때에는 〈'취하는 자'를 [불변·독자의 본질/실체라고] 분별함〉(能取分別)이 다시는 생겨나지 않으니, ['깨달음의 본연'(本覺)[인 '사실 그대로 앎']을] 성취하는 마음에 따라 '허깨비 같은 환상'(幻化)이 없는 것이다. [이는]『금강삼매경』에서 "'허깨비 같은 환상'(幻化)을 없애면 곧바로 '[불변·독자의 본질/실체로서] 생겨난 것이 없음'(無生)[의 경지]를 얻는다"(無幻無化, 卽得無生)라고 한 것과 같다. 이와 같이 비로소 '[불변·독자의 본질/실체로서] 생겨난 것이 없는 마음'(無生之心)을 얻으면 '본래부터 불변·독자의 본질/실체가 없고 [불변·독자의 본질/실체로 보는 분별의] 동요가 없다고 보아 환상을 없애는 도리'(本空寂無化之理)와 하나가 되니, 그러므로 [『금강삼매경』에서] "'[불변·독자의 본질/실체로서] 생겨난 것이 없는 마음'(無生之心)은 '환상을 없앰'(無化)에 있다"(無生之心, 在於無化)고 말한 것이다. ["환상을 없앰에 있다"(在於無化)에서 '있다'(在)는 표현을 쓴 것은] ['[불변·독자의 본질/실체로 차별된] 차이'(相)가 없어진] '마음의 세계'(心境)를 방편으로 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편에] 의거하여 "있다(在)"는 식으로 말한 것이다.

'취하는 자'(能取)[를 불변·독자의 본질/실체로 보는 생각]에서 '비로소 벗어남'(始離)은 '['사실 그대로'를] 비로소 깨달아감'(始覺)의 측면(義)이고, '본래부터 벗어남'(本離)인 '불변·독자의 본질/실체가 없는 마음'(空心)은 '깨달음 본연'(本覺)[인 '사실 그대로 앎']의 측면(義)이다. 측면(義)에는 비록 두 가지가 있지만 [이 두 측면이] 서로 섞여 '하나처럼 통하게 하는 깨달음'(一覺)을 이루니, ['비로소 벗어남'(始離)과 '본래부터 벗어남'(本離)은] 모두가 주관(能)과 객관(所)[을 불변·독자의 본질/실체로 보는 생각]에서 벗어나고, ['['사실 그대로'를] 비로소 깨달아감의

측면'(始覺義)과 '깨달음 본연[인 '사실 그대로 앎']의 측면'(本覺義)에서 각각] '새로운 [분별]'(新)과 '오래된 [분별]'(舊)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이것은]『대승기신론』에서 "'['사실 그대로'를] 비로소 깨달아감'(始覺)이란 것은 바로 '깨달음의 본연'(本覺)[인 '사실 그대로 앎']과 같다"(以始覺者, 卽同本覺)고 한 것과 같다. 이 [하나처럼 통하게 하는] 깨달음은 '생겨남과 사라짐'(生滅), '시작과 끝'(始終) 등 '[불변·독자의 본질/실체로 차별된] 차이'(相)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며, [이 깨달음에 해당하는] 처음인 '[십지十地의] 첫 번째 경지'(初地)에서 [마지막인] '부처 경지'(佛地)에 이르기까지 단지 '부분적인 것'(分)과 '완전한 것'(滿)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십지경론十地經論』의「본분품本分品」에서 "'그 본연'(自體)은 본래부터 불변·독자의 본질/실체가 없으니, [불변·독자의 본질/실체가 없기 때문에] '있는 것'(有)은 '[다른 것들과 불변·독자의 본질/실체로서] 다른 것이 아니고'(不二) '[차이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도 아니다'(不盡)"등으로 자세하게 설명한 것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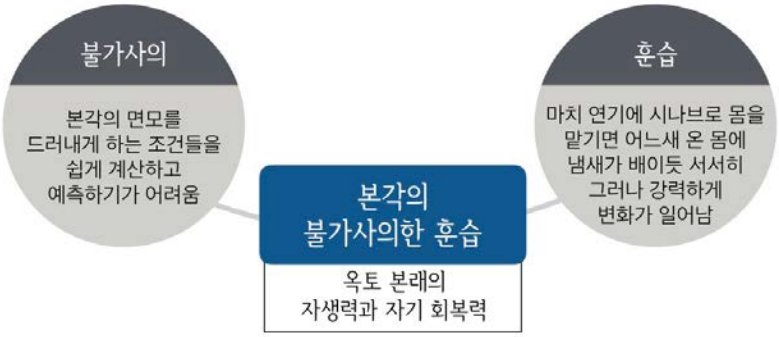
또 이 '하나처럼 통하게 하는 깨달음'(一覺)에는 〈'깨달음 본연의 측면'과 '비로소 깨달아감의 측면'〉(本始義)이 [모두] 있으니, 〈깨달음의 본연[인 '사실 그대로 앎']의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어 이루는 측면'〉(本覺顯成義)이 있기 때문에 '진리대로 닦는다는 설명'(眞修之說)에도 도리가 있고, 〈['사실 그대로'를] 비로소 깨달아감의 '닦아서 이루는 측면'〉(始覺修成義)이 있기 때문에 '새로 닦는다는 주장'(新修之談)에도 도리가 있다. [따라서 본각本覺이나 시각始覺의 어느 한 측면에만] 치우쳐 집착하면 곧 '완전하지 못함'(未盡)이 있는 것이다. 이제 '부차적 논의'(乘論)는 그치고 다시 [『금강삼매경』의] 본문을 해석할 것이다. '[불변·독자의 본질/실체로 차별된] 차이가 없음에 대한 이해'(無相觀)를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이상으로 마친다."[127]

본각(本覺)은 진여(眞如) 그 자체로 누구나 원래 갖추어 있는 것이다. 그 본각을 깨달아가는 것을 시각(始覺)이라고 하고 진여가 미혹에 덮여 있는 것을 불각(不覺)이라고 한다. 시각, 본각, 불각의 관계를 정리하자면 시각을 본각에 대비하여 말하여 아직 본각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있으므로 불각이 있다고 한다.

---

127) [H1, 611b22~612a7; T34, 965b24~c21] : 是明正觀無二之相, 以離所取能取二故. 離所取者, 以離一切人 法相故. 此有二種, 一者遣離, 二者泯離. 遣離者, 先所取相, 今 滅除故, 如經"令彼衆生, 皆離心我" 故. 泯離者, 先所取相, 本來 空故, 如經"一切心我, 本來空寂"故. 言"心我"者, 人名爲我, 法 名爲心, 心是諸法所依主故. 達諸人法本來空時, 先所取相, 此時 不起, 所以二離, 一時成就. 已說離所取. 云何離能取? 謂離一切 能取分別, 此亦二種, 一者本離, 二者始離. 言本離者, 通達心我 本來空時, 正得本覺空寂之心. 此空寂心, 本離能取, 離能取故, 本不幻化. 如經"若得空心, 心不幻化"故, "不幻化"者, 非虛妄故. 言始離者, 得此本覺空寂心時, 能取分別, 不復得生, 隨所得心, 無幻化故. 如經"無幻無化, 卽得無生"故. 如是始得無生之心, 會 本空寂無化之理, 故言"無生之心, 在於無化." 假說心境故, 寄言 在然. 始離能取, 是始覺義, 本離空心, 是本覺義. 義雖有二, 混 成一覺, 同離能所, 離新舊故. 如論說言, "以始覺者, 卽同本覺." 當知此覺, 永離生滅始終等相, 始從初地, 乃至佛地, 但有分滿不 同而已. 如 十地論 本分中說, "自體本來空, 有不二不盡", 乃至 廣說. 又此一覺, 有本始義, 以有本覺顯成義故, 眞修之說, 亦有 道理, 以有始覺修成義故, 新修之談, 亦有道理. 如其偏執, 卽有 未盡. 且止乘論, 還釋本文. 廣無相觀, 竟在於前. ; 번역은 박태원, 원효학토대연구소, 『금강삼매경론 상』, pp.292~296 참조.

"각(覺)의 뜻에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본각(本覺)과 시각(始覺)을 말한다. 본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불각(心性)이 불각의 모습을 여읜 것을 말하니, 이 각조(覺照)의 성질을 본각이라고 이름한다. 이는 아래 글('삼대')에서 自體有大智慧光明義故고 한 것과 같다.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심체(心體)가 무명의 연을 따라 움직여 말념을 일으키지만, 본각의 훈습의 힘 때문에 차츰 각의 작용이 생겨, 궁극적으로 본각과 같아지니 이를 시각이라고 이름한다."[128]



<그림 24> 본각의 불가사의한 훈습의 개념

지금까지 화쟁과 치유에 대한 고찰 중 화쟁의 개념과 치유의 관계를 살펴보았고 이제 치유에 대한 것을 알아보도록 한다. 앞의 [표 21]에서 불각(不覺)으로 인한 쟁론에 화쟁(和諍)을 실천하게 되면 그 과정은 곧 시각(始覺)이며 시각은 '비로소 깨달아 감'이라 하였다. 이것은 곧 그 인지 문법에 대한 성찰적 자각과 치유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다. 붓다는 '깨달아 간다는 것'이 곧 치유능력의 계발이며, '깨달았다'라는 것은 치유능력의 확보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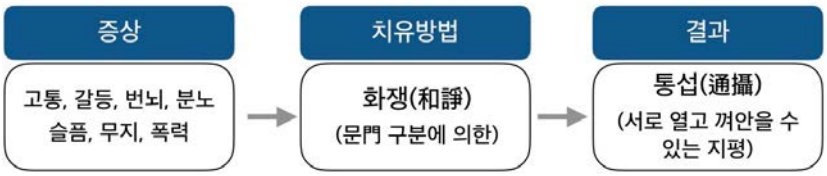
"붓다의 모든 가르침은 탐욕·분노·무지의 근원적 해체를 겨냥한다. 붓다는 탐욕·분노·무지의 원천 치유에 유효한 것들에만 '진리'의 자격을 부여한다. 그가 깨달음을 통해 성취한 것은 결국 탐욕·분노·무지의 근원적 치유능력이었다. 그는 그 능력을 세상과 공유하기 위해 다양하게 변주했다. 사성제 연기, 육근수호 법설, 무아, 12연기 등은 그 대표적 노랫가락이다. 붓다의 전통에서 '깨달아 간다는 것'은 탐욕·분노·무지의 치유능력을 계발해 가는 것이고, '깨달았다'는 것은 치유능력의 확보이며, '깨달아 마쳤다는 것'은 탐욕·분노·무지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다."[129]

이로써 화쟁과 치유의 개념 그리고 치유능력까지 고찰해 보았다. 이제 치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

128) 『별기』(1-683b~11); 『회본』(1-748c7~14) : 【별기】言"覺義"者, 卽有二種, 謂本覺始覺, 言"本覺"者, 謂此心性離不覺相, 是覺照性, 名爲本覺, 如下文云, "所謂自體有大智惠光明義故". 言"始覺"者, 卽此心體隨無明緣動, 作妄念, 而以本覺熏習力故, 稍有覺用, 乃至究竟, 還同本覺, 是名始覺. ; 번역은 박태원, 원효학토대연구소, 『대승기신론 소·별기 상』, p.439 참조.

129) 박태원, 원효학토대연구소, 『금강삼매경론 상』, p.129, 세창출판사, 2020.



<그림 25> 화쟁 치유 개념도

언어 때문에 생겨나는 인간 특유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고통, 갈등, 번뇌 슬픔, 무지, 폭력의 양상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문 구분에 의한' 화쟁으로 사기, 차별, 배제의 속성을 가진 '동일성'을 깨뜨려야 치유가 된다. 화쟁에 의한 치유는 인간의 삶의 문제 해결력과 치유력을 길어 올려 더 이상 번뇌, 고통 등에 매달리지 않는다.

박태원은 붓다의 연기 사유가 가지는 치유 효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 "니까야/아함에서 확인되는 붓다의 언행은 연기 통찰에 의한 세계의 '조건인과적 치유', 다시 말해 '연기법적 합리화'였다고 본다. '연기법적 합리화'라는 말은, 개인과 사회에 관한 관점과 행위들 및 그에 의거하여 수립된 질서나 제도를 '무조건적 / 절대적 사고'로써 왜곡하려는 본질주의/절대주의/실체주의의 허구와 오염을, '조건인과적 사고'로써 간파하고 수정하며 치유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기법적 합리화는, 해탈이라는 궁극적 문제풀이뿐만 아니라 일상과 세계의 모든 실존문제를 사실관계에 맞추어 유익하게 풀어 가는 해법이다. 따라서 연기법은 모든 실존치유의 근원적 힘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또 그래야만 한다. 신분·계층·인종·성·지역 ·국가·시장·종교·이념의 통념·관행· 질서·제도를 장악하여 오염시키는 '무조건 / 절대 / 본질적 사고'의 허구와 폭력을 간파하고 치유하는 것이 연기법의 실존치유력이다. 붓다 자신도 이 연기 해법을 개인의 해탈 문제뿐만 아니라, 신분 · 혈통 · 신념 · 종교 · 직업 · 언어 등 모든 실존 문제에 일관되게 적용하여 풀어 가고 있다. 연기법을 개인의 존재해탈 해법으로 국한시키려는 경향은, 연기법의 제한이나 왜곡일 수 있다. 불교의 연기설들, 다시 말해 '전통적 연기 해석학들'은 모두 이러한 문제점에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본다면, 불교의 연기설들을 계승해 온 전통은 연기법 본래의 실존치유력을 복원시켜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130]

이러한 붓다의 연기는 원효의 문 구분의 화쟁으로 계승되었는데, 원효는 『대승기신론』에서 일심이문(一心二門)의 논법을 사용하여 붓다의 가르침을 해석하였다. 원효가 구사한 「대승기신론」의 조건 발생적 인과관계의 구분으로서의 이문(二門)은 통섭과 화쟁의 개념으로 나누어진다.[표 22]

---

130) 박태원(2017), 앞의 책, p.74.
131) 위의 책, p75.

이문(二門) - '조건적 발생의 인과계열 구분'[131]	
불교교학의 소통적 통합(通攝)	견해다툼의 치유(和諍)

[표 22] 대승기신론의 이문(二門)에 대한 원효의 해석

불교교학의 소통적 통합으로의 통섭은 원효가 화쟁 사상을 실천하게 한 근본적인 목표였을 것이다. 붓다의 가르침이 각기 갈라진 종단에 의해서 이리 말하고 저리 말하며 서로를 아니라고 밀어내고 배척하는 당시의 불교계의 혼란을 어찌 두고 볼 수 있었을 것인가. 붓다의 진리 하나만을 염두에 두고 이 견해도 들어보고 저 견해도 들어서 둘 다가 결국은 붓다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임을 밝혀내고, 둘의 견해는 각기 어느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을 상호 인과적으로 바꾸어 불교교학으로서의 발전에도 기여하게 하는 통섭(通攝)은 서로 열고 서로 끌어안아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이다.

그리고 대립하는 견해의 충돌,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누구나 수긍할 수밖에 없는 인과의 증명으로 대립의 원인을 찾아 해소해 버리는 화쟁(和諍)은 상대의 일방적 견해를 오류를 잡아내어 주저앉히는, 굴복시키고자 하는 폭력적 다툼 해결방식이 아니라 상호 주장의 조건에 대하여 확인하고 서로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지로 다툼의 양상을 변화시키니 이는 불교교학의 문제를 넘어 세상사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보편 철학으로서의 가치로 굳건히 선 것이라 하겠다.

불교교학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이 겪는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것에도 이문(二門)의 개념을 도입할 수 있다. 삶의 두 가지 조건인과 계열을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통합이론으로 이문을 도입하여, 삶의 오염과 훼손을 발생시키는 조건인과와 치유의 조건인과로 나누어 치유의 과정을 살펴보면 [표 23]와 같다.

삶의 오염과 훼손을 발생시키는 조건인과의 구별로 병의 증상과 원인을 찾아내고, 치유의 조건인과로 화쟁을 실천하고 통섭의 길로 나아간다. 인간에서 원래 있던 본각이 시각으로 인해 눈을 뜨고 이로부터 불가사의한 훈습으로 본각 스스로의 자생력과 자기 치유력을 가지게 된다.

132) 박태원(2017), 앞의 책, p.84.
133) 위의 책, p.83.
134) 위의 책, p.85.

<table>
<tr><th colspan="3">이문(二門) : 삶의 두 가지 조건인과 계열</th></tr>
<tr><td colspan="2">삶의 오염과 훼손을 발생시키는
조건인과</td><td>치유의 조건인과</td></tr>
<tr><td>병의 증상</td><td>병의 원인</td><td>치유의 조건</td></tr>
<tr><td>분별은 주로 ‘사실을 왜곡하는 지적 이해’와 관련된 현상으로서 무지/오해/편견/독단/선입견 등의 모습을 취하고 번뇌는 분별과 상응하여 발생하는 정서적 현상으로서 탐욕과 분노의 다양한 표현들로 나타난다</td><td rowspan="2">모든 주/객관적 대상을 처리하는 적절한 관점을 수립하지 못하고, 그리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에, ‘분별의 왜곡’과 ‘번뇌의 오염’이 발생하고 지속되며 또 확산된다.[132]</td><td>생멸문을 조건으로 삼아야 진여문이 성립하고, 진여문을 조건으로 삼아야 생멸문이 치유의 희망을 품게 된다</td></tr>
<tr><td>분별과 번뇌는 모두 마음과 연관되어 있다.[133]</td><td>‘서로 분리되지 않는다’(불상리)을, ‘진리’(리)와 ‘현상’(사)의 ‘서로 열리고 끌어안는’(통섭) 관계로 설명한다.[134]</td></tr>
</table>

[표 23] 이문으로 인간이 겪는 마음의 병 치유 과정

이러한 과정에서 원효의 문 구별 사유방식은 점차 발전하게 되는데, 첫째로 문(門) 구별의 사유 방식에 눈을 뜨게 되고 두 번째로는 그 문(門) 구별의 사유 방식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조건인과의 구별로 얻은 결과로 상대에게 자기 견해의 무결점성이나 절대성을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 다른 관점과 이론들을 서로 열고 서로 안을 수 있는 통섭과 화쟁의 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문(門) 구별 사유 방식의 최고 정점이라 하겠다.[표 24]

문(門) 구별의 사유방식의 3단계 발전		
①	②	③ 발전의 정점[135]
「대승기신론」의 ‘진여/생멸 이문(二門) 구별’에서 문(門) 구별의 사유방식에 눈뜬 것	문 구별의 사유방식을 활용하여 문 구별의 다양한 방식들을 전개하는 것	문 구별의 사유방식을 통해 상이한 이론과 관점들이 서로 열고 서로 안을 수 있는 통섭과 화쟁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

[표 24] 문 구별의 사유방식의 3단계 발전

135) 박태원(2017), 앞의 책, p.107.

문(門) 구분의 화쟁 그 치유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대상을 분별하여 아는 것(識)이다. 원효는 이것을 주관이나 객관의 모든 현상에 '빠져들지 않고 그치는'(止) 능력과 그 그친 국면이나 자리에서 '사실대로 이해하는'(觀) 능력을 묶어 '온전한 이해수행'(正觀)으로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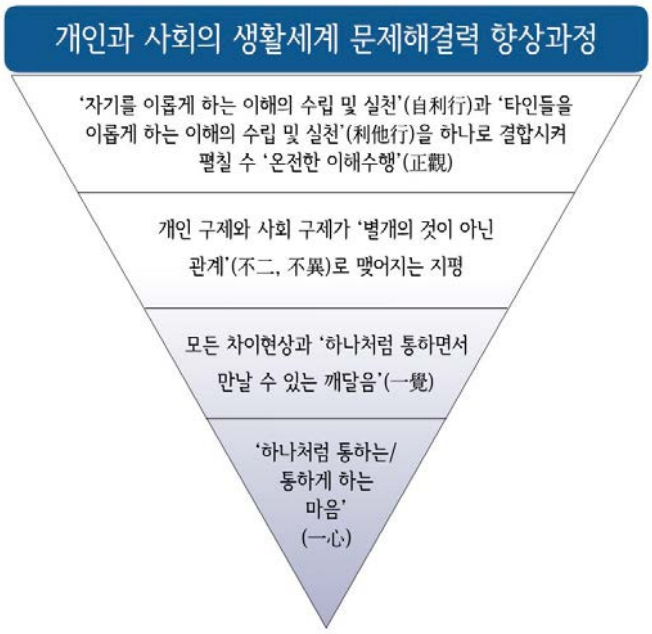
> "'온전한 이해수행'(正觀)은 '자기를 이롭게 하는 이해의 수립 및 실천'(自利行)과 '타인들을 이롭게 하는 이해의 수립 및 실천'(利他行)을 하나로 결합시켜 펼칠 수 있는 실력을 키워 가는 것이기도 하다. 개인 구제와 사회 구제가 '별개의 것이 아닌 관계'(不二, 不異)로 맺어지는 지평이 비로소 꽃을 피우는 단계이다. 이 후에는 모든 차이현상과 '하나처럼 통하면서 만날 수 있는 깨달음'(一覺)이 뚜렷하게 되고, 마침내 모든 차이들과 '하나처럼 통하는/통하게 하는 마음'(一心)이라 부르는 궁극의 인지능력이 성취된다."[136]

그런데 본 연구자는 여기에서 '온전한 이해수행'(正觀)은 '자신과 타인 모두의 이해의 수립 및 실천'이라는 점을 주목한다. 개인 구제와 사회 구제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관계'(不二, 不異)의 지평, 이것이야 말로 오늘날 현재 한국 사회에서 절실히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앞서 화쟁위원회의 사회적 참여가 무위로 끝나버린 원인은 바로 당면한 사회적 문제에 '온전한 이해수행'(正觀)이 부족했던 것이라 하겠다. 원효의 화쟁을 논하면서 입으로만 일심을 외치고 외우는 것은 원효의 일심(一心) 사상을 박물관에 박제해 버리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 "이 일심 여정에서는, 불변·독자의 실체·본질 관념으로 차이들을 왜곡하고 오염시켜 부당하게 다루어 오던 실체·본질주의의 기획의 갖가지 해로운 민낯이 고스란히 폭로된다. 동시에 종교·철학·문화·전통·관습·제도의 옷을 걸치고 국가의 보호 아래 위세를 떨치던 실체·본질주의의 기만과 폭력을 치유하는 능력이 향상한다. 이 성찰과 치유의 여정은 '조건 인과적 합리성'을 경험세계 내에서 구현시켜 간다. 모든 현상을 '조건에 따라 인과적으로 발생'(緣起)한 것으로 이해하는 연기적 이해능력으로 '차이현상들의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고, 그 차이들과 서로 막힘없이 공명(共鳴)하며 호혜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조건 인과적 합리성의 광대한 구현과정'이 그 여정의 풍경이다. 조건 인과적 합리성을 개인적·사회적으로 고도화시키는 최고수준의 능력을 원효는 '하나처럼 통하면서 만날 수 있는 깨달음'(一覺)으로 노래한다. 그리고 '하나처럼 통하는/통하게 하는 마음'(一心)은 그 여정의 시작이고 여러 기착지이며 최종 목적지이다."[137]

붓다는 일반적인 종교에서 섬기는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다. 붓다는 일신의 평안함이나 현실을 초월한 절대자도 아니었다. 붓다는 깨우친 자로서 그러지 못한 중생

136) 박태원(2019), 앞의 책, p.130.
137) 위의 책.



<그림 26> 일심(一心) 여정

들에게 늘 올바른 가르침을 주려고 했다. 중생들은 언어로 인한 동일성의 환각에 빠져 차이로 배제하고 대립하고 치열하게 싸운다. 그래서 붓다는 '인간사'라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붓다의 연기 통찰은 중생들에게 언어로 인한 동일성을 깨뜨리게 하여 '고'의 원인을 제거하고 공의 맛을 알게 한다. 이러한 연기 통찰은 원효에게 계승되어 '문 구분에 의한 화쟁의 치유법'으로 거듭난다. 붓다가 교학으로써의 연기법을 넘어선 중생구제의 연기 통찰을 남긴 것은 원효의 일심 여정으로 이어진다. 개인 구제와 사회 구제가 '별개의 것이 아닌 관계'(不二, 不異)로 맺어지는 지평으로 통섭(通攝)의 장을 열어야 한다.

지금까지 화쟁과 치유의 개념과 원리 등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화쟁은 당면한 문제의 갈등과 대립에 대한 해소와 치유 등을 떠나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확인하고 발전'시킨다는 것으로도 오늘날 현재 여기에 꼭 필요한 사상이다. 하지만 본 연구자의 능력 부족과 연구 목적 등을 감안하여 화쟁과 통섭에 대한 이론적 접근의 입구까지만 안내를 하는 것으로 이 장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한다.

Ⅵ. 영화 <돌아온다>에서 만나는 원효의 치유철학

1. 영화에서 갈등 해소 사례 분석

앞서 'Ⅳ. 영화 <돌아온다>에 나타난 불교의 치유양상'편에서 등장인물들이 가진 갈등과 고통, 슬픔 등을 파악해 보았다. 여기에서는 앞에서 분석한 갈등의 양상이 해소된 방법을 살펴보도록 한다.

1-1. '진철'의 깨달음과 새로운 인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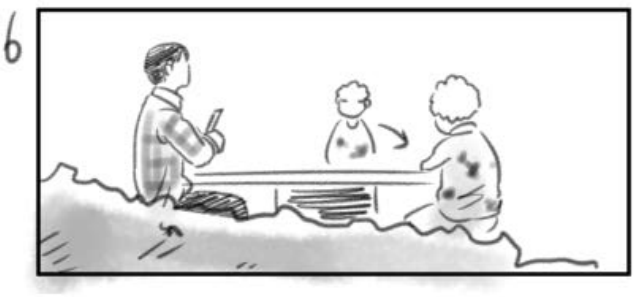
S#51	막걸리 집 마당	EXT	정오
	중개사가 복부인을 데리고 막걸리 집을 찾는다. 쫓아내는 변사장과 단골들.		

<그림 27> 영화 <돌아온다> 콘티북 #51

영화에서 진철은 8년간이나 집 나간 외국인 아내를 기다리며 매일 술에 취해 사는 캐릭터다. 그러던 진철은 어느 날 공인중개사 '연심'의 말에 의해서 분노가 폭발하게 된다. 연심은 동네 사람들의 비협조로 인해 중요한 거래가 파기된 것에 실망하고 분노하여 그동안 아무도 입에 올리려 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아픈 상처를 건드려 버린 것이다. 이 장면에서 진철은 연심의 말에 의해서 간신히 눌러 놓았던 그의 고통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버렸다.

본 연구자는 여기에서 진철은 두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하나는 지난 8년간 혼자서 집나간 아내를 기다리다가 스스로를 망가뜨린 자신에 대한 분노와 다른 하나는 연심의 사실 그대로의 현상 지적에 관한 말에 의한 상처이다. 진철의 분노는 연심에게 터져서 폭력으로 이어졌지만 진철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마침내 진철은 스스로의 미련을 깨끗하게 접으려 하였다. 어느 날 그는 그동안 먹던 술도 마시지 않고 자신이 때렸던 연심에게 사과와 함께 마지막 인사도 나누었다. 그렇지만 그것은 진철에게 잘못된 결과를 만들게 이끌었고 결국 진철은 자살을 시도한다.

S#25	막걸리 집 마당	EXT	아침
	제니 사진을 보고있는 진철. 변사장을 걱정하는 할매.		



-할매
지랄 승천을 한다.
-진철
(할매보고 환하게 웃는다)
얼레? 할매도 안오는 줄 알았네.
-할매
소새끼... 눈까리 뜨자마자 술이나 처묵고. 그러니 마누라가 도망을 가지... 고마 나가서 딸깍 뒤지라. 머하러 사노.
-진철
알았어. 나중에...
-할매
(주위를 보며)
어데 갔노.
-진철
몰라. 아무도 없어.
(중요한 일처럼 속삭이며)
그 아가씨도 없어. 둘이.
-할매
오데다가 주디를 갖다 대노!!

말과 동시에 진철의 일굴을 양손으로 저 미는 할매.
할매는 어떤지 걱정이 가득한 표정이다.

<그림 28> 영화 <돌아온다> 콘티북 #25

앞서 진철은 할매와의 대화에서 자신은 이미 지쳤으며 조만간 삶을 정리할 거라는 복선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진철은 자살에 실패하고 그를 위해서 달려와 준 사람들에 의해서 깨닮음을 얻는다. 늘 술에 취해 있다고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구박받으며 살았던 진철이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할까 걱정을 하여 달려와 주는 주변 사람들, 그 중에서도 늘 자신과 티격태격 다투던 연심의 적극적인 걱정에 자신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8년 전 집 나간 아내가 아니라 자신을 걱정해주고 늘 같이 지낼 수 있는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결국 진철과 연심은 두 사람이 서로 위해주는 관계로 발전된다. 진철은 과거의 미련에 눈이 가려져 지금 자신의 옆에 있던 소중한 사람을 몰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비록 실패하였지만 자살이라는 것으로 과거의 집착과 현재의 번뇌를 끊어버리려 했던 것 때문에 오히려 현재 삶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서로를 위해주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된 것이다.

S#66	진철의 집	EXT	오후
	진철이 깨어나고, 연심과 사랑을 확인한 직후 막걸리 집 도장이 찍힌걸 알게된다.		

<그림 29> 영화 <돌아온다> 콘티북 #66

1-2. ‘유미’의 동일성 환각과 깨우침

싱글 마더 유미의 문제는 과거에의 집착으로 인한 현실 부정에 혼자만의 막연한 기대감이 한꺼번에 무너진 것으로 발생했다. 유미는 상호 소통이 부족했던 젊은 날 사랑으로 인하여 결국 혼자서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며 혹시라도 아이 아빠가 돌아올 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에 기약 없이 하루하루를 지탱해 버텨왔다. 힘들었던 시절 유미는 한순간 자식의 존재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마음이 들게 하여 아이를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잠시 아이를 방치하는 일을 저질렀다. 그것은 결국 자신의 마음속에 한없는 죄의식을 심어두게 된다.

유미의 고통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든 시간을 아이에게 원인을 씌워 원망하는 마음이 가져온 행동은 아이에게 언어장애라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는 아이를 옆에서 지켜봐야만 하는 엄마인 유미에게 그대로 돌아왔다. 이 고통은 자신 스스로가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0> 영화 <돌아온다> 콘티북 #88

상대방과의 교감과 소통 없이 일방적인 '동일시'의 판단으로 독단적으로 출산을 감행하고, 현실이 힘들어 어린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하였고, 폐교를 복교시키면 떠났던 아이 아빠가 돌아올 거라는 막연한 기대 등 모두 유미가 '동일성의 환각'에 빠져서 만들어 놓았던 스스로의 문제와 고통이었다.

앞서 인용한 영화 <돌아온다> #88의 시나리오를 보면 유미는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그동안 혼자서만 지켜왔던 마음의 짐을 이웃들에게 공개하게 된다. 유미 자신의 잘못에 대한 고백과 아들을 잃은 상실감에 슬퍼하였으나 또다시 누군가에 대한 원망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아직도 유미는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려는 마음이 남아있는 것이다.

S#100	변사장의 방	INT	아침
	새로 만들어지는 돌아온다 액자. 액자를 벽에 걸고 단체사진을 찍는 단골들.		

<그림 31> 영화 <돌아온다> 콘티북 #100

<그림 31> 콘티북의 마지막 컷을 보면 유미는 막걸리집 사장인 변사장에게 액자에 걸린 '여기서 막걸리를 마시면 그리운 사람이 돌아온다'라는 글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들이 거기서 막걸리를 마시며 그리운 사람을 기다린 것은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고 본인들이 그저 같이 의지하며 위로하고 간절한 마음이 성취되기를 기원하던 행동이었다.

아들의 장례를 치른 유미는 어느덧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현재의 자신을 바로 본 듯하다. 모든 것은 자신이 혼자만의 생각과 판단으로 상대방에게 자신과 같을 것이라는 기대와 강요로 인하여 생긴 일이었다.
오래 전에 떠난 아이 아빠에게도 같이 가정을 이루어 살 것이라는 공감도 없이 혼자만의 생각으로 아이까지 출산하였으나 아이 아빠는 떠나고 말았다. 유미의 아들 또한 장애를 가진 자신에게 과보호적인 엄마의 처우가 군에서 만나 낯선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더 힘들었을 것이다. 아들은 제대를 불과 한 달여를 남기고 자살을 하고 만다.
유미는 이미 자신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이웃들에게 고백하였다. 즉 자신의 과오를 '드러내어' 본연의 자신을 바로 보게 되었으며, 아들의 장례를 치르면서 더 이상 자신의 곁에 집착의 대상인 아들이 없음을 인정하게 되었다. 비록 아들은 가고 없지만 유미는 스스로 병에 갇히게 되었던 동일성의 환각에서 벗어나 치유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유미는 자신의 분노로 깨어져 버린 액자를 새로 장만하여 막걸리집으로 돌아왔다. 막걸리집에 모여 있던 이웃들은 유미를 반갑게 맞아들이고 이제 그들은 먼저 간 사람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1-3. 스님의 보살행

<그림 32> 영화 <돌아온다> 속 스님이 할매를 어머니로 모시는 장면

영화에서 변사장이 자신의 번뇌에서 벗어나도록 조언을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 스님은 출가를 했지만 아직 속세의 인연을 잊지 못하여 번민의 끈을 끊지 못하고 있었다. 적을 두지 않고 세상을 떠도는 스님은 이 곳에서 아들을 잃고 아파하는 할매를 만나 동병상련을 느꼈을 것이다. 스님은 출가하기 전에 다양한 직업을 거치면서 세상을 돌아다녔고 언젠가는 알콜 중독으로 노숙자의 삶까지도 경험하게 된다. 좋은 스승을 만나 출가를 하였지만 가슴의 화를 달래지 못하여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던 그가 여기 막걸리집에서 액자에 적힌 '이곳에서 막걸리를 마시면 그리운 사람이 돌아옵니다'라는 글을 보고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한다. 그곳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사람들의 강한 그리움을 느낀 것일까 아니면 스님 자신의 마음속에 지우지 못하였던 어머니에 대한 집착이 일어난 것일까, 스님은 거기에서 사람들과 교류를 하며 변사장의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게 된다.

<그림 33> 영화 <돌아온다> 속 스님이 러시아 민속가요를 노래하는 장면

변사장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보며 그 곳을 떠난 스님은 아들을 잃은 할매가 자신을 아들이라 우기며 쓰러지는 상황에서 기꺼이 할매와의 모자의 연을 맺는다.

스님은 사실 저 막걸리집을 떠나 절에서 참선을 하며 자신의 마음을 다잡는 중이었으나 아들을 잃고 힘들어하던 할매가 결국 치매 증상을 보이며 스님을 아들이라 우기자 모든 것을 제쳐두고 그곳으로 가 할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라 부른다. 영화에서 보여주는 옛 사진의 모습을 보면 스님은 할매의 잃어버린 아들이 아니다. 그러나 스님이 기꺼이 할매에게 어머니라고 다가서는 순간 아들을 잃은 어머니에게 아들이 돌아오고, 엄마를 잃은 아들에게 어머니가 돌아온 것이다. 본 연구자는 이 장면에서 원효대사가 소성거사로 속세를 떠돌며 일반 대중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붓다의 가르침을 전하는 모습이 떠올랐다. 고요한 산 속의 사찰에서 참선 수행을 하다가 한 사람의 아픔을 구제해 주려고 바로 몸을 움직이는 스님의 행동이야 말로 붓다의 가르침을 행하는 적극적 보살행으로 볼 수 있다.

1-4. ‘주영’의 오해와 반성

조용하던 동네에 낯선 주영이 등장하면서 영화는 시작된다. 영화에서 주영은 변사장 아들 정환의 동거녀로 정환의 죽음으로 인해 정환의 아버지를 만나러 간 것이다. 주영은 평소 정환에게서 변사장을 원망하며 증오하는 말을 늘 들어서 변사장이 나쁜 아버지로 각인되어 버렸다. 거기에 주영의 친아버지 역시 주영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던 경험이 있어 주영은 변사장을 만나기도 전에 이미 변사장은 나쁜 아버지로 새겨진 것이다. 이 또한 ‘동일성의 환각’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병에 갇히게 만든 일이다. 자신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도 않은 다른 사람을 증오하며 자신의 편견 속에 갇히는 결과를 불러온다.

S#78	막걸리 집 마당	EXT	석양
	변사장에게 정환의 유골함을 건네주는 주영. 오열하는 변사장.		

<그림 34> 영화 <돌아온다> 콘티북 #78

영화에서 주영은 자신의 신분을 감춘 체 그 막걸리집에서 만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선입견으로 대하여 그들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막걸리집을 처분하려고만 하였다. 그러던 주영은 어느 날 변사장에게서 처음부터 주영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으며 언젠가 먼 발치서 본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된다. 변사장은 주영에게 자신의 좌거 잘못을 얘기해주며 아들 정환에게 잃어버린 할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만 막걸리집의 처분을 미루어 달라는 부탁을 한다. 주영은 그때부터 이미 죽은 정환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지고 변사장에게 가졌던 나쁜 감정은 서서히 사라져 간다.

그러던 중 주영은 막걸리집에서 모인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가 스님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며 액자에 적인 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게 되고 결국 변사장에게 정환의 유골함을 전하게 된다. 주영은 스스로의 선택과 판단으로 변사장의 진심을 이해하게 된 것은 아니다. 그간에 있었던 몇 가지의 사건에서 사람들의 다른 면목을 보게 되었고 그 막걸리집에서의 기다림이라는 염원에 대해 공감하게 되면서 본인의 눈가림을 제거하게 된 것이다. 주영은 변사장에게 정환의 유골함을 전하면서 자신이 느꼈던 아버지 변사장에 대한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눈물을 흘린다. 진정으로 공감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이다.

1-5. 변사장의 화해와 참회

변사장은 젊은 시절 갑자기 나타난 아들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책임지지도 않으려 했다. 변사장의 아버지가 어린 정환을 돌보며 지내던 중 그만 치매가 와서 어쩔 수 없이 울주군으로 내려와서 병든 아버지와 어린 정환을 돌보는 신세가 된 것이다. 그러던 와중에 변사장은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졌고 그 일로 정환은 자신을 돌봐주던 할아버지가 없어져 버린 것이다. 바로 여기서 아들 정환은 할아버지를 잃은 상실감을 아버지인 변사장에게 원망과 분노로 돌려버렸다. 변사장은 변사장대로 아들 정환의 걱정으로 인해 벌어졌던 사건이라 스스로를 변명해 보지만 아들 정환에게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핑계일 뿐이었다. 그런 악화된 관계와 변사장의 숨겨둔 죄의식은 변사장에게 악몽과 마음의 짐으로 남아 있었고 자신의 아들로서의 잘못과 아버지로서의 잘못에 대한 참회의 방법으로 매일 새벽 돌짐을 지고 산에 올라 돌탑을 쌓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변사장은 아들과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크게 다툰 후에 결국 아들과는 감정이 쌓인 채로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되었다.

변사장이 가슴 속 깊이 감춰둔 죄의식으로 인해 번뇌에 휩싸여 이미 죽은 정환의 망령과 다투는 것을 본 스님의 도움으로 변사장은 자신의 잘못을 바로 보게 된다.

영화의 대단원은 막걸리집을 찾던 사람들이 한명씩 가슴의 상처를 치유하여 마음의 평온을 찾은 후 변사장에게 화해의 장이 열린다.

96. EXT. 막걸리 집_마당. 밤

1) 변사장과 주영만 있는 썰렁한 막걸리집.

2) 식기들을 닦으며 밤을 보내고 있는 변사장과 주영.
그때, 들려오는 오토바이 소리.

3) 변사장 식기를 닦던 손이 멈칫한다.
초점을 잃은 변사장의 시선.
변사장 : 주영아.... 도토리묵 하나만 해다 줄래?
주영 : 네? 아.. 네...
정환이 들어선다.
변사장, 정환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감정이 복받친다.
정환에게 티내지 않으려 애써 시선을 돌려 감정을 잡는다.
정환 : 시발, 여기서 아직도 버티고 있어?!
감정을 추스르고 심호흡하는 변사장.

4) 뒤돌아 정환에게 다가와 두 손을 꽉 잡는다.
정환 : 뭐하는 거야?!
변사장 : 미안하데이...
정환 : 이 손 안 놔?

5) 변사장 : 할아버지, 그래... 내가 버렸다. 그래... 니 말이 맞다.

6) 손을 뿌리치는 정환.

7) 정환 : 이 무슨 개소리야.

8) 변사장 : 진작에 말 해 줬어야 하는건데... 내 생각만 해서 너한테 또 상처를 줬다.

변사장 과거

96-1. INT. 목욕탕_탈의실. 낮.

1) 목욕탕 탈의실에서 아버지 옷을 벗겨 주고 있는 변사장.
변사장 : 아부지요~ 또 와 이라십니까?
예? 목욕 하자메요.
변사장의 호통에 겁먹은 할아버지.
할아버지 : 지...집에...가... 가자..
변사장 : 뭐라고요?
할아버지 : 지...지..집에...
변사장 : 아! 가긴 어딜 간다 그라는교!
변사장 호통에 몸을 움츠리는 할아버지.
변사장 : 벗으이소! (옷을 집어던지며) 아! 빨리 벗으이소!
이때 목욕탕 직원의 다급한 목소리에 돌아보는 변사장.
목욕탕 직원 : (헐떡이는) 아저씨! 아저씨!
큰일 났어요. 정환이가!
변사장 : 정환이가 또 뭐!!!??
목욕탕 직원 : 길에서 사고 났는데.. 정환이 같아서... 빨리 가보이소!
변사장 : (버럭) 아~ 아이 진짜!
성질을 내며 탈의실에서 나가는 변사장. 뒤를 이어 목욕탕 직원도 따라 나선다.

혼자 남겨진 할아버지.
옷을 주섬주섬 챙기고는 겁에 질려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 한다.

96-2. EXT. 목욕탕 건물_입구에서 언양 읍내거리. 낮

1) 목욕탕 밖으로 나오는 변사장, 성질을 죽이지 못 하고 계속 씩씩댄다.
변사장 : 아이 씨! 어디고?
목욕탕 직원 : (손가락을 펴 도로 쪽을 가리키는) 저기요. 저기. 저쪽으로 쭉 가이소!
변사장 : 아이~ 미치겠네!
점점, 발걸음이 빨라지다 뛰는 변사장.
공터로 들어갔다가 정환이 없자 몸을 돌려 도로 쪽을 바라본다.
변사장 : (덤덤한) 정환아~!
2) 이내 도로 건너편 웅성웅성 모여 있는 사람들 무리를 발견한다.
얼핏 정환이 또래 중학생이 쓰러져있다.
3) 변사장 : 정환아~!
4) 패닉 상태로 뛰는 변사장. 빠르게 달리는 차들 사이로 건넌다.
변사장 : 정환아!
겁에 질린 변사장. 빠르게 군중 무리 사이로 달려간다.
변사장 : 정환아~!! 정환아!!!
5) 무리들 앞으로 다가가면서 '정환아'를 연거푸 외친다.
6) 누군가 아이를 부축하는데, 그 아이의 얼굴을 돌려보니 정환이가 아니다.
7) 심장이 내려앉은 듯 다리가 풀려 털썩 주저앉는 변사장.

96. EXT. 막걸리 집_마당. 밤

8) 변사장의 말에 충격받은 정환.
변사장 : (V.O) 너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9) 변사장 : 한참이 지나서야 아버지 생각이 났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게...
진짜 하늘로 솟은 것처럼 본 사람도 없고, 아무데도 없는 기라.
10) 변사장 : 그 날 읍내면 산 속이며 밤새도록 찾아 다녔는데.. 없는 기라...

11) 정환 : 그래도 찾았어야지...
그 다음 날도,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어떻게든 찾았어야지!
12) 변사장 : 그 땐 찾고 싶지 않았다.
13) 변사장 : 도망가고 싶었다.
14) 변사장의 고백에 점점 더 원망에 쌓여가는 정환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15)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변사장.
변사장 : (울먹이는) 미안 하데이..! 정환아!
16) 변사장 정환을 붙잡고 무릎을 꿇는다.
변사장 : 미안 하데이....
17) 변사장이 무릎 꿇은 걸 차마 보지 못한 채 이를 악물고 있는 정환.
18) 정환의 다리를 붙잡고 오열하는 변사장.
변사장 : 정환아..! 미안 하데이.
19) 점점 감정이 고조되고 결국 참았던 울음이 터져 버린 정환.
정환 : 당신이 버린 그 바보 같은 아버지는...
혹시라도 당신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 할까봐.. 단 한번도...단 한번도!

20)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염없는 눈물만 흘리는 변사장.
정환 : 당신을 나쁘게 얘기한 적이 없었어...
변사장 : 정환아...
정환 : 한 때는 나도..
21) 정환 : 그런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22) 변사장, 힘이 풀린 듯 옆으로 살짝 쓰러지며 정환을 놓친다.
변사장 : 정환아....
23) 변사장, 고개를 들면 정환은 없다.
변사장 : 정환아... 정환아...
24) 마지막 인사도 못한 채 정환을 보내버린 변사장, 서둘러 일어난다.
변사장 : 정환아!
25) 비틀거리며 달려 나가는 변사장.
변사장 : 정환아! 정환아! 정환아~

CUT TO

26) 전력질주 하듯 달려 내려온 변사장.
둘러봐도 이미 사라진 정환. 계속 '정환아!' 반복해서 외쳐보지만
어디에도 정환은 없다.
안타까움에 마음이 메어지는 변사장. 시선이 멈춘다.
27) 벽면에 기대어 쭈그리고 앉아 꾸벅 졸고 있는 어린 정환.
28) 어린 정환이 반가운 변사장. 애타는 마음으로 불러본다.
변사장 : 정환아~!
29) 변사장이 다가가도 아직 졸고 있는 어린 정환.
어린 정환 앞에 서는 변사장.
30) 졸고 있는 어린 정환.
31) 어린 정환 앞에 무릎 꿇는 변사장.
32) 그때 눈을 번쩍 뜨는 어린 정환
어린 정환 : 진짜 왔다!
33) 변사장 기쁨의 미소를 띈다.
34) 활짝 웃는 어린 정환.
35) 변사장에게 두 팔 벌려 안긴다. 어린 정환을 안은 변사장.
36) 변사장 : 고맙데이... 고맙데이...
37) 어린 정환 변사장을 용서한 듯 변사장을 더 꽉 안는다.[138]

변사장은 가지고 있던 죄의식을 바로 보며 과거 자신의 부주의로 잃어버린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사고난 줄 알았던 정환의 일로 핑계를 댔던 것에 대한 잘못을 반성한다. 그리고 그 당시 그런 현실로부터 회피하고 싶었던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말하며 용서를 구한다. 또한 더 과거로 돌아가 어린 정환에게 살갑게 대해주지 않고 외면했던 변사장 자신의 돌이켜보며 어린 정환을 안아주며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온다. 이 모든 장면은 이미 정환이 죽었으며 어린 시절의 정환과도 실제로 대면이 불가능한 상황을 영화적 표현으로 풀어낸 것이다.

138) 허철, 영화 <돌아온다> 심의용 대본, #96 EXT. 막걸리 집_마당. 밤.

98. EXT. 막걸리 집_마당. 계속. 밤

1) 기운이 다 빠진 변사장.
항아리들 사이에 버려진 듯 세워진 거울을 보는 변사장.
2) 너무 때가 묻어 거의 보이지 않는다. 깨진 금이 가있는 거울에 색 바랜 핏자국.
손으로 문대보는 변사장.
3) 주머니에서 정환의 손수건을 꺼낸다.
4) 손수건으로 거울을 닦아내는 변사장.
조금씩 묵은 때가 지워지는 거울.
5) 애타는 마음으로 거울의 때를 지워내는 변사장.
6) 점점 거울의 때가 지워지고 변사장의 손이 거울이 비춰진다.
7) 거울을 한참 바라보는 변사장. 알 수 없는 미소로 거울을 바라본다.
변사장 : 아버지!
8) 거울 속에 변사장의 얼굴이 비친다.
변사장 : 울 아부지 여기 계셨네?!
9) 기쁜 얼굴로 거울을 바라보는 변사장.
10) 변사장을 지켜보다가 미소 지으며 다가가는 주영.
11) 변사장을 뒤에서 안는다.
개구리 소리가 텅 빈 마당을 채운다.[139]

그리고 변사장이 미처 사과하지 못했던 아버지와의 화해의 장면이 펼쳐진다. 먼지가 가득한 구석에 방치했던 거울에서 잃어버린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며 한 번도 웃는 얼굴로 대하지 못했던 아버지에게 미소로 대하며 그렇게 마음속에 남아있던 죄의식을 하나씩 지워나간다.

	변사장	유미	진철	스님
그리움의 대상	가출한 아들 정환과 실종된 아버지	군에 간 아들과 사라진 아이 아빠	집 나간 외국인아내	어머니
감정 상태	아들은 변사장에게 분노와 원망 치매 걸린 아버지에 대한 걱정	장애를 가진 아들에게 죄책감	8년간 아무 연락 없음 막연한 기다림	어릴 적 헤어져 기억이 없음 그러나 찾고 싶은 미련

[표 25] 등장인물과 기다림의 대상 문제

변사장의 갈등 해결 과정을 화쟁의 과정으로 보면, 우선 변사장의 감정 대립의 상대는 바로 변사장 자신이다. 왜냐하면 이미 대립의 양상을 보였던 대상인 아버

139) 허철, 영화 <돌아온다> 심의용 대본, #98 EXT. 막걸리 집_마당. 계속. 밤.

지와 아들이 죽고 없기 때문이다. 영화 <돌아온다>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기다리는 사람들은 현재 그들의 곁에 존재하지 않는 대상들이었다. 그럼에도 등장인물들은 곁에 없는 눈에 안 보이는 대상으로 말미암아 아파하고 분노하고 원망하는 번뇌에 빠졌던 것이다. 모두 그 원인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것이다.

변사장 갈등양상의 대립의 상대	
변사장에게 원망과 분노를 표출하는 아들	치매 걸려 실종된 아버지에 대한 걱정
따로 떨어져 살다가 얼마 전 찾아와 다투고 헤어진 후 죽음	실종 당시 몇 일 동안 찾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
이미 존재하지 않는 대상	
변사장의 마음이 만들어 낸 망상이라는 것을 알아챔	

[표 26] 변사장 화쟁 대상

그 다음으로 변사장은 과거 자신의 과오와 변명을 맞닥뜨리고 마음 속에 존재하는 대상인 아들과의 화해를 한다. 영화에서 어린 정환은 아이의 입장에서 지금 옆에 없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다가 정작 눈앞에 나타난 아버지의 언행에 상처를 받고 만다. 변사장은 아들 정환의 마음의 상처를 이해하고 사과한다. 그리고 아들에게 상처를 준 언행의 이유를 들어 자신의 행위가 왜 그랬는지도 이유도 밝힌다. 그러면서 변사장은 자신이 자기만의 생활을 더 중요시하여 가족으로 맺어진 아들에게 상처를 준 사실에 대하여 참회하고 아들의 상처를 보듬어 준다.
여기에서 화쟁의 결과로 볼 수 있는 이야기를 볼 수 있다. 단순히 자신의 과오만 사죄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린 아들이 받았을 상처와 아들이 그리워하던 아버지로서 어떤 행동도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아들이 가진 원망의 원인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변사장은 자신의 언행으로 아들만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이 아니라 자신도 아들의 결핍으로 마음이 늘 허전하고 쓸쓸했던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변사장의 마음의 상처	원인	치유
자신의 언행으로 어린 정환에게 마음의 상처를 줌(죄책감)	상상하지 못했던 아들의 존재와 거둘 수 없던 자신의 처지	아들의 입장에서 정환이 받은 상처를 이해하고 사과함
치매 걸린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자신의 부주의로 잃어버림(죄책감)	보살펴야 하는 가족의 존재가 부담스러움(자신의 꿈을 접어야 함)	아들과의 화해 과정에서자신과 아버지의 관계에 대한 깨달음을 얻음

[표 27] 변사장의 치유 과정

이를 치유하기 위해 변사장은 과거의 한 순간으로 이동하여 따스한 햇살 아래에서 그리운 아버지를 기다리는 아들 정환을 만나 손을 잡고 같이 읍내로 간다.

결국 어린 아들에게 상처만 준 것으로 알았던 자신의 언행은 결과적으로 아들과 자신에게 쌍방 모두에게 상처를 남기고 말았던 것이고, 변사장은 화해의 과정에서 이를 알게 되어 그 치유의 방법으로 어린 아들과의 상상 여행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변사장은 자신과 아버지에 대한 갈등과 상처도 인지한다. 결국 아버지에게 좋은 미소 한 번 보여주지 못했던 자신의 결핍 또한 아버지에게 미소 지으며 말을 건네는 것으로 해소된다. 여기까지가 각자의 문제와 상처를 치유한 과정이며 결과다. 그러나 화쟁으로 치유한 상태라면 그걸 넘어서는 단계 통섭의 장이 남아있다.

변사장 치유 과정	상호 인과 관계 확인	치유
아들 정환이 받은 상처를 이해하고 사과하면서 변사장 아버지와의 관계를 깨달음	아들 정환의 아버지 정에 대한 결핍 문제는 변사장 자신에게 아들의 결핍 상황을 만듬	어린 정환이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던 시점으로 돌아가 화창한 날 둘이 손잡고 나들이를 감
변사장의 아버지도 갑자기 생긴 손주에 부담스러웠으나 살갑게 대해줬다는 것을 깨달음	치매 걸린 아버지를 잃어버린 배경에는 자신이 부양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찾지 않았음	자신과 아들 정환의 관계를 아버지와 변사장의 관계에도 적용시켜 아버지의 환영을 보며 반갑게 대함
화쟁에서의 조건인과를 구분하면서 일방의 문제를 쌍방의 문제로 인지		

[표 28] 변사장의 마음의 병에 대한 화쟁

앞서 살펴 본 화쟁의 개념에서 보듯이 화쟁의 끝에는 통섭의 장이 열려 있음이니, 영화 <돌아온다>에서의 통섭의 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막걸리집에서 그리운 사람을 기다리며 막걸리를 마시던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낯선 이들에게 경계를 가지지 않아도 되며 세상의 걱정거리를 다 덜어낸 모습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상처를 감추며 거짓행동을 하지 않아도 되며 서로를 챙겨주며 즐겁게 살아갈 것이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다.

2. 영화 <돌아온다>를 통해 본 영화 치유의 전망

지금까지 살펴 본 영화 <돌아온다>의 대립 갈등 그리고 상처로 인한 아픔 등의 문제는 영화상에서 한 동네에서 벌어진 사건들이지만, 작게 보면 한 가족 간에 벌어지는 사건으로도 볼 수 있고 크게는 모든 한국의 동네에서도 볼 수 있는 흔한 이야기로 아프고 소소한 이야기지만 전부의 가슴에 감동을 주는 이야기임을 알 수 있었다. 공동체를 이루는 최소 단위의 개념에서 발생하는 가족 간의 갈등은 참지 못하고 뱉어버리는 언어에 의해 상처가 나고 시간이 지나며 흉터로 남게 된다. 이는 이미 핵가족과 가족해체의 경험을 먼저 겪었던 서구사회에서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이슈는 아니다. 아마도 영화 <돌아온다>에서 다루는 등장인물들의 아픔과 그것을 치유해 나가는 방법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몬트리올국제영화제에서의 금상 수상을 가능케 한 것이라 생각한다.

영화 <돌아온다>에서 나타난 아픔의 원인과 치유 과정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더 많은 감동과 카타르시스를 받은 사람은 아무래도 비슷한 처지를 겪고 있거나 경험한 사람이다. 사례의 유사함이나 동일성으로 인해 공감의 폭이 커져 등장인물과 같이 울고 웃으며 자신을 돌아봤을 것이라 생각한다. 관객들은 영화를 감상하면서 각자가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고 영화를 보면서 간접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 영화가 소소하고 흔한 갈등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영화를 이해하며 따라가기가 어렵지 않아서 그 효과는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감독 허철은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방법에 있어서 '드러내기'라는 방법으로 병의 원인을 찾는 것을 보여주었고 자기 화해의 과정을 통해 치유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비록 영화적 표현으로 인하여 많은 생략과 은유가 있지만 영화적 서사의 효과로 이해도는 낮지 않게 하였다. 굳이 어느 영화 평론가나 불교전문가 내지는 심리치료사가 없이도 관객이 영화 관람 후 치유효과를 얻기는 어렵지 않은 수준이다. 영화가 영상언어를 바탕으로 하지만 언어가 다른 문화권에서도 이해되려면 상당한 표현력이 요구되는데 이 영화는 그걸 해냈기 때문이다.

치유는 치료와 의사나 의료전문가의 처방이나 시술 없이 본인 스스로 병 증세를 나아지게 다스리는 방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병이 심한 경우 치료가 우선되어야 치유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 치료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치유는 더 강화시켜야 한다. 특히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면 치료 이전에 스스로 치유에 나서보는 것은 '치료의지의 확보'라는 점에서 더욱 권하고 싶다.

[표 29] ‘치료와 치유의 비교’에서 볼 수 있듯이 치유는 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치료와 근본적 접근이 다르다. 원효의 화쟁을 치유 철학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병의 고통을 해소하고 제거하는 것만을 위해서가 아니다. 앞서 화쟁에 대한 고찰을 통해 화쟁의 치유 과정으로 열리는 통섭(通攝)의 장을 만나게 된다는 것에 그 가치가 있다. 다음의 [표 29]에서도 볼 수 있듯이 화쟁의 치유는 ‘쌍방의 치유’이며 그 과정에서 얻는 깨달음은 대립, 충돌했던 대상과의 새로운 발전적 관계 형성의 장도 제공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보듯이 원효의 화쟁을 치유 철학으로 도입한다는 것은 그것이 보편철학으로서 종교를 넘어서 인간사 어디에도 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영화 <돌아온다>에서도 그랬듯이 종교로서의 색채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치유의 방법은 일반 모든 사람에게 거부감 없이 도입될 수 있기에 그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치료	화쟁적 치유
성찰이 아님	성찰의 개념
일방적 치료	쌍방의 치유
드러난 현상의 표피적 제거. 치료	사유의 오류, 근원적 오류를 건드리는 것은 힐링

[표 29] 치료와 치유의 비교

원효의 치유 철학으로서의 화쟁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영화 치유를 도입한 이유는 영화가 가진 매체적 특징을 들 수 있다. 특히 디지털, 비대면의 시대적 환경은 영화와 감상자의 거리를 상당히 가깝게 하였다. 극장에 가서 낯선 사람들과 어울려 영화를 보던 것이 지금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자기 위주의 영화 감상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보고 싶은 영화는 이제 시공간을 넘어서 언제든지 소환하여 다시보기를 할 수 있다. 20대에 보면서 받았던 감동을 50대의 나이에 다시 보면서 그 변화를 직접 느껴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매체의 장점으로서의 영화는 [표 30]의 내용과 같이 치유 방법에서 영화 감상이 가지는 장점들 또한 가지고 있다. 우선 영화의 소재로 등장하는 다양한 사건들과 에피소드를 장점으로 들 수 있다. 영화는 대부분 사람 사는 이야기를 다룬다. 그만큼 사람들 간의 다양한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감동을 주는 사랑이야기부터 상대방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갈등의 양상까지 모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쟁론의 양상을 재현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다양한 사건과 에피소드들을 직접 겪게 된다면 아마 인생은 너무 고달프거나 어쩌면 상당한 도인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만큼 한 인간이 경험하여 감내할 수 있는 정도는 한정적임에 비해 영화는 감상자에게 간접 체험의 기회를 줌으로써 감상자에게 안전하고 많은 경험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치유 방법에서 영화 감상의 장점	
간접 경험	직접적 쟁론의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아픔을 피할 수 있다
다양한 사례들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대립의 문제부터 낯선 갈등의 상황을 체험할 수 있다
조건인과를 잘 보여줌	무주로 더 나은 조건인과로 갈아타는 일련의 과정과 결과를 엿볼 수 있다
대중적이다	기존의 모든 관습 등을 쳐내는 상황 등은 누구도 쉽게 해내지 못하여 대중적이기 힘들다

[표 30] 치유 방법에서 영화 감상의 장점

영화 감상 치유가 무엇보다 좋은 것은 바로 문제의 해결 과정에 필요한 조건인과의 법칙을 자세히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행위는 그 순간이 휙 지나가면 다시 되풀이 할 수 없는 법이나 영화는 얼마든지 다시보기가 가능하므로 감상자가 그만 둘 때까지 반복하여 그 과정을 반복하여 볼 수 있다. 영화의 주인공이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하는 선택과 결과 그리고 사건의 원인과 해결 그 모든 과정에 도입되는 조건인과의 과정을 자세히 볼 수 있다. 게다가 그러한 조건인과의 과정에서 '더 좋은 조건인과로 갈아타는 무주'(無住)[140]의 실현을 보게 되면 감상자의 치유 능력은 본각(本覺)의 불가사의한 훈습 작용과 같은 통섭(通攝)의 길을 보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영화는 재현 매체로 인간이 현실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시뮬라시옹(simulation)[141]으로 더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기에 무엇이든 가능하다. 이런 영화의 특징은 평소 잘 볼 수 없었던 사건이나 행위의 과정을 목격하게 해 준다. 예를 들어 사회적 약자가 강자의 억압에 저항하는 상황이나 종교적 관습을 거부하며 개혁에 돌입하는 상황, 종교 성직자의 위선과 비위를 고발하는 상황 등은 현실에서는 그 누구도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영화는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대중들이 보고 느끼고 판단한다. 이런 상황에서 감상자는 인간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갈등과 양심 그리고 행동하는 용기 등을 대리 표출하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

140) 본 연구에서 무주(無住)는 '더 나은 조건인과로 갈아타는' 작용으로 표현하였다. '머물지 않는다'는 무주에 관해서 화쟁의 개념과 원리를 연구하는 과정에 포함하려 하였으나 영화 치유의 방법으로 화쟁을 도입한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생각이 들어 다루지 않았다.

141) 시뮬라시옹(프랑스어: simulation)은 시뮬라크르가 작용하는 것을 말하는 동사로, 여기서 시뮬라크르(프랑스어: simulacre)는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 때로는 존재하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인식되는 것 즉 더 진짜 같은 복제의 복제를 뜻하는 것이다. 영화는 재현으로 만들어지나 재현되는 모든 장면들은 실제를 가장한 복제의 재현을 하므로 시뮬라시옹이라 할 수 있다.

<그림 35> 2018년 연극 돌아온다 출연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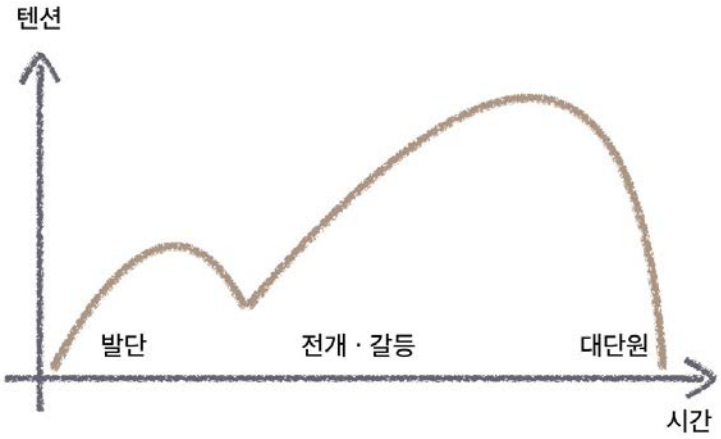
본 연구자는 영화 <돌아온다>를 분석하기 위해 몇 번이고 다시 보았고, 원작 연극 <돌아온다>와의 차이점을 알기 위해 대학로 극장에서 연극을 보기도 하였다. 영화를 보고나서 연극을 보면 이해가 더 쉬울 줄 알았으나 연극 <돌아온다>에서 귀신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영화 <돌아온다>와의 연출 기법이 너무 달랐던 것이다.[142] 만약 본 연구자가 연극을 미리보고 영화를 봤다면 아마 '영화 치유의 근거로 영화 <돌아온다>를 선택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본 연구자는 허철 감독이 원작 연극 <돌아온다>를 성공적인 힐링 영화로 재해석하였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영화에서 치유의 과정과 내용은 관객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 몬트리올국제영화제에서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영화 <돌아온다>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영화의 매체 특징을 이용하여 현실과 망상, 시공간의 초월 등의 표현을 곳곳에 집어넣어 변사장의 갈등, 고통을 해소하는 과정으로 보여준다. 특별한 컴퓨터그래픽을 사용한 것도 아닌, 감독의 연출 역량으로만 표현한 영화 기법은 변사장이 어린 정환을 만나 화해하는 과정에서 관객의 몰입을 방해하지 않는다. 그리고 변사장이 치매 걸린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장면은 관객에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감정이입의 공감을 극적으로 전해준다. 그

142) 선욱현의 연극 <돌아온다>의 시나리오를 보더라도 등장인물과 이야기 전개 방식, 엔딩 등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 해도 될 정도로 이야기가 다르다. 하지만 허철 감독은 영화 <돌아온다>의 원작을 소개하고 있으며 자신이 연극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 영화를 만들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영화에서 이야기 전개 형식은 연극처럼 전개하는 것이 느껴지고 등장하는 배우들도 거의 연극배우들로 캐스팅하는 것을 보면 연극 같은 영화로 생각되지만 결국 허철 감독의 연출은 가장 영화 같은 영화로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다.

리고 이 영화는 시나리오나 콘티와 비교하면 상당한 장면이 생략되고 내용이 좀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허철 감독이 편집 작업에 상당히 집중하였음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 이는 곧 금상 수상의 영광으로 돌아왔다. 이러한 과감한 생략이 있었음에도 관객은 등장인물의 갈등 상황의 이해에 문제가 없었으며 상실감의 문제로 고통 받았던 문제 상황의 해결 과정에 대한 의문도 들지 않았다. 오히려 관객의 집중도를 높여 관객의 상황 이해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점들이 영화 <돌아온다>의 치유 효과를 돋보이게 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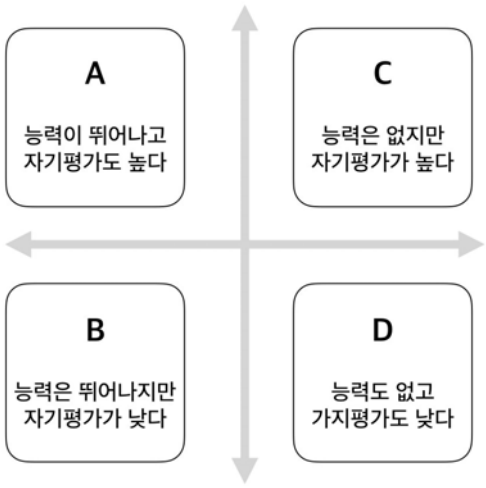
영화 치유의 방법으로 지금까지 감상자의 입장으로만 말하였는데, 제작 단계에서도 영화 치유는 도입될 수 있으며 도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림 36> 할리우드 3막 구조

영화의 스토리 전개는 일반적으로 <그림 36>의 할리우드 3막 구조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전체적인 그래프는 상승 곡선을 이루고 있어야 관객의 몰입도가 높아지는데, 발단과 전개・갈등 사이의 '최초의 사건'부터 '클라이맥스' 부분까지의 구성이 영화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전개・갈등'부분은 주인공의 큰 사건 이외에 작은 에피소드들로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 구성에서 절대 필요한 것이 조건인과적 구성이다. 영화 <돌아온다>에서 에피소드들은 진철과 유미, 스님 등의 에피소드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화에서는 이를 순서대로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나 이 에피소드들은 클라이맥스 부분에 도달하기 전 하나씩 해결되는데 그제서야 관객들은 '아~'라며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연극 같은 영화지만 가장 영화 같은 영화다'라는 평을 얻게 된 비결이다. 모든 에피소드들은 영화의 큰 줄거리와 인과적으로 묶여있으며 이것은 결국 큰 줄거리의 해결에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당위성 있는 이야기의 구성이다.

그리고 영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등장 캐릭터이다. 주인공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고를 하는 사람인지 등 등장 캐릭터의의 설정이 관객을 끄는 힘이라고 볼 수 있다. 다재다능한 슈퍼맨 급의 캐릭터는 너무 비현실적이라서 관객의 공감을 얻어 흥미를 끌기 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요즘 유행하는 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슈퍼 히어로물인 마블시리즈 주인공은 예외이다.[143]



<그림 37> 캐릭터 능력치 설정의 예

영화의 등장 캐릭터는 바로 '나'일 수도 있다는 것이 영화의 매력이다. 감정이입이 쉽게 되는 관객이나 공감도가 높은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면 더욱 동일성의 환각에 빠지기 쉽다. 그렇기에 영화의 등장 캐릭터는 반드시 원효의 본각(本覺)을 반영한 캐릭터로 설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영화를 본 후유증으로 모방범죄자가 나오기도 하는 악영향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영화 <돌아온다>의 등장 캐릭터들은 모두 본각이 내재되어 있는 캐릭터라 할 수 있다. 영화 초반에서 전개까지 각기 미혹에 휩싸여 번뇌에 휩싸이는 모습을 보이지만, 각각은 어떤 계기로 인하여 시각(始覺)으로 깨달아 결국에는 평화와 안정을 찾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구성의 영화를 보고나면 관객은 마음의 안정과 편안함을 느끼며 '긍정의 힘'을 얻게 된다. 관객이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간에 시나브로 치유의 힘은 이미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다.

143) 마블은 월트디즈니사 산하의 만화전문출판사로 1941년 <캡틴 아메리카>시리즈를 비롯하여 <헐크>,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엑스맨> 등의 슈퍼히어로 공상과학만화로 큰 흥행을 거두었다. 영화 마블 시리즈는 만화의 주인공을 영화로 만들어서 흥행을 거둬 2008년 영화 <아이언맨>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주인공의 캐릭터가 원래 슈퍼맨 급이기에 상대 악당 역시 슈퍼맨급인 공상과학영화로 일반적인 캐릭터 설정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아무리 슈퍼맨 급들의 대립이라도 늘 인간적인 번뇌와 갈등은 있음이 영화의 특징이다.

이렇듯 영화의 힘은 생각보다 크고 강력하여 보는 사람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친다. 이런 영화를 제작함에 있어 제작자는 관객에 대한 책임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모든 영화가 치유의 기능을 할 필요는 없지만, 영화를 본 후 흥분지수가 오르고 범죄의 기운이 엄습하게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못 보게 하여야 할 것이다.[144] 영화는 이제 기획(pre-production) 제작의 단계부터 관객의 감상까지 모든 부분에서 영화의 내용이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 철저한 조건인과로 엮어져야 하며, 그것은 결국 최종 감상 단계에서 조건인과의 이해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조건인과의 문제 해결 과정을 본다는 것은 관객에게 작용/부작용의 간접 경험을 제공하여 화쟁의 성찰 경험을 늘려주는 효과를 가져 온다. 바로 이것이 영화 치유의 길은 크고도 넓으며 그 효과도 널리 퍼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한다.

3. 원효의 치유철학으로 본 영화 치유학의 구성 조건과 전망

본 연구 서론 부분의 「영화 치유와 원효 치유 철학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에서 '영화 치유학'에 대한 언급을 하였다. 기존의 영화치료가 '억압된 정서의 노출이나 공감으로 인한 치료 효과'를 추구하면서 개인의 정서적 치료에 집중하는데 비해, 영화 치유는 개인치유와 차이들의 관계소통을 포괄할 수 있는 '화쟁적 성찰능력'을 영화를 통해 일깨우고 공감하여 내면화시킨다는 것이다. 개인 실존과 사회관계 모두에 유효한 '화쟁적 성찰의 개안과 성숙'을 영화와 결합시키는 것이 영화 치유의 목표이고, 이런 목표를 성취하는 방법과 이론의 학적(學的)체계가 '영화 치유학'이라 할 수 있다.

영화 치유학은 기존 시네마테라피(cinema therapy)[145]와는 그 결을 달리한다. 영화 치유는 이러한 '붙들지 않고 만나는 힘' '갇히지 않고 성찰하는 힘' '매이지 않고 보는 힘'을 영화 보기를 통해 일깨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런 유형의 힘이라야 개인과 사회의 보편적 치유력이 될 수 있다. 영화 치유가 확보하려는 것은 정서적 치료효과를 넘어서는 성찰적・인지적 치유력의 계발효과이다.

영화 치유학을 감상만의 문제로 한정 지을 수는 없다. 앞서 소개한 영화 치료의 방법에도 영화 감상과 영화 제작 방법까지 치료의 일환으로 사용하고 있기에 영화 치유학에서의 방법에 대하여 제작과 감상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도록 한다.

---

144) 실제로 가해진 성폭행 장면이나 잔혹한 살해 장면 따위를 찍은 영상인 '스너프 필름'(snuff film)이나 'n번방 사건'의 영상 등은 보는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쳐 사회에 바이러스처럼 번져나가 범죄로 재현된다. 모든 범죄영화가 나쁜 영화는 아니지만 범죄자를 영웅시하는 등의 캐릭터 설정은 윤리적으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검열로 제한하는 것보다 발전적 조치가 될 것이다. 물론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의 무게는 결코 가벼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145) 한국 영화 치료 학계의 선구자 심영섭은 한국에 영화 치료를 도입하면서 비르기트 볼츠 박사의 영화 치료 저서를 「시네마테라피」로 번역하여 소개하였다. 이후 심영섭은 '영화치료'라는 한국어 표현으로 통일하여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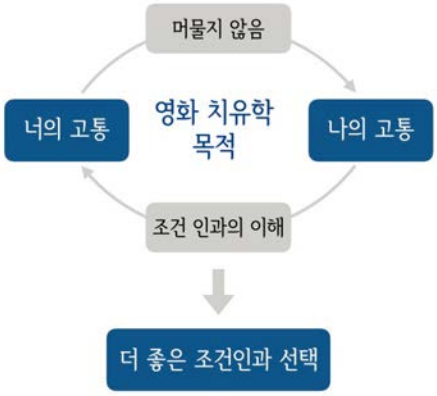
영화 치유학의 대상		
제작자	관객	견해 대립의 상대방
화쟁 실천의 다양한 방법 개발	화쟁을 통합 통섭을 지평 경험	치유의 힘을 공유

[표 31] 영화 치유학의 대상

앞의 영화 치유의 전망에서 언급했듯이 영화 제작과정에서도 치유학이 도입이 필요하다. 영화의 기획 단계에서 제작 목표가 개인과 사회를 이롭게 하는 내용과 구성으로 이루어진다면 치유 영화로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개인과 사회를 이롭게 하는 내용은 계몽성이나 교육용 목적의 내용이 아니라 사회 전반이 안고 있는 현안, 갈등의 문제 등 현실 세계가 겪고 있는 문제를 영화로 만들어진다면 이는 사회적 공론을 형성할 수 있으며 영화에서의 경험으로 현실 문제에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영화의 내용이 힐링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진다면 치유의 효과는 보장될 수 있다. 힐링의 내용이라고 해서 반드시 권선징악이나 해피엔딩의 내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영화 치유에서 중요한 것은 조건인과로 인한 과정을 보는 것이며 화쟁의 실천으로 인한 깨달음을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내용의 구성이 조건인과적이 되어야 하며 등장 캐릭터의 설정에 본각(本覺)을 내재하여야 한다. 영화가 아무리 픽션이며 시뮬라크르라고 하더라도 등장 캐릭터는 현실을 바탕으로 하기에 인간의 본성에 관한 것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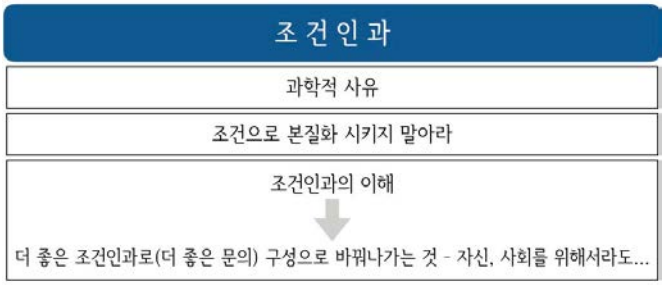
다음으로 영화 감상에서의 치유학을 도입하면 감상자에게 감상의 자세와 화쟁의 이해가 요구된다. 영화 치유는 이미 기획 단계에서부터 만들어져 영화를 감상하고 공감하면서 자각의 눈을 뜨는 경우도 있겠지만, 전혀 낯선 영화를 만나더라도 영화 치유학의 보편성은 발동될 수 있다. 관객에게 요구되는 감상의 자세는 바로 '붙들지 않고 보기', '갇히지 않고 관계 맺기'이다. 이것은 관객에게 '차이들을 발생시키는 조건들에 관한 성찰과 이해'를 가져오게 하고 화쟁의 성찰로 이끈다.

이러한 영화 치유학의 방법으로 관객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림 36>는 영화 치유학이 작동하는 원리를 보여주는 것으로 [표 31]에서 보는 영화 치유학의 대상에게 치유 작용은 유효하게 적용된다. 영화는 조건인과를 보여주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해 그 조건들을 다른 조건으로 바꾸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앞서 화쟁의 개념을 알아보면서 대립의 상태에서 조건인과적으로 상호 이해하는 과정을 확인한 바 있다.



<그림 38> 영화 치유학의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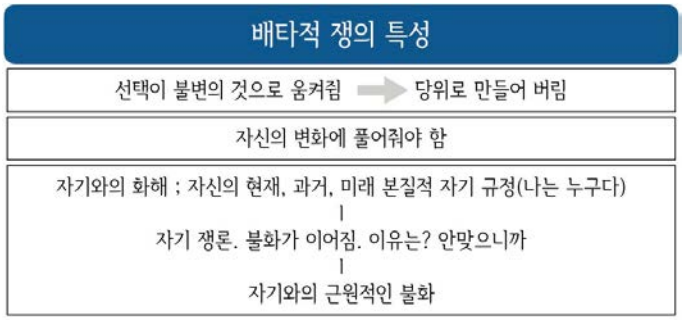
영화 치유학은 자기에게 주어진 문제 상황에서 과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한 조건 인과를 이해하게 한다.<그림 39> 이때 확인한 조건은 본질화 시키지 않는다. 여기에서 무주(無住)의 힘으로 더 좋은 조건인과, 더 좋은 문(門)의 구성으로 바꾸어 나가는 선택의 길을 열어준다. <그림 38>에서 보듯이 쌍방의 고통 상황에서 그 고통의 조건인과를 이해하는 단계로 들어가면 거기서 머물지 않고 더 좋은 선택으로 가는 개념을 알 수 있다.



<그림 39> 조건인과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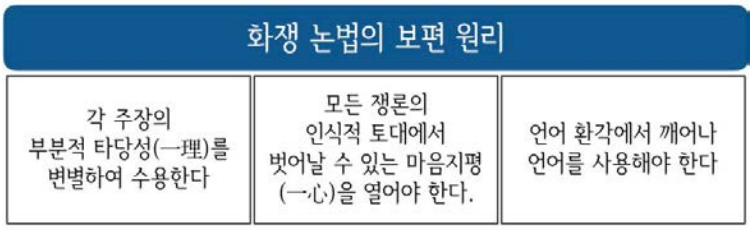
조건인과에서 '조건의 본질화'는 배타적 쟁의특성을 분석해 보면서 알아보도록 한다. 쟁론의 상황에서 배타적 쟁이 벌어지면 그것을 주장하는 쪽의 특징이 보인다. 자신의 선택이 진리며 그것은 불변의 것이라 고집한다.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자신의 주장을 마땅히 해야 하거나 되어야 하는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불통의 쟁으로 전환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본질적 자기규정을 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주로 '내가 말이야, 왕년에 말이지~' 이런 식으로 불변의 자기로 만들어 버린다. 그러나 이런 경우 자기 쟁론이 발생하여 불화가 이어진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라 생각한다. 과거의 '나'는 이미 사라지고 없음이다. 그리고 현재의 '나'는 변화된 오늘의 '나' 일 뿐이고 내일의 '나'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그렇지만 불변의 '나'를 규정해 버린다면 매일이 불편하고 힘들게 된다. 이유는 불변

의 ‘나’로 규정지은 ‘나’는 지금, 여기의 ‘나’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자기와의 근원적인 불화를 일으키는 원인인 것이다.



<그림 40> 배타적 쟁의 특성

이러한 배타적 쟁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 연구는 원효의 화쟁을 도입하였다. 이때 원효의 화쟁은 대립하는 견해의 불교교리를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사 모든 문제에 작용시킬 수 있는 보편 원리로서의 화쟁이다. 화쟁을 구사하기 위해 ‘부분적 타당성의 변별 수용’과 ‘일심’(一心) 그리고 ‘언어 환각에서 깨어난 언어의 사용’이 필요하다.



<그림 41> 화쟁 논법의 보편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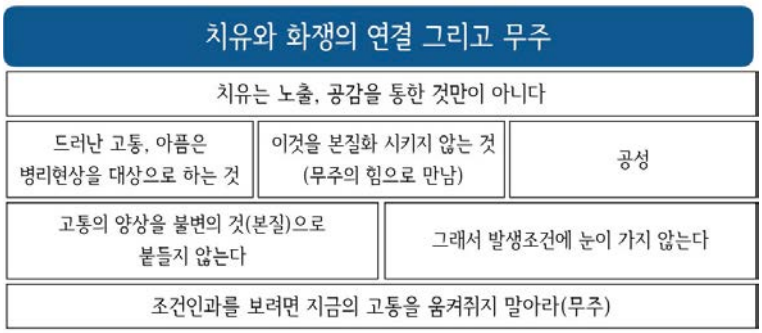
여기까지 영화 치유학에서 치유의 힘을 발휘하기 위한 단계적 개념 정리를 하였다. 이제 ‘화쟁’과 ‘조건인과’ 그리고 ‘머물지 않음’이 어떻게 치유 능력을 보이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그림 41>에서 화쟁은 현상이나 그것을 발생시키는 조건을 찾아내는 과정이다. 그 조건을 발견하고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조건인과가 바뀌어 간다. 여기서 작동하는 것이 무주(無住)인데 문(門)의 조건들을 더 나은 선택으로 가게 한다. 무주와 화쟁은 조건인과로 맞물려 있기에 ‘무주’라야 화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과정이 치유의 매직 단계로 볼 수 있음이다.

지금까지의 화쟁과 무주 그리고 치유 능력이 어떻게 작용하는 가를 정리하면 <그림 42>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42> 화쟁과 무주 그리고 치유의 개념도

이상과 같이 영화 치유학의 구성 조건을 알아보았다. 원효의 화쟁 사상을 바탕으로 치유 효과를 얻어 대립하는 쟁론의 해결이나 문제 발생의 원인과 해소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치유는 치료와 달리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43> 치유와 화쟁의 연결 그리고 무주

영화치유학은 차이의 화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치유학은 차이들의 쌍방화로 인하여 이루어진다. 사례별로 또는 경우에 따라 변하면 안되고 어떤 사태에도 보편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학의 체계로 본다면 치료는 어느 한 쪽의 일방적 치료가 되지만 치유학에서는 쌍방의 치유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원효의 화쟁철학을 도입한 것은 다음의 글로 설명 가능하다.

> "원효의 철학을 일관되게 '차이 현상에 대한 통찰'로 읽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일심一心와 화쟁和諍을 비롯하여 원효의 사유를 직조하고 있는 주요 개념과 이론들은 '통섭通攝'으로 망라할 수 있고, 그 통섭철학은 다름 아닌 '차이에 관한 통찰'로 읽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원효철학은 '차이 통섭의 철학'이다."[146]

146) 박태원(2020), 앞의 책, p.71.

상호작용의 치유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차이의 쌍방화를 이해,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문 구분을 통한 화쟁을 서로의 차이를 조건인과적으로 수용가능하게 된다. 이는 차이에 대한 통찰로 가는 길이라 할 수 있다.

> "'상相'이라는 용어를 통해 '차이의 문제'를 다룰 때, 원효는 '一'을 차이들에 대한 왜곡과 오염을 치유하는 일종의 '치유의 언어'로 구사한다. 동일성의 옷이 입혀져 불변의 독자적·배타적 본질/실체로 간주되면서 부당하게 차별되는 차이(相)들, 그리하여 상호 배제적으로 격리되고 서로 막혀버린 차이(相)들. - 그 오염된 차이들을 원효는 '一'을 통해 치유한다. 차이(相)들에서 동일성의 의상을 벗겨내어 '사실 그대로의 차이'에 접근하는 길을 열고, '차이들이 하나처럼 통하여 상호 개방하고 상호 수용하는 통섭의 세상'(實際)을 일구려 한다."[147]

그리고 치유의 철학이라는 것은 앞의 인용에서 보다시피 통섭의 철학이다. 이것이 바로 "'차이 문제에 관한 근원적 통찰'이자 차이들의 화해를 가능케 하는 '차이 치유의 철학'"[148]인 통섭철학이고 '영화치유학의 본질'이라 할 수 있겠다.

147) 박태원(2020), 앞의 책, p.72.
148) 위의 책, p.28.

Ⅶ. 결론

본 연구는 힐링(healing) 영화로 평가되는 영화 <돌아온다>를 원효의 화쟁(和諍)철학으로 접근하여 영화 치유에 대한 개념과 원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영화 치유가 필요하게 된 배경과 원인 등을 알아보았는데, 우리 사회가 현재 가지고 있는 대립과 갈등 그리고 사회적 참사 등으로 인한 상실감으로 인한 고통 등의 증상과 원인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이야기는 영화 <돌아온다>의 줄거리인 가족 간의 갈등과 대립 그리고 가족과의 이별이 가져오는 상실감에 대한 것이다. 영화를 감상하면서 관객이 어떻게 스스로 치유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화쟁철학으로 접근하여 풀어보았다.

앞서 본 연구의 서론에서 영상학 전공교수로서 원효의 가르침을 현대의 설화인 시각언어로 재현, 해석해 보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영상은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시각언어적 표현이므로 예전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재미있고 감동적인 설화와 같은 효과가 있다. 설화가 주는 공감의 힘은 듣는 사람에게 교훈적인 메시지를 남기는데, 이를 치유의 방법으로 활용하자는 것이 영화 치유이다. 영화를 감상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상태를 나아지게 치유하는 방법으로 도입한 것이 화쟁철학이다.

이 논문의 내용과 특징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치유철학으로서 화쟁철학을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화쟁은 불교의 쟁론 갈등 해결책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불교의 종교적 색채를 배제하고 오늘날 현실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화쟁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한 방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본 연구자가 주목한 것은 화쟁을 '언어 다툼의 치유'라고 해석한 박태원의 연구이다. 이에 본 연구는 쟁론의 상황에서 소통을 하지 않고 상대를 밀어내거나 정복해버리는 불통의 상황을 '차이가 존중되며 상호작용하는 소통의 방식으로 바꾸어 주는' 화쟁으로 인하여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보았다. 그리고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어느 한쪽만의 치유가 아니라 양쪽이 모두 치유를 하게 되고 나아가 그들이 속한 사회도 치유의 효과를 얻게 되는 화쟁의 바른 적용에 집중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치유효과는 엄격한 조건인과에 의한 것으로, '문(門) 구분을 통한 화쟁'이 이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화쟁에 있어서 '문(門) 구분 사유방식'이란 조건인과를 밝혀내는 연기적 사유방식을 뜻하며, 이는 쟁론의 상황에서 '상이한

견해와 이론들의 배타적 충돌을 해소'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대립과 갈등을 원천적으로 치유한다는 것이다. 불통의 쟁론을 소통의 화쟁으로 바꾸는 원효의 '문(門) 구분'이란 붓다의 연기 통찰을 계승하여 대립된 견해의 차이와 변화를 조건인과로 살펴보는 것으로 쟁론의 치유와 소통에 적용하는 것이다.

원효는 붓다의 연기법을 계승하면서 부분적 타당성의 변별과 수용(一理)의 조건인과적 방법을 '계열 구분'(門)을 통한 화쟁 논법으로 구사하는데, 이 과정에서 쟁론 치유력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불각(不覺)으로 인한 쟁론이 본각(本覺) 시각(始覺)의 작동으로 화쟁과 통섭(通攝)으로 이르는 과정을 알아보았다. 조건인과의 문 구분과 부분적 타당성의 변별과 수용에 대한 근거로 『금강삼매경론』과 『대승기신론 소·별기』로 접근하여 확인하였다. 정리하자면, 화쟁에 있어서 '문 구분 사유방식'이란 조건인과를 밝혀내는 연기적 사유방식을 뜻하며, 이는 쟁론의 상황에서 '상이한 견해와 이론들의 배타적 충돌을 해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언어로 인하여 발생하는 '견해의 배타적 다툼에 대한 치유'로서의 화쟁은 결국 '쟁론 치유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영화 치유의 대표 사례로 영화 <돌아온다>를 선택한 것이다. 이 영화는 몬트리올국제영화제에서 금상을 수상한 것으로 유명해졌지만 사실 이 영화의 가치는 이미 그 이전 국내에서의 시사회를 통해서 조용히 알려지고 있었다. 허철 감독이 느꼈던 아픔과 고통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영화 <돌아온다>는 이 시대의 대립과 갈등 그리고 상실감 등을 차분하게 해소하는 이야기로 풀어내었다.

영화 치유를 하는 방법으로 화쟁을 도입하면서 영화에 나오는 에피소드들을 각각 분석하여 그 갈등과 고통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고 그 해결 과정을 살펴보았다. 영화 <돌아온다>는 가족을 잃은 우리 주변 보통 사람들의 상실감을 다룬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다. 이를 위해 영화 <돌아온다>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양상을 사례별로 분석하였다. 각각의 에피소드들을 분석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상실감과 결핍의 상태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살펴 병의 증상을 확인하는 단계를 거쳤다. 각 등장인물의 문제 해결 과정을 분석하고 그것을 다시 화쟁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영화는 많은 생략이 있기에 정확하게 어떤 과정과 어떤 계기로 치유가 되었는지 보여주지 않는다. 그렇지만 화쟁의 눈으로 그것을 가늠하고 결과를 대입시켜 과정을 재현하여 보았다. 그리고 화쟁이 단순한 문제 해결만이 아닌 치유과정에서 오는 깨달음과 그것을 넘어서는 통섭의 장까지 영화의 엔딩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영화의 분석을 위해 본 연구자는 직접적인 영화 감상 이외의 감독과의 인터뷰 및 원작과의 비교도 하였다. 연구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화 대본과 콘티

북 등을 추가하여 감상에서 눈과 귀로 보고 듣는 정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고, 이를 에피소드별, 장면별로 인용하며 분석에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영화는 시각, 청각이 시간적으로 같이 흘러가는 내용의 표현이라 영화감상만으로는 그 내용을 분석하기가 어려웠지만 영화의 대본과 콘티북을 인용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영화의 이야기를 분석할 수 있었다.

또한 영화 <돌아온다>는 종교적 색채가 얕아서 불교적 방법으로 갈등과 아픔을 해소하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았다. 그 부족한 부분은 허철 감독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보완하였고 나머지는 다른 한국 영화에서 표현된 불교의 표현 비교와 본 연구자의 해석으로 영화에 나타난 불교의 영향력 정도를 파악하였다. 여기에서 앞서 이야기한 '문 구분을 통한 화쟁'으로 문제해결 과정을 살펴보았고, 그 결과 영화 속 등장인물의 상처 치유와 더불어 영화를 보는 관객에게도 치유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화쟁의 효과로 보았다.

끝으로 영화치료와 치유에 관한 개념과 전망에 관한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영화 치유는 아직 그 체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선행연구를 찾아봐도 영화치료와 관계된 것들은 있으나 영화 치유에 관한 것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영화치료는 학회를 중심으로 막 성장해가는 과정으로 보인다. 한국 영화치료계의 선구자인 심영섭은 영화 평론가로도 활동을 많이 하였으나 원래 바탕 학문은 생명공학과 출신의 심리학박사이다. 그래서 오히려 심리치료의 보조기재로 영화치료기법 도입을 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의 연구에서 정리하였듯이 아직 영화치료법은 확립되었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본 연구의 목적인 영화 치유는 스스로 치유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더불어 영화치료학회에도 보다 체계적인 접근법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치유는 치료와 달리 의사나 의료전문가의 처방이나 시술 없이 본인 스스로 병 증세를 나아지게 다스리는 방법이다. 그러나 병이 심한 경우 치료가 우선되어야 치유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 치료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치유는 더 강화시켜야 한다. 특히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면 치료 이전에 스스로 치유에 나서보는 것은 '치료의지의 확보'라는 점에서 더욱 권하고 싶다.

영화 치유는 영화치료와는 달리 의사나 심리 상담가 등의 조력자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 문제를 극복하고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영화는 언어를 바탕으로 삼은 표현매체로 같은 언어를 사용할 때 그 전달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한국 영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뻗어나가는 이 시기는 좋은 치유 콘텐츠의 양적 확보라는 측면에서 영화 치유가 안정적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본 연구자는 효율적인 치유 방법으로

원효의 철학적 사유를 치유 철학으로 정립해 보고자 원효의 화쟁을 고찰하여 ‘영화 치유학’으로의 가능성에 접근해 보았다. 원효의 화쟁은 언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툼의 치유에 적합한 철학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가 치유의 방법으로 불교의 화쟁철학과 예술치료의 하나인 영화치료를 결합하여 새로운 영화 치유 방법으로 영화 치유학의 밑그림이 되기를 희망한다.

이상과 같이 원효의 화쟁철학은 현대사회의 대립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물론 거기에는 현실 보완적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상호 차이의 이해와 깨달음은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함과 더불어 새로운 공존의 지평을 열게 할 것이다. 화쟁은 당면한 문제의 갈등과 대립에 대한 해소와 치유는 물론이고,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확인하고 발전’시킨다는 것으로도 오늘날 현재 여기에 꼭 필요한 사상이다. 원효의 철학이 종교를 떠나 보편 철학으로서 세상사 모든 일에 적용시킬 수 있는 차원으로의 확산을 기대해 본다.

본 연구에서 영화 치유에 있어 철학적 접근을 하는 이유는 치유의 효과를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치유 방법을 알아보고자 함이다. 영화 치유에서 관객들은 영화를 감상하면서 각자가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을 살펴보는 계기를 만나며, 영화를 보면서 간접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렇게 갈등과 문제의 해결 과정을 본다는 것은 곧 조건인과의 문제 해결 과정을 본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관객에게 작용/부작용의 간접 경험을 제공하여 화쟁의 성찰 경험을 늘려주는 효과를 가져 온다. 바로 이것이 영화 치유의 길은 크고도 넓으며 그 효과도 널리 퍼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한다.

영화 치유는 개인치유와 차이들의 관계소통을 포괄할 수 있는 ‘화쟁적 성찰능력’을 영화를 통해 일깨우고 공감하여 내면화시킨다는 것이다. ‘붙들지 않고 만나는 힘’ ‘간히지 않고 성찰하는 힘’ ‘매이지 않고 보는 힘’이 그것이다. 이런 유형의 힘이 확보되어야 개인과 사회의 보편적 치유력이 될 수 있다. 개인 실존과 사회관계 모두에 유효한 ‘화쟁적 성찰의 개안과 성숙’을 영화와 결합시키는 것이 영화 치유의 목표이다. 영화 치유가 확보하려는 것은 정서적 치료효과를 넘어서는 성찰적・인지적 치유력의 계발효과이다. 원효의 화쟁철학과 영화 치유의 접속지대도 여기에 있다. 이런 목표를 성취하는 방법과 이론의 학적(學的)체계, 그리고 어떤 문제에도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철학을 아울러 ‘영화 치유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예상되는 결과로는 우선 치유학으로서 치유철학의 정립을 기대한다. 영화치료의 구조적 문제점 및 한계를 넘어서는 본인 자각을 일깨워 스스로의 치유능력을 계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치유철학으로 분석한 결과물로는 영화

<돌아온다>에 내재되어 있던 치유 능력을 깨어나도록 하며, 영화적으로는 내재되어 있던 불교의 종교적 특징들을 드러나게 하여 후속작이나 프롤로그에 대한 여지를 제공할 수 있을까 생각한다.

> “붓다 이후 약 1200년 지난 한반도. ‘언어로 싸우는 인간’을 치유하려는 위대한 영성의 빛 한 줄기가 다시 밝아진다. ‘다투는 견해’(諍論)들을 껴안아 치유하려는 화쟁의 스승 원효. 그가 황홀한 언어치유의 춤을 춘다.”[149]

끝으로 박태원의 저서 『원효의 화쟁철학』에서 화쟁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가져온 저자의 기쁨에 찬 감상을 인용한다.

149) 박태원(2017), 앞의 책, p.129.
본 연구자에게 원효의 사상에 대한 이해는 종교 불교의 냄새보다는 인간을 위하는 깨우친 자로의 접근으로 다가서고 또 그 원효를 여기로 소환하여 현재 언어로 소개하는 박태원의 해석이 가슴 벅차다.

참고문헌 목록

[단행본]

강성률, 『위대한 철학자들은 철학적으로 살았을까』, 평단문화사, 2011.
김광철 외, 『영화사전』, MEDIA2.0, 2004.
김경현・데이비드 E. 제임스 외, 김희진 옮김, 『임권택, 민족영화 만들기』, 한울, 2005.
김득환, 『롤랑 바르트의 밝은 방-사진과 시간의 현상학』, 한국학술정보(주), 2020.
김상현, 『역사로 읽는 원효』, 고려원 1994.
김서영, 『영화로 읽는 정신분석-김서영의 치유하는 영화읽기』, ㈜은행나무, 2018.
김은하 외 6명, 『영화치료의 기초: 이해와 활용』, 박영스토리, 2019.
김호성, 『불교, 소설과 영화를 말하다-꿈과 현실의 문턱』, 정우서적, 2012.
마루야마 무쿠, 한은미 옮김, 『신인 작가를 위한 실전강의 - 스토리텔링 7단계』, 토트・북새통, 2015
박태원, 『원효, 하나로 만나는 길을 열다』, 한길사, 2012.
_____, 『원효의 화쟁철학』, 세창출판사, 2017.
_____, 원효학토대연구소 번역, 『열반종요』, 세창출판사, 2019.
_____, 원효학토대연구소 번역, 『대승기신론 소・별기 상』, 세창출판사, 2019.
_____, 원효학토대연구소 번역, 『대승기신론 소・별기 하』, 세창출판사, 2019.
_____, 원효학토대연구소 번역, 『금강삼매경론 상』, 세창출판사, 2020.
_____, 원효학토대연구소 번역, 『금강삼매경론 하』, 세창출판사, 2020.
비르기트 볼츠, 심영섭 김준형 김은하 옮김, 『시네마테라피』, 을유문화사, 2010.
배혜화, 『영화 속 나, 너, 우리』, 초이스북, 2020.
백원기, 『불교설화와 마음치유』, 도서출판 동인, 2017.
서광스님, 『치유하는 불교읽기』, 불광출판사, 2012.
선욱현, 『돌아온다』,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2018.
심영섭, 『영화치료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2019.
유응오, 『영화, 불교와 만나다』, 아름다운인연, 2008.
월 호, 『영화로 떠나는 불교 여행』, 이치, 2009.
은정희, 『원효의 대승기신론 소・별기』, 일지사, 1991.
마크 엡스타인, 김성환 옮김, 『진료실에서 만난 붓다』, 한문화, 2019.
L. 쟈네티, 김진해 옮김, 『영화의 이해-이론과 실제』, 현암사, 1987.
장상용, 『전방위 문화기획자를 위한 스토리텔링 쓰기』, 해냄, 2013.
주성철,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할 70가지』, 소울메이트, 2014.

최성수, 『영화를 통한 성찰과 인식 그리고 +α』, 이담북스, 2011.
황신웅, 『스토리텔링, 교육을 아우르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6.

[학술지]

김영일. 「원효의 화쟁방법 검토－최근 3인의 연구를 중심으로.」 불교학연구 60.- (2019): 171-197.
김수지. (2013). 「자기조력적 영화치료와 상호작용적 영화치료의 효과 비교」. 영화연구, (55), 83-126.
박재현. 「불교철학의 관점에서 본 명상과 마음치료.」 동양철학 0.49 (2018): 97-124.
박태원. 「원효 화쟁사상의 보편 원리.」 哲學論叢 4.38 (2004)
_____. 「주제4 : 화쟁사상을 둘러싼 쟁점 검토.」 한국불교사연구 2.- (2013): 125-170.
_____.「원효의 화쟁 논법과 쟁론 치유.」 불교학연구 35.- (2013): 99-138.
석길암, 「원효의 화쟁(和諍)을 둘러싼 현대적 논의에 대한 시론적 고찰.」 佛敎硏究 Vol.0No.28 (2008) : 199-216.
이필원(Lee Pil-Won). 「불교철학과 명상의 인문치료적 활용 방안 모색.」 佛敎學報 0.77 (2016): 359-380.
조수동. 「투고 논문 : 철학치료와 선.」 동아시아불교문화 3.- (2009): 255-280.

[잡지 및 뉴스 미디어]

잡지

『영화 평론』, 2003 제15호, 한국영화평론가협회, 2004.
『공연과 리뷰』, 2017 겨울 제99호, 현대미학사, 2017.
정재혁, 「대화를 위한 영화」, 『보그』, 2014.04.10.

인터넷 매체

하성태, 「허철 감독 <돌아온다>, 몬트리올영화제 경쟁부문 초청」, 『하성태의 시네마틱』, 2017.08.06. https://brunch.co.kr/@hasungtae/96
포털 다음 영화 정보, 「[About Movie] 돌아온다(2017)」
https://movie.daum.net/moviedb/main?movieId=111264#none

뉴스 미디어

강영운, 「넷플릭스 세계 영화순위, 한국 '#살아있다' 1위」, 매일경제, 2020.09.11.
김경미, 「난해한 예술영화 이해가 필요해…극장가 GV 프로그램 인기」, 서울경제, 2015.02.10.
김신성, 「영화 '돌아온다' 몬트리올국제영화제 금상 수상」, 세계일보, 2017.09.06.
배희정, 「화쟁위원회 성과와 한계 논의」, 미디어붓다, 2014.12.10.
서현욱, 「조계종 화쟁은 노동자 대표 경찰에 보내는 건가?」, 불교닷컴, 2015.12.11.
우희종, 「[주장] 조계종·정부 빼고 약자들만 손해본 조계사 사태... 길 잃은 조계종 화쟁위」, 오마이뉴스, 2015.12.12.
유선희, 「지브이'의 변신은 무죄」, 한겨레, 2015.05.27.
이유진. 「[단독인터뷰]몬트리올영화제 금상 수상 '돌아온다' 허철 감독 "다양한 한국 영화 원하는 세계인의 시선 느꼈다"」, 스포츠칸 2017.09.08.
이학종, 「화쟁위원회가 아쇼카선언 비판에 소송? 화쟁이라는 용어마저 오염시킬 작정인가!」, 미디어 붓다, 2012.02.19.
장진리, 「[공식입장] '미션 임파서블6' 톰 크루즈, GV로 韓 관객 만난다 '프로 내한러'」, OSEN, 2018.07.12.
조현, 「조계종 화쟁위 "정부-의협 갈등 중재 나서겠다"」 ,한겨레, 2020.09.01.

[영화]

김기덕, <봄 요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LJ필름, 2003.
장선우, <화엄경>, 태흥영화사, 1993.
허철, <돌아온다>, 꿈길제작소, 2017.

[드라마]

<원효대사>, KBS, 1986.

[기타]

허철, 영화 <돌아온다> 심의용 대본
____, 영화 <돌아온다> 콘티북

Abstract

Cinema Therapy with Wonhyo's Philosophy of 'Hwajaeng'

Shin, Chang-Ok
Department of Philosophy
The Graduate School of Ulsan University

It can be said that the current Korean society is in a state of severe pain in body and mind due to social conflicts, confrontations, new diseases, etc. Among them, hatred, discrimination, sadness, and anger caused by people leave indelible scars in their hearts. To heal this effectively, I intend to propose a new "movie healing: Cinema Therapy" method by combining the Buddhist "Hwajaeng(和諍) philosophy" and movie treatment, one of art therapy.

For this study, as a professor of Moving Image major from Fine Art Photography major, I tried to apply Wonhyo's teachings, which were hidden by existing texts or mysticism, to visual language through the moving image, my main major, and interpret them as a new case or a modern tale. Also, by introducing the healing effect of Tongseop(通攝) thought through Wonhyo's Hwajaeng philosophy to the real problem, I intend to approach the possibility of "healing science"by expanding the effect of language healing brought about by Hwajaeng to not only within Buddhism but also to the entire field of society.

To this end, first, by analyzing the episodes of the 41st Montreal International Film Festival Golden Zenith-winning movie <The Return>, evaluated as a healing movie, I found the cause of the conflict and pain and examined the resolution process. As there are many omissions in movies, it does not show exactly what process and what triggered the healing. However, I tried to reproduce the process by measuring it with Hwajaeng's eyes and substituting the result. And I was able to confirm that Hwajaeng leads to not only problem solving but also the enlightenment that came from the healing process and the Tongseop beyond it in the ending part of the film. In order to secure the objectivity of the research data, I added a movie script and a contibook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information seen and heard with the eyes and ears in appreciation, and supplemented the insufficient part by adding an interview with the director and

comparison with the original text.

Next, I introduced Hwajaeng philosophy as a healing philosophy. Hwajaeng is known as a solution to the controversial conflict in Buddhism, but in this study, I intended to exclude the religious colors of Buddhism and to present a method for the role and function of Hwajaeng that can be universally applied in today's real world. What I noticed here is Park Tae-won's study, which interpreted Hwajaeng as 'the healing of language disputes'. Therefore, in this study I viewed Hwajaeng which "changes the way of communication in which differences are respected and interactive" as a way to solve the no communication situation in which push out or conquer the opponent without communicating in a controversial situation, and to solve the problem we currently face. And in the process of solving the problem, I tried to focus on the correct application of Hwajaeng, in which not only one of them healed but both of them healed, and furthermore, the society to which they belonged also gained the effect of healing. This healing effect is due to conditional causality, and it was found that "Hwajaeng through Mun(門) division" makes this possible. 'Mun division thought method' in Hwajaeng, means Yeongi(緣起) thought method that reveals conditional causality, and it results in "resolving the exclusive conflict between different opinions and theories" in controversial situations, fundamentally healing confrontation and conflict. Wonhyo's 'Mun division', which transforms arguments of no communication into Hwajaeng of communication, is applied to healing and communication of controversial arguments, by inheriting the insights of Buddha's Yeongi and examining differences and changes in conflicting opinions as conditional causality. I confirmed the basis for the discrimination and acceptance of Mun division and partial validity of conditional causality by approaching 『Geumgang Sammaekyunglon(金剛三昧經論)』 and 『Daeseung Gisinlon(大乘起信論) So・Byeolgi(疏・別記)』.

Finally, it is about the concept and prospect of movie treatment and healing therapy. Currently, there is no system for movie healing in Korea, but movie treatment seems to be a growing process mainly by related academic society. However, movie treatment is mainly used as an auxiliary device for psychotherapy, and it is insufficient to consider movie treatment method to be established as an independent field. The reason for the philosophical approach to movie healing in this study is to reinforce the effect of healing and to find out more systematic healing methods. Therefore, movie heal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can provide a more systematic approach to those who want to heal themselves and to the

therapeutic society.

Movie is language-based expression media, and its transmission power is greatest when the same language is used. That is, in this period when Korean movies are recognized and spreading around the world, in terms of securing the quantity of good healing contents, it is said that movie healing can be an opportunity to establish a stable position. In movie healing, the audience encounters an opportunity to examine the cause of the pain they are experiencing while watching the movie, and experience indirectly solving their own problems while watching the movie. Seeing the process of solving conflicts and problems like that can mean seeing the process of solving the problem of conditional causality. It brings the effect of increasing reflection experience of Hwajaeng by providing an indirect experience of action/ reaction to the audience.

Here, to establish Wonhyo's philosophical thoughts as a healing philosophy as an effective healing method, I examined Wonhyo's Hwajaeng and approached the possibility of "movie healing science". This is because Wonhyo's Hwajaeng is a philosophy suitable for healing the conflicts caused by language.

As described above, Wonhyo's Hwajaeng philosophy can be the most ideal solution for solving the problems of confrontation and conflict in modern society. Of course, conditions for complementing the reality must be met, but the understanding and realization of mutual differences obtained in the process will heal human suffering and pain and open a new horizon of coexistence. Hwajaeng is an indispensable thought today, not only to resolve and heal the conflict and confrontation of the immediate problem, but also to 'confirm and develop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s and society'. I look forward to the spread of Wonhyo's philosophy as a universal philosophy apart from religion, which can be applied to all things in the world.

As an expected result of this study, first of all, it is expected to establish a healing philosophy as a healing science. It is to awaken one's self-awareness beyond the structural problems and limitations of movie treatment to develop one's own healing ability. And as a result of analysis with the healing philosophy, by awakening the healing ability inherent in the movie <The Return>, and revealing the religious features of Buddhism inherent in the movie, I think, it can provide room for a follow-up work or prologue.

Key words: Wonhyo(元曉), Tongseop(通攝), Hwajaeng(和諍), healing, Language healing, Controversy healing, Movie healing: Cinema Therapy, Movie healing science, Mun(門) division thought method, conditional causality, Yeongi(緣起)